

의정부시 승격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 의정부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정체성 고찰

발표 및 토론 자료집

일 시 2023. 11. 30. (목), 13:00~18:00

장 소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의정부문화재단  
UIJEONGBU CULTURAL FOUNDATION

후 원  의정부시





의정부시 승격 60주년 기념 학술회의  
의정부 역사문화자원과 도시 정체성 고찰  
발표 및 토론 자료집

2023



## 학술회의 식순

시간	순서	내용	발표자	토론자
13:30~13:50	개회식	국민의례, 내빈 소개, 인사말, 축사. 기념촬영	사회자	
주제발표 사회자 : 강성봉(한성대학교)				
13:50~14:15	주제발표1	지역정체성의 형성과 작동을 통해 본 의정부시 정체성 성립의 방향	박수진 (성균관대학교)	박정근 (의정부문화원)
14:15~14:40	주제발표2	조선 초기 국왕의 의정부 지역 행차와 의례적 성격	이왕무 (경기대학교)	이규철 (성신여자대학교)
14:40~15:05	주제발표3	조선시대 의정부군의 설치와 운영	최주희 (덕성여자대학교)	송양섭 (고려대학교)
15:05~15:15	휴식 및 정비			
15:15~15:40	주제발표4	근현대 의정부 문학의 흐름과 특징	김준현 (서울사이버대학교)	박수빈 (고려대학교)
15:40~16:05	주제발표5	의정부 근현대 건축 유산과 그 활용 방안	최호진 (지음건축도시연구소)	서종원 (의정부문화원)
16:05~16:30	주제발표6	의정부의 조선 역사 관련 문화행사 고찰	박성진 (예문관)	윤여빈 (경기문화재단)
16:30~16:40	휴식 및 정비			
종합토론 좌장 : 권기중(한성대학교)				
16:40~17:30	종합토론	주제별 토론 및 답변	발표·토론자	
17:30~17:40	폐회	폐회선언,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 목 차

### [주제 발표 및 토론 1]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작동을 통해 본 의정부시 정체성 성립의 방향 ..... 1

### [주제 발표 및 토론 2]

조선 초기 국왕의 의정부 지역 행차와 의례적 성격 ..... 41

### [주제 발표 및 토론 3]

조선시대~대한제국기 의정부군의 설치와 운영 ..... 59

### [주제 발표 및 토론 4]

근현대 의정부 문학의 흐름과 특징 ..... 83

### [주제 발표 및 토론 5]

의정부 근·현대 건축 유산과 그 활용 방안 ..... 103

### [주제 발표 및 토론 6]

의정부의 조선 역사 관련 문화행사 고찰 ..... 161





##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작동을 통해 본 의정부시 정체성 성립의 방향

박수진(성균관대학교)

1. 머리말
2. 지역정체성 연구의 국내외 사례조사
  - (1) 자연발생적 지역정체성 - 서울의 강남, 성남의 분당
  - (2) 공동체 만들기 - 지역 정체성의 창조
3. 지역 정체성 연구의 적용 및 효용
  - (1) 지역 정체성의 효용과 한계
  - (2) 정체성의 창조와 지역 공동체
4. 의정부 지역 정체성 수립의 방향 : 화해와 소통의 허브
5. 결론

### 1. 머리말

21세기는 세계화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빠르게 문화가 전파되는 시대이다. SNS와 OTT서비스를 통해 한 국가에서 창작된 콘텐츠는 공개와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소비된다. 유튜브 등에 몇 억 조회 수는 하나의 국가만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이다. 세계화라는 말과 지역이라는 말의 합성어인 글로컬(Glocal) 역시 이제는 식상한 용어이다. 하지만 식상하다고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세계적으로 동시에 유행하는 문화들은 문화적 보편성과 함께 국가적 혹은 지역적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른바 K문화들이다. 한국의 영화, 음악, 드라마 등은 세계적 유행과 함께하고 있거나 문제의식을 공

유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적인 것이 도드라짐으로 차별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성을 만들어 내기 위해 지역 문화나 지역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sup>1)</sup> 그런데 정체성은 추상적인 개념이다. 본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기도 하다. 정체성에 대해서 사전의 정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립국어원 : 변하지 아니하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 존재
- Cambridge Dictionary : 한 사람의 이름을 비롯하여 그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사실들<sup>2)</sup>
-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 개별 개체들이 그 자체에 대하여 맺는 관계<sup>3)</sup>
- Wikipedia(English) : 한 개인이나 집단을 특정짓는 자질, 믿음, 개인적 특성, 용모나 표현 등<sup>4)</sup>
-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 개인이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기능을 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의미에 따라 해석되고 주입되어, 그 의미가 개인 내지 집단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생물학적 특색, 심리학적 성향, 혹은 사회-인구학적 지위.<sup>5)</sup>
- Encyclopedia of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 정체성이라는 용어는 “같은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identitas*에서 유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동질성 내지는 유사성 개념은 정체성이 가지는 무수한 함의로 인해 포괄적인 용법이나 설명을 제공하기에 부족하다.<sup>6)</sup>

1) 임병조, 2009, 「지역 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 홍성신문에 투영된 '內浦'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44, 90쪽.

2) "Identity", Cambridge Dictionary, "A person's name and other facts about who they are", Accessed September 4, 2023,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identity>

3) Robert Audi, 1999, "The relation each thing bears just to itself", The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Cambridge, p.415.

4) "Identity(Social Science)", Wikipedia, "The qualities, beliefs, personality traits, appearance, and/or expressions that characterize a person or group" Accessed September 4, 2023, [https://en.wikipedia.org/wiki/Identity\\_\(social\\_science\)](https://en.wikipedia.org/wiki/Identity_(social_science))

5) Seth J. Schwartz, et al., 2011, "Characteristics such as biologic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al dispositions, and/or socio-demographic positions, that are interpreted and infused with personal and social meaning, and that these meanings are applied to define individuals or groups",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p.2.

6) Sam Goldstein, Jack A. Naglieri., 2011, "The term identity is derived from the Latin *identitas*, which means 'the same.' This notion of sameness or similarity, however, falls short of providing comprehensive utility or explanation, given the myriad implications of identity.", Encyclopedia of

- Encyclopedia of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 정체성 형성은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독특한 관점을 형성하는 복잡한 방식과 연관이 있으며, 지속성과 내적 통일성에 의해 특징지어진다. 그렇기에 정체성은 자아, 자기개념, 가치관, 그리고 인격 개발과 같은 용어들과 밀접하게 연관된다.<sup>7)</sup>

이상에서 살펴본 것을 정리하면 정체성은 개인이나 집단이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어떤 것이다. 정체성은 후천적으로 여러 사회·경제적 조건 속에서 만들어진다. 개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국가, 기업의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지역정체성은 이중 국가정체성의 형성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다. 국가와 지역은 일종의 추상적 단위이면서, 공간적 단위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인간이 만들어 낸 ‘상상된 공동체’이다.<sup>8)</sup> 물론 국가가 현실에서 실재하는 공동체임은 부정할 수 없지만, 국가라는 형태의 공동체가 힘을 갖는 것은 국민과 주권과 같은 추상화된 개념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지역 역시 마찬가지이다. 지역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지구의 개념에서 봤을 때 동아시아, 중동, 북아메리카 등은 하나의 지역 단위로 묶을 수 있으며 종종 그렇게 묶여서 개념화 된다. 때로는 동아시아, 중동, 인도차이나반도, 인도를 모두 묶어 ‘아시아’로 통칭하기도 하지만, 이 광범한 지역을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대로 지역은 국가보다 더 작은 단위로 세분화된다. 대한민국의 사례를 봐도 지역은 광역시도단위부터 읍면동 단위를 넘어 마을 단위까지 ‘지역’으로 묶인다. 이는 지역을 어떻게 묶느냐에 따라 ‘지역’의 범위가 달라지며, ‘지역’을 규정하는데 필요한 정체성도 달라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역의 규정은 다르게 해도 정체성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것은 일종의 소속된 지역에 대한 ‘애착만들기’일 수 있다. 애착은 여러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다. 역사와 전통, 사회경제적 변화의 누적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권력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둘 모두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국가와 민족정통성 만들기를 넓게 보는 한에서 지역정체성 만들기와 같다고 볼 때, 정체성 만들

---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pp.775-779.

7) Sam Goldstein, Jack A. Naglieri., 2011, “Identity formation has to do with the complex manner in which human beings establish a unique view of self and is characterized by continuity and inner unity. It is therefore highly related to terms such as the self, self-concept, values, and personality development.” Encyclopedia of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pp.775-779.

8) 베네딕트 앤더슨 지음, 서지원 옮김. 2018, 『상상된 공동체』, 도서출판 길. 24~28쪽. 베네딕트 앤더슨은 이 책 전반에서 민족, 국가 등의 단위가 왕의 영지, 종교, 출판과 관련된 언어의 통일, 훗날에는 인종주의와 교육 등으로 인해 상상된 공동체임을 역설하고 있다.

기는 근대 이후에 많은 국가에서 행해졌다. 스코틀랜드의 킬트, 영국의 왕실근위대 교대식 등은 널리 알려진 전통 만들기의 일환인 동시에 정체성 만들기의 방법론이었으며, 근대 국가 통치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였다.<sup>9)</sup> 이제 막 탄생한 근대국가는, 동시에 태어나야만 했던 ‘국민’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야 했기 때문이다. 수많은 전통이 20세기 초에 발명된 것은 이러한 필요에 의한 것이었다.<sup>10)</sup>

정체성이 “사람이나 집단을 특징짓는 자질, 신념, 성격적 특성, 외모 및/또는 표현”이라고 한다면, 지역정체성은 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같은 집단이라고 상정하고, 그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어떠한 특징을 말한다. 문제는 한 지역에 사는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이러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느냐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도시라는 인구가 유동적인 공간에서 이러한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하지만 정체성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존재한다. 어떤 지역 사람에게 본인이 사는 지역의 특성을 묻는다면, 그 내용은 각기 다를 수 있어도 무언가 특성을 이야기 한다면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그 지역의 정체성이다. 내가 누구인가를 나 스스로 정의할 수 있고, 남에 의해서도 정의 될 수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나의 정체성이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sup>11)</sup>

때문에 본고에서는 지역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형성되고,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며 마지막으로 의정부시의 지역 정체성 수립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먼저 기존의 지역정체성이 어떤 형태로 형성되어 왔는지를 알아보겠다. 이런 지역정체성은 국가단위부터 마을단위까지 다양하다. 이런 정체성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2장에서는 이러한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3장에서는 만들어진 지역정체성이 사회·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를 추적하겠다. 이는 매우 광범한 작업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몇몇 도시들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정체성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려고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역사문화 자원의 특성을 간략하게 분석하고 이를 통해 의정부시 정체성의 수립 방향을 이야기 하겠다.

9)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민석 옮김, 2022,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10)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장민석 옮김, 2022, 앞의 책, 19쪽.

11) 이와는 차이가 있지만, 베네딕트 앤더슨은 “근대 세계에서 누구나 민족성(nationality)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만 하며 가져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2019, 앞의 책, 24쪽). 정체성 역시 근대의 민족성이 없는 사람이 존재하기 힘든 것과 같이,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며, 가져야 할 것인 무엇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지역정체성 연구의 국내외 사례조사

### 2.1. 자연발생적 지역정체성 - 서울의 강남, 성남의 분당

지역의 개념은 상대적이다. 넓게는 대륙 단위를 다루기도 하고<sup>12)</sup>, 좁게는 기초자치단체나 마을까지를 다룬다.<sup>13)</sup> 다만 지역의 넓고 좁음과 상관없이,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변화해 왔다. 이런 정체성은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먼저 주목할 것은 자연적인 형태로 형성된 지역 정체성의 사례이다. 정체성은 일견 모두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것 같지만, '만들어지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정체성의 사례는 지역 정체성이 어떠한 요소를 갖고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이기도 하다. 여기서 살펴볼 사례는 서울의 '강남'과 성남의 '분당' 지역이다.

현재 우리가 말하는 '강남'은 서울시 강남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다. 때로는 강남구만을 지칭하지만, 때로는 강남, 서초, 송파 세 개의 구를 묶어 강남 3구로 불리기도 하고, 강동구 역시 이 '강남'에 편입하고 싶어 한다. 이런 '강남'은 1960년대 처음 서울로 편입되었다. 당시에는 성동구에 속했다. 이후 1975년 강남구가 공식적 행정구역으로 등장하였다. 이후 강남구의 일부가 강동구, 서초구로 분리되는 등의 과정을 거치며 오늘날의 강남 3구가 형성되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을 '서울사람'보다는 '강남사람'이라 여기며, 이 때의 강남은 지리적, 행정적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sup>14)</sup>

강남 지역은 중산층의 생활공간으로 조성되었지만, 시대의 흐름과 국가 정책 등에 따라 그 의미가 변화하였다.<sup>15)</sup> 1990년대 강남과 관련된 담론 및 인식은 '강남 8학군'으로 대표되는 교육 문제가 중심이었다. 간혹 강남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가 언론에서 거론되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일반 시민들의 강남 인식과 거리를 두고 있었다. 이러한 강남

12) 이는 주로 제국주의적 시각에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타지역 연구'로 지칭된다. 동아시아학, 중동학, 라틴아메리카학, 유럽학, 아프리카학, 인도학 등이다. 여기서 언급한 연구 단위로서의 지역은 그 명칭에서도 드러나듯 하나의 국가보다 범위가 큰 '지역'이다. 혹은 미국학, 한국학, 일본학 등 하나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박충환, 2020, 「글로벌 문화지형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위치」 『嶺南學』 73, 9쪽).

13) 이러한 지역학 연구는 한국에서 1980년대부터 시작된 지역학은 1993년 서울시립대학에서 서울학연구소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인천, 울산, 경기, 충청북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도에서 지역학 연구소를 만들며 본격화 되었다(오영교, 2017,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지방사와 지방문화』 22권 2호, 164~165쪽).

14) 연구모임 공간담화·도시사학회, 2023, 『서울은 기억이다』, 서해문집.

15) 홍지수, 2022, 「강남 지역의 담론적 재현과 정체성 변동 -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1990-2021」,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인식에 커다란 변화가 온 것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였다. 이때부터 강남의 아파트들은 단순한 거주공간을 넘어서서 재산 증식수단으로 간주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언론보도를 통해 더 자주 노출되고 공유되었다. 이후 강남이라는 공간은 누구나 재산 증식을 위해 들어가야 하는 공간이자, 다른 신도시 지역들이 닮고 싶어 하는 공간으로 변화해 나갔다.

이러한 언론 지면상의 강남 인식과 더불어, 강남 주민들은 스스로 강남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들을 강남 바깥의 타자와 구분하였다. '강남'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른 지역과 접촉하면서 다른 지역을 타자화 하고, 그 반대로 강남 지역 주민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창조하고 향유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낸 정체성을 기반으로 다시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동시에 강남 바깥의 타자와 자신의 관계를 설정하였다.<sup>16)</sup>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를 외부 세계와 구분짓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는 작업은 생활 과정만큼이나 공간의 조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간(지역) 개발 자체는 국가를 비롯한 거대 기관들의 의도에 의해 진행되지만, 그렇게 형성된 새로운 지역이 특정한 의미를 갖고, 같은 행정구역 내의 다른 지역과 스스로를 구분짓는 자기정체성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는 한강과 강남 일대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해당 지역에서 밀려나며 다른 공간에 거주하게 된 거주민들의 생활공간은 부정적인 의미를 부여받았다. 반면에 새로이 조성된 강남, 국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공간에 거주하게 된 주민들은 스스로의 삶에 대해 중산층의 발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이러한 이미지는 국가 차원에서도 국가의 발전이라는 서사로 나타났다.<sup>17)</sup>

이러한 시민들의 정체성 형성은 또 다른 신도시인 분당 지역에서도 나타난다.<sup>18)</sup> 분당구가 속해있는 성남시는 본래 강남 지역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광주의 일부였으나, 서울 중심부에서 이주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1973년에 독립된 시로 분리되었다.<sup>19)</sup> 성남시가 형성되기까지 서울의 인구를 강제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광주 대단지 사건을 비롯한 여러 차례의 이주와 충돌이 존재하였고, 이 시기의 사건들은 오늘날의 성남 지역에 대한 인식에

16) 이영민, 2008, 「서울 강남 정체성의 관계적 재구성 과정 연구 - 지역 구성원들의 내부적 범주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17) 박해남, 2019, 「서울 올림픽과 도시개조의 유산 - 인경경관과 낙인경관의 탄생」, 『문화와사회』 27-2.

18) 장세훈, 2017, 「중산층 프로젝트로서 '분당 만들기' - 분당 신도시 조성의 사회학적 해석」, 『지역사회학』 18-1, 36쪽 ; 성남시, 2017, 『성남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31~32쪽.

19) 성남시사편찬회, 2014, 『성남시사 6 도시개발사 - 도시박물관, 성남』.

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sup>20)</sup> 분당구는 성남시 내에 위치한 신도시이지만, 해당 지역의 형성 과정과 정체성은 성남시의 다른 지역들과는 차이를 보인다.

현재의 성남시가 광주대단지 사건으로 대표되는 1960~70년대 서울 내 과잉인구를 이주시키면서 형성된 반면, 1989년 2차 신도시 개발계획에 근거하여 설립된 분당신도시는 중산층 인구의 입주를 위해 형성된 도시였다. 분당 신도시에 거주하게 된 중산층 주민들은 한편으로는 가까이 있는 강남 지역의 삶을 모방하며 자신들의 계층적 정체성을 드러내려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성남시 내의 다른 지역을 타자화 하며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중산층 주민들은 서울 강남지역을 모방하고 추월하기 위한 상승욕구를 기반으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이러한 분당 주민들의 정체성 및 상승욕구 표출은 정치적으로는 분당시 독립운동으로 나타났고, 사회적으로는 강남에 대한 모방 및 지역 내 하위계층의 중산층 모방으로 나타났다. 분당 지역을 독립된 시로 승격시키려는 입주주민들의 시도는 서명운동으로 나타났으나 결실을 보지 못하였고, 이후에도 여러 번 선거구호로 언급되었지만 실효는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대외적으로는 분당을 성남 안의 독자적인 공간으로 각인시켰고, 대내적으로는 분당 주민들이 지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sup>21)</sup>

이후 분당지역 주민들은 성남 구시가지와 자신들을 구분하고, 같은 분당구 내에서도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스스로를 분리하며 중산층 지역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하였다. 이러한 구분짓기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영역은 교육으로, 분당 주민들은 밖으로는 다른 성남 주민들과 독립된 학군을 설정하기를 요구하였고, 안으로는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중산층 주민들 간의 학구를 분리하며 분당을 중산층의 지역으로 규정하였다.<sup>22)</sup>

밖으로는 타자의 배제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규정한 분당 주민들은 안으로는 강남 지역을 모방하면서 스스로 생각하는 중산층 상을 구현하려 하였다. 중산층 주민들은 교육, 문화, 소비 등의 측면에서 강남의 생활 양식을 모방하면서 그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적 생활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같은 지역에서 거주하는 하위계층 또한 이러한 중산층의 삶을 모방하면서 중산층적 생활 양식을 수용하고, 계층상승을 통해 중산층에 편입하려 하는 모습을 보인다.<sup>23)</sup>

20) 성남시사편찬회, 2014, 앞의 책.

21) 장세훈, 2017, 앞의 글, 24쪽.

22) 장세훈, 2017, 앞의 글, 25, 26쪽.

지금까지 살펴본 강남과 분당의 사례는 근현대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역정체성이 분화하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스스로를 구분한 경우이다. 이와 달리 전근대부터 같은 행정구역 안에 위치하면서도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보유하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정체성의 분화는 물리적인 공간 구획으로 인해 다른 지역과 분리된 환경에서 기인하였다.

근현대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지역정체성이 분화하고 이를 통해 다른 지역과 스스로를 구분한 사례 외에도 전근대부터 같은 지역 안에 위치하면서도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을 보유하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같은 행정구역 안에 존재하는 지역이라도 물리적 공간이 나누어진 점과, 그 한정된 공간 안에서 주민들이 함께 향유하던 공동체 활동으로 인해 일부 지역의 주민들은 주변과는 다른 독자적인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울산 병영지역을 들 수 있다. 울산 병영지역은 옛 경상좌병영이 위치하였던 곳으로, 병영의 성벽을 쌓고 내부의 군사 수요를 담당할 인원들을 이주시키며 사람들이 대규모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sup>24)</sup> 성벽은 자연스럽게 병영 지역의 경계가 되었고, 성 안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물리적 경계인 성벽을 매개로 하여 경계 안의 사람들끼리 공동체의식을 강화하여 나갔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지역의 공동 축제로 병영 내부의 여러 마을들이 함께 서낭치기를 치렀다. 이는 병영 주민들이 연합을 통해 동리를 넘어서는 병영 단위의 정체성을 공유하고 재생산 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sup>25)</sup>

이와 같은 병영지역의 정체성은 일제강점기에도 유지되었고,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병영지역에서 일어난 3.1운동이다. 병영 지역 자체는 경상좌병영의 해체 이후 지역의 특수한 성격을 상실하여 농촌으로 변화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역의 물리적 경계 역할을 하던 성벽도 퇴락하여 건축자재나 논밭으로 변화하였다.<sup>26)</sup> 하지만 병영 주민들은 여전히 다른 울산 지역과는 독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울산 지역에서 전개된 3.1운동 양상에 대한 주도자의 회고에서도 드러난다. 해당 회고에 따르면 병영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3.1운동에 호응했으며, 이는 읍내에서 계획이 누설되고 군인들에 의한 검거가 이루어졌다는 모습과 상반된다.<sup>27)</sup> 구술자의 회고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

23) 장세훈, 2017, 앞의 글, 33쪽.

24) 김유신, 2014,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 지역정체성의 재생산」,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167~168쪽.

25) 김유신, 2014, 앞의 글, 171쪽.

26) 김유신, 2014, 앞의 글, 172~173쪽.

27) 김유신, 2014, 앞의 글, 175~176쪽.



전에서 병영 지역이 여타의 울산 지역과 다른 모습을 보여준 점과 그에 대한 자부심이 드러나는데, 이는 병영이 전근대 시절부터 가지고 있던 독자적인 지역 정체성이 근대의 주요 사건에서도 작동하고, 지금도 그러한 정체성이 남아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이 외적인 변화나, 오랫동안 존재한 관습에 의해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형성, 수용하고 스스로를 타자와 구분짓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정체성 형성 외에도 정체성을 형성하고 재생산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그 방법들을 분석하기 전에, 도시와 지방의 정체성 형성 양상을 비교하며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지역의 역사, 문화, 행정구역 등 다양한 조건들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2.2. 공동체 만들기 - 지역 정체성의 창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자연발생적인 지역 정체성 형성과 반대로,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창조해 내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개별 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을 분석하며 지역 정체성의 창조 및 재확인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정체성의 창조는 외적 요인의 변화로 인해 정체성을 유지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대두할 때 이루어진다. 특정한 행정구역 내지는 생활권으로 분류되는 지역에 변화가 발생하여 더 이상 지역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지역 주민들, 혹은 결속 강화를 통해 지역을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 주체들이 정체성의 창조를 시도한다.

정체성 창조의 양상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정체성의 재확인과 새로운 정체성의 창조이다. 정체성의 재확인은 이전부터 지역에 존재하여 왔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요소를 지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다시금 부각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정체성의 창조는 기존의 지역 정체성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지역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해 내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근대 및 전근대적 요소에 기반하여 정체성을 재확인 하고 만들어내는 과정과, 기존 정체성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된 지역이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양상을 소개하고자 한다.

### 2.2.1. 전근대적 상징의 활용 - 쾰른의 카니발, 오키나와의 슈리성

상징을 내세워 외부와 대항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한 대표적인 사례로 독일 쾰른 시

와, 일본 오키나와 현을 들 수 있다. 이 두 지역은 현재는 각각 독일과 일본이라는 국민 국가의 일부이지만, 근대 이전까지 한 쪽은 자유도시의 지위를 누려왔고, 다른 한쪽은 독립국으로 존재하여 왔다. 국민국가로 편입된 뒤에도 이들 지역들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정체성을 유지하였다.

퀵른 시는 본래 로마 제국시절 건설된 식민지에서 출발한 도시로, 신성로마제국 시기에 도 오랫동안 제국 자유도시의 지위를 유지하여 왔다. 1815년 빈 협약으로 퀵른이 프로이센에 편입되었으나 프로이센과 퀵른 사이에는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계속되었다.<sup>28)</sup> 자유도시적 정치풍조와 카톨릭 전통이 강한 퀵른 지역 주민들은 권위주의적인 개신교 국가 프로이센 왕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다. 행정조직 개편 과정에서 지역의 자율성이 침해되고 각종 교육, 행정기관들이 퀵른 주변 도시들에 설치되면서 이러한 시선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와 같은 지역 소외의 와중에 지역의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고 표출할 수단으로 대두된 것이 퀵른 카니발이었다.

퀵른 카니발의 연원에 대해서는 고대 로마시대의 축제에서 기원한다는 설과, 기독교 문화가 정착한 뒤에 형성되었다는 설이 존재한다.<sup>29)</sup> 정확한 연원은 차치하고라도, 카니발은 중세시대 동안 해마다 계속되었다. 하지만 19세기 초반의 국제정세 변화의 영향으로 퀵른 카니발 또한 중세적 원형에서 변화하였다. 근대적으로 재구성된 카니발 행렬에서는 콜로니아, 퀵른 도시방위군의 별칭인 붉은 불꽃, 그리고 퀵른의 문화적 위상을 상징하는 영웅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각각 퀵른 시 자체, 퀵른의 수호자, 퀵른의 역사적, 문화적 위상을 상징하였으며, 퀵른 시민들은 이러한 상징들의 행렬을 통해 지역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하고 도시의 정체성을 재생산하였다.<sup>30)</sup>

이후 시대를 거치며 퀵른 주민들이 가진 정체성은 계속 변화하였고, 이에 따라 카니발 행렬의 구성도 거듭 변모하였다. 1848년 유럽 각지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독일에서도 3월혁명이라 불리는 일련의 혁명이 일어난 후, 1850년에 열린 퀵른 카니발에서는

28) 조관연, 2009, 「'근대적' 퀵른 카니발의 탄생과 지역 정체성 형성과정」, 『역사문화연구』 34, 396~398쪽.

29) 퀵른 카니발에 대한 천현순의 연구에 따르면 퀵른 카니발의 연원을 두고 고대 로마의 식민도시시절부터 이미 카니발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는 요제프 클러쉬(Joseph Klersch)의 견해와 기독교문화가 정착한 이후부터 카니발이 기원하였다는 볼프강 헤르본(Wolfgang Herborn)의 견해가 존재한다(천현순, 2010, 「독일의 지역문화와 지역의 정체성 - 퀵른 카니발 축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3, 475쪽). 국내 학자들의 경우 조관연은 카니발 축제가 시작한 시대적 하한을 중세시대라 보았고(조관연, 2009, 앞의 글, 398쪽), 천현순과 사순옥은 카니발의 시작을 고대 로마 시대부터 기원하였던 것으로 보았다(천현순, 2010, 앞의 글, 475쪽 ; 사순옥, 2008, 「지역문화사업의 콘텐츠로서의 축제와 지역의 발전 ; 퀵른 카니발」, 『독일언어문학』 39, 357쪽).

30) 조관연, 2009, 앞의 글, 404~408쪽.

프로이센의 권위주의적 정치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sup>31)</sup> 독일 통일을 전후한 시기에 쾰른 주민들은 점차 독일 제국과 타협하고 공존하였으며, 이는 카니발 행렬에서 지역 전통을 상징하는 인물들이 대체되거나 사라지는 모습으로 드러났다.<sup>3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쾰른 카니발 특유의 풍자적 기능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었다.<sup>33)</sup>

2차세계대전 이후 쾰른 카니발은 다시 한 번 큰 변화를 맞이하였다. 나치당의 집권 이후 정권의 메시지를 재생산하는 어용축제로 전락하였다가 전쟁이 발발하면서 중단되었던 카니발은 종전 후 1949년에 들어서 부활하였다.<sup>34)</sup> 이후 쾰른 카니발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산업이자, 지역 주민들이 하나되어 쾰른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는 문화 전승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sup>35)</sup>

이와 같이, 쾰른 카니발은 단순한 유희의 장이 아니라 풍자를 통해 권력에 저항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의례의 장이었다. 오늘날에도 쾰른 카니발은 문화도시로서의 쾰른의 정체성을 온 세계에 알리는 축제로 기능하고 있으며, 매년 새로운 모토를 통해 쾰른 주민들의 목소리와 생각을 드러내는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sup>36)</sup>

쾰른과 유사하게 국민국가의 일부로 편입되었음에도 그 이전의 고유한 문화요소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창조하고 보존하는 사례로 오키나와(沖繩)를 들 수 있다. 오키나와는 본래 류큐 왕국이었으나, 17세기 이후 일본 사츠마번의 속국이 되었고, 19세기 말에 일본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1972년까지 미국의 지배를 받았고, 이후 일본국 오키나와현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를 거친 격동의 시기 속에서 오키나와 주민들은 스스로의 고유한 문화적 요소를 활용하여 정체성을 창조하고 유지하였다.

이러한 오키나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슈리성(首里城)의 재건을 들 수 있다. 류큐왕국 시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슈리성은 여러번 파괴되고 재건되었으며, 특히 근대에 들어서는 슈리성의 재건을 둘러싸고 다양한 주체들이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해당 장소에 새로운 랜드마크를 건설하거나, 혹은 슈리성의 복원을 진행하려 하며 오키나와

31) 조관연·장희권, 2010, 「국민국가 형성기 지역 축제의 역할과 변화 - 쾰른 카니발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49, 318쪽.

32) 조관연·장희권, 2010, 앞의 글, 323~324쪽.

33) 조관연·장희권, 2010, 앞의 글, 324쪽.

34) 사순옥, 2008, 앞의 글, 359쪽.

35) 사순옥, 2008, 앞의 글, 371~372쪽.

36) 사순옥, 2008, 앞의 글, 358~359쪽.

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하였다. 류큐의 지역 주민들은 이러한 외부의 압력에 맞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고 슈리성이라는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류큐 지역 주민들에게 슈리성은 단순한 궁성이 아니라 류큐 문화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공간이었고, 류큐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이었다.<sup>37)</sup>

이러한 류큐 주민들의 장소성에 기반한 정체성 재확인을 잘 보여주는 사건으로 1992년 슈리성 복원을 들 수 있다. 슈리성은 이전에도 여러 번 소실과 복원, 개조를 겪었고, 이 과정에서 복원 혹은 개조를 주도한 여러 주체들은 자신들의 의지에 따라 슈리성이라는 장소를 활용하고 이를 통해 류큐인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려 하였다. 사쓰마 번은 슈리성의 재건을 주도하며 류큐를 사쓰마의 피지배지로 규정하려 하였고, 일본 정부는 슈리성을 철거하고 다른 시설을 설치하려 하거나, 혹은 슈리성 복원을 주도하며 류큐의 정체성을 일본의 정체성으로 포섭하려 하였다. 전후 오키나와를 지배한 미군은 파괴된 슈리성 부지에 대학을 설치하며 전쟁중의 파괴행위를 정당화하고 류큐인들이 미군의 피지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하였다.

1992년의 슈리성 복원도 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복원이 완료된 1992년은 오키나와가 일본으로 복귀된 지 20주기를 맞이하는 해였고, 일본 정부는 슈리성 복원의 의의에 대해 ‘일본의 특색있는 건축물을 복원함으로써 오키나와 건축문화의 수준을 제시’하는 것이라 밝혔다. 이는 오키나와 지역은 일본의 일부이며, 오키나와가 가지고 있는 문화 또한 일본 문화의 일부라는 일본 정부의 오키나와 지역에 대한 규정을 보여준다.<sup>38)</sup>

하지만 오키나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다. 정부의 의도와 달리 지역 주민들은 슈리성 복원이라는 상징적 사건을 계기로 하여 류큐에 대한 기억과 인식을 다시 환기하였다. 슈리성을 배경으로 류큐에 대한 드라마가 제작되었고, 오키나와어 연극과 노래가 다시 유행하였다. 슈리성의 복원은 일본 정부의 의도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었으나, 오키나와 주민들은 복원된 슈리성을 기반으로 삼아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만들어내었다<sup>39)</sup>

### 2.2.2. 정체성의 발명 - 군산과 목포, 루베 그리고 라인강 벨트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근대 국민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지역들은 전근대의 역사문화유산을 지역 정체성의 상징으로 삼아 국가가 하달하는 정체성에 대항하고 타협하며

37) 김창민, 2014, 「문화표상에 나타난 문화적 정체성의 경쟁 : 오키나와 슈리성의 사례」, 『동아시아문화연구』 56, 64쪽.

38) 김창민, 2014, 앞의 글, 62~63쪽.

39) 김창민, 2014, 앞의 글, 64쪽.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창조하였다. 이러한 사례 이외에도 지역의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사례가 존재하니, 기존의 정체성이 더 이상 기능할 수 없게 되어 보유한 역사문화자산을 활용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정의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정체성 변화의 사례로 한국의 군산과 목포, 그리고 프랑스의 루베(Roubaix)시를 들 수 있다. 이들 도시들은 근대 시대에 해운 및 산업으로 번영하였으나 시대의 변화로 인해 쇠락하였고, 이후 도시가 보유한 근대적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시행, 문화도시로서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군산과 목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각각 옥구현과 무안현의 하위 행정구역이었다. 조선시대 군산 지역에는 조창인 군산창, 수군기지인 군산포영이 있었고, 목포 지역에는 수군기지인 목포영이 존재하였다.<sup>40)</sup> 군현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조창 및 군사기지였던 두 지역이 독립된 도시로 성장한 것은 근대에 들어서면서 두 지역에 개항장이 설치되면서였다.

목포는 1897년, 군산은 1899년에 개항이 이루어졌고, 군산은 미곡 수출의 중심지로서 일제에 의해 개발되고 성장하였다.<sup>41)</sup> 항구를 통한 미곡 거래가 지역의 중심 사업이 되면서, 근대 도시 군산이 형성되었고, 자본과 상품이 출입하는 근대적 건축물들은 군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 장소가 되었다.<sup>42)</sup> 이러한 양상은 목포 또한 마찬가지였다. 특히나 목포의 경우에는 일본인 거주지와 도시 외곽지대의 조선인 거주지가 나누어지며 근대가 갖는 이중성, 양면성을 명확히 드러내는 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sup>43)</sup>

두 항구도시는 해방 이후 경제적 활력을 상실하였다. 식민지 조선과 일본 사이의 교역이 단절되면서 일본과의 교류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서울과 영남 중심으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목포와 군산은 소외되고 정체되었다.<sup>44)</sup> 이 과정에서 도시에는 다수의 근대건축유산들이 남아있게 되었다.

남아있던 근대건축유산을 활용하게 된 것은 2001년 등록문화재 제도의 도입을 통해 가

40) 『新增東國輿地勝覽』 卷34 沃溝縣, “群山浦營, 在縣北二十二里. 水軍萬戶一人. 群山倉 在群山浦 舊在龍安縣 爲得成倉 今移于此.” ; 卷 36 務安縣, “木浦營 在縣南六十八里. 羅州木浦至此入海 故通稱木浦. 水軍萬戶一人. 弓裔時 高麗太祖領兵至羅州浦口 後百濟甄萱親率兵列戰艦 自木浦至靈巖郡德津浦 首尾相銜 水陸縱橫 兵勢甚盛. 諸將患之 太祖曰 ‘勿憂也. 師克在和 不在衆.’ 乃進軍急擊 敵船稍却. 乘風縱火 燒溺者大半 斬獲五百餘級 萱以小舸遁歸.”

41) 김중일, 2023, 「경관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군산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36, 49~50쪽.

42) 전영의, 2022, 「일제 강점기 개항장의 도시화 과정과 식민지 근대화의 이중성」,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6-3, 134쪽.

43) 최아름, 2020, 「군산과 목포의 장소성 기반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전략 비교」, 『인문콘텐츠』 57, 106쪽.

44) 홍석준, 2008, 「근대 문화유산 관련 담론을 통해 본 도시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 개항도시 목포의 사례」, 『한국학연구』19, 85쪽 ; 전영의, 2022, 앞의 글. 142~143쪽.

능하게 되었다. 이후 군산과 목포는 근대건축유산들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관광도시로 다시 거듭났다.<sup>45)</sup> 이후 2018년 문화재청이 추진한 ‘근대역사 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 대상으로 목포, 군산, 영주가 선정되었고, 군산은 내항 일대를, 목포는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를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하여 지역의 근대적 역사 문화유산을 보존하였다.<sup>46)</sup>

도시 재생과 새로운 정체성 형성의 근간이 된 것은 근대의 유산이었다. 군산과 목포는 도시의 근대 건축물들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각 구역과 근대 역사를 연결짓고 지역에 의미를 부여하였다.<sup>47)</sup> 두 도시는 도시의 영역 안에 존재하는 근대적 장소들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도시의 문화를 형성하고 도시재생을 진행해 나갔다.<sup>48)</sup> 도시의 근대적 공간들은 도시를 상징하는 장소로 거듭나고, 이들 공간에 의미를 부여하며 근대역사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이 확립되었다.

군산과 목포는 항만도시, 교역도시로서의 역사적 경험과 이를 드러내는 근대적 공간을 도시 정체성 창조의 기반으로 삼았다. 이와 유사하게 도시의 재생으로 새로이 정체성을 형성해낸 지역으로 루베를 들 수 있다. 본래 산업 중심의 도시였던 루베 시는 섬유산업의 몰락 이후 지역에 남아있던 산업시대의 역사문화유산을 활용하며 문화도시로 거듭났다.

루베 시는 프랑스 북부 해안가에 위치한 도시이다. 본래 이 지역은 농촌지대였으나 19세기를 거치며 유럽 섬유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였다. 섬유산업과 루베 시의 쇠락은 1970년대 산업 구조의 변화로 대부분의 섬유공장이 폐업하며 시작되었다. 지방분권화 및 국토균형발전정책이 시행되는 와중에도 지역의 중심도시인 릴(Lille) 시나 새로이 건설된 신도시인 빌뇌브다스크(Villeneuve d'Ascq)에 밀리는 처지였다.

침체와 소외는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루베 시는 1835년에 시립 산업박물관을 처음 개장하였고 1862년에 처음으로 미술관을 열었다. 이후 미술관은 해를 거듭하여 성장하였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재개관하지 않았고, 1959년 국가와 시가 미술관의 운영 및 관리를 포기하며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32년 개장하여 시민들의 교류와 여가의 공간이 되었던 라 피신(La Piscine) 수영장도 1985년 안전을 이유로 문을 닫았다.

---

45) 전영의, 2022, 앞의 글, 142~143쪽.

46) 최아름, 2020, 앞의 글, 96쪽.

47) 최아름, 2020, 앞의 글, 110쪽.

48) 전영의, 2022, 앞의 글, 143쪽.

침체된 루베에 변화가 찾아온 것은 80년대 말이었다. 1988년 열렸던 루브르 박물관의 순회전시가 루베에서 열릴 때 지역 학예관은 루베 시 소장 미술품을 함께 전시하였다. 이 전시회의 성공으로 루베 지역에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많은 시민들이 공유하였다.<sup>49)</sup> 이후 미술관을 건립하려는 루베 시민들의 의지와 지방의 문화적 분권을 추구하던 정부의 정책이 맞물려 루베 시는 라 삐신 수영장을 미술관으로 개조, 2001년 개관하였다.<sup>50)</sup>

새로이 개관한 라 삐신 미술관은 미술관으로서 성공을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시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기반이 되었다. 미술관을 찾는 방문객은 연간 20만 명에 달하는데, 이는 시에서 처음 예측했던 인원의 4배에 달한다. 미술관 개관과 함께 진행된 도시 인프라 정비, 그리고 다양한 특별전시를 통한 재방문 유도는 지역민과 외부 관광객의 호응과 미술관의 성공을 불러왔다.

라 삐신 미술관에서 사람들은 미술품만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미술관의 장소성을 체험하고, 미술관에서 전시하는 섬유 샘플 및 복식관련 자료들을 감상하며 과거의 유산을 다시금 향유한다. 또한 미술관은 경제적 곤란을 겪는 이들을 고용하여 지역 고용창출에 이바지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입장 및 다양한 시민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적 복지와 교육의 기능 또한 수행하고 있다. 미술관이 수행하는 다양한 기능은 루베 시민들의 사회적 통합을 증진시키고, 루베 시에 예술의 도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였다. 새로운 정체성의 성장은 2011년 프랑스 정부가 루베 시에 ‘예술과 역사의 도시’라는 공식명칭을 부여하는 것으로 다시금 확인되었다.<sup>51)</sup>

군산, 목포와 루베가 근대의 유산을 다시 활용하여 도시를 재생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새로이 확립한 사례라면, 지역 주민들이 국민국가가 규정한 정체성과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하고 이를 위해 연대한 사례로 라인 강 유역을 들 수 있다. 라인 강은 오랜 시간동안 경계로 기능하였지만 동시에 유럽을 이어주는 통합과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특히 20세기 들어서 부각된 환경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라인 강 유역의 지역 주민들은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어 연대하는 공간으로서의 라인 강을 만들었다.

49) 류지석, 2013, 「지역 문화정책과 로컬 정체성 : 루베의 라 삐신 미술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코기토』 73, 403쪽.

50) 류지석, 2013, 앞의 글, 414쪽.

51) 류지석, 2013, 앞의 글, 418쪽.

오랜 세월동안 라인 강은 프랑스와 독일의 경계 내지는 독일 서부를 거쳐 유럽 각지로 향하는 경유지로 간주되었다.<sup>52)</sup> 근대 이전에는 경계이자 경유지였던 라인 강은 그 풍광의 수려함과 유럽 정세의 안정에 힘입어 여행의 목적지가 되었다.<sup>53)</sup> 이후 증기선과 철도의 등장으로 라인 강 여행은 더욱 편리하고 쾌적해졌고, 관광 안내서가 등장하면서 사람들은 라인 강의 관광 명소를 선택하여 방문하고 둘러볼 수 있게 되었다.<sup>54)</sup> 그렇게 라인 강에 대한 대중관광의 시대가 열렸고, 관광 과정에서 지식인들은 라인 강을 유럽 통합의 강으로 규정하며 문화공동체로서의 유럽을 상상하였다.<sup>55)</sup>

이후 20세기에 들어서자, 유럽 내부의 긴장이 고조되며 라인 유역은 경계로, 갈등의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1차대전 이후 라인 지역에서는 분리주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났고, 독일인들은 이에 대응하여 라인 강이 독일의 영역임을 확고히 하고자 하였다.<sup>56)</sup> 이러한 갈등은 2차세계대전으로 극에 달했고, 전쟁이 끝난 뒤에도 라인 강 유역의 주민들은 근대 국민국가적 정체성을 명확히 선택할 것을 강요받았다.<sup>57)</sup>

이러한 갈등과 분리를 극복하고 연대와 통합의 정체성이 새로이 창조된 것은 라인 강 인근의 환경 문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대응 과정에서 비롯하였다.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인간에 의해 개발되던 라인 강 유역은 1920년대부터 이미 다수의 공장이 들어서며 환경 오염이 심각해 졌다. 환경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국가를 넘어선 유럽 단위의 움직임을 전개하는 것은 라인 지역에서 초국가적, 통합적 정체성을 다시금 창조하는 계기가 되었다.<sup>58)</sup> 지역 주민들과 유럽 각지의 시민들에 의해 라인 지역에 대한 환경운동이 이루어졌고, 라인 지역은 특정한 국민국가의 소유가 아닌, 유럽 전체가 관심을 기울이고 보존해야 할 지역이자 유럽 통합의 공간으로 다시금 거론되었다.<sup>59)</sup> 환경운동을 계기로 라인 강은 유럽 통합의 공간으로, 하나의 유럽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다.<sup>60)</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정체성의 창조는 다양한 원인에 근거하여, 다양한 요

52) 고유경, 2013, 「유럽 기억의 장소'로서의 라인 강 - 19세기 라인 여행의 대중화를 통한 유럽 의식의 형성」, 『역사학보』 218, 484쪽.

53) 고유경, 2013, 앞의 글, 485쪽.

54) 고유경, 2013, 앞의 글, 486~488쪽.

55) 고유경, 2013, 앞의 글, 496~498쪽.

56) 고유경, 2015, 「유럽 기억의 장소'로서의 라인 강(2) - 20세기 후반 상부 라인 지역 환경운동을 통한 유럽 정체성의 발전」, 『독일연구』 29, 89~91쪽.

57) 고유경, 2015, 앞의 글, 95쪽.

58) 고유경, 2015, 앞의 글, 101쪽.

59) 고유경, 2015, 앞의 글, 102~105쪽.

60) 고유경, 2015, 앞의 글, 109쪽.



소를 활용하여 이루어진다. 독일 쾰른 시와 일본 오키나와 현은 근대 국민국가에 편입된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적 상징에 근거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만들어 내고, 이를 통해 독자적인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군산, 목포와 프랑스 루베는 변화된 경제구조로 인한 도시의 쇠락을 타개하기 위해 근대적 산업문화유산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을 시도, 문화 도시의 정체성을 창조하였다. 라인 강 유역에서는 국민국가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국적을 초월한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들 사이에서 국경을 초월한 연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선 유럽 통합적 공간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어 나갔다.

### 3. 지역 정체성 연구의 적용 및 효용

#### 3.1. 지역 정체성의 효용과 한계

지역 정체성은 주민들이 지역에 갖는 이미지를 확고히 하고, 이를 내면화 하는 기능을 갖는다. 명확한 지역 정체성이 존재한다면 주민들은 지역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이를 기반으로 삼아 지역과 관련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확고한 지역 정체성에 기반하여 주민들은 스스로 살아가는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지역의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또 명확한 지역정체성에 근거한 지역주민들의 활동은 지역에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가요오기도 한다.

하지만 동시에, 명확한 지역 정체성은 지역 이미지의 고착화라는 한계를 갖는다. 이는 외부에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 확대, 재생산 되는 모습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지역이 스스로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정체성을 드러내는 특정한 요소를 선택하며 지역이 가진 다양한 특성을 은폐하고 획일적인 이미지를 제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 정체성은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때로는 국가나 관에서 의도적으로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이에 맞추어 지역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정체성을 만들어 나가는 경우도 존재한다. 한 번 형성된 정체성의 지위 또한 유동적이어서, 새로이 형성된 지역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에 근거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사례도 존재하나, 반대로 지역의 정체성에 반발하거나 대안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경우까지도 존재한다.

명확한 지역 정체성의 존재는 지역과 주민들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에 근거하여 거주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갖는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안으로는 지역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유지하며 지역을 위한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밖으로는 확고한 의식을 가지고 다른 지역과 상호작용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지역 정체성은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지역 내의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 근거하여 형성된다.<sup>61)</sup> 주민들은 지역 정체성에 근거하여 지역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며, 지역에 대한 자신들의 이미지에 근거하여 지역과 상호작용을 수행한다. 지역에 대한 애착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고, 주민들은 긍정적인 이미지에 근거하여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수행하며, 이는 다시 지역의 이미지 향상에 영향을 준다. 다만 지역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더라도 주민들과 지역의 관계에 따라 지역을 보는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에 대해 정서적인 유대감을 중시하는 이들은 지역에 대해 친근한 이미지를 갖는 경우가 많은 데 비해, 지역 사회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중시하는 이들은 지역을 미래지향적이고 역동적인 주체로 간주하는 비율이 높았다.<sup>62)</sup>

지역 정체성은 지역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정치참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지역의 정체성은 역사, 문화적 배경과 정치, 경제적 입장에 근거하여 지역이 현실과 상호작용 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며, 지역 주민들의 정치 인식 및 대응에 영향을 준다.<sup>63)</sup> 지역에 대해 애착과 관심이 강한 시민일수록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참여를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대상이 되는 지역이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닿아있을수록 강해진다.<sup>64)</sup> 다시 말하여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함양이 주민들의 지역 사회활동 및 정치활동 참여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sup>65)</sup>

또한 지역의 역사, 문화유산을 기반으로 한 정체성 형성은 지역 주민들의 소속감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 간의 소통과 연대를 강화한다. 지역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주민들은 지역에 대해 흥미와 애착을 가지게 되며, 체험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다른 주민들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된다.<sup>66)</sup> 그리고 이와 같은 공감 및 연대는

61) 이영원, 2014, 「지역 정체성이 지역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4-2, 298쪽.

62) 이영원, 2014, 위의 글, 312쪽.

63) 이재현, 2019, 「지역정체성과 지역사회활동이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NGO연구』 14-3, 87~88쪽.

64) 이재현, 2019, 앞의 글, 96~98쪽.

65) 이재현, 2019, 앞의 글, 99쪽.

66) 임지혜, 2022, 「지역 공동체 기반 문화유산 활용의 교육적 의미」, 『교육문화연구』 28-5, 96쪽.

문화유산의 의미 탐구에 기반한 자기 성찰, 그리고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진다.<sup>67)</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정체성은 주민들의 지역 소속감 및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형성과 애착 향유로 이어진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에 기반하여 주민들은 지역 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고 갈등을 해소한다.

지역 정체성에 기반한 공동체의 결속을 보여주는 사례로는 경상북도 칠곡군 영오리의 사례가 존재한다.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해 마을의 인구가 줄어들고 기존의 전통과 관습이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영오리 주민들은 마을의 존속과 공동체의 유지를 모색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수단으로 지역에서 350년 이상 존속하던 천왕제 의례에 주목하여, 마을의 신앙 의례인 천왕제를 축제화 하였다.<sup>68)</sup> 그 결과 영오리 주민들은 천왕제 축제를 기반으로 하여 마을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 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화하였다.<sup>69)</sup> 이후 천왕제는 마을 주민들의 소속감과 자부심, 그리고 공동체의식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하였다.<sup>70)</sup>

이러한 지역 정체성의 활용은 물질적, 경제적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경제적 효과는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강북 지역의 지역정체성과 도시재생사업의 관계를 들 수 있다. 강북 지역은 수유동에 국립4·19민주묘지가 조성된 이래로 4·19의 기억을 거듭하여 환기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4·19혁명의 주요 사건들은 강북 지역이 아닌 당시의 서울 도심부를 중심으로 일어났지만, 수유에 기념 시설이 형성되면서 이 지역에서 4·19를 추모하는 행사를 정기적으로 치르고, 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4·19를 연관시키게 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지역 정체성의 형성은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정체성을 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규모의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4월 22일 ‘강북구 4·19사거리 및 우이동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이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 사업은 200억 원 규모의 마중물사업 및 374억 원 규모의 협력사업으로 구성되며, 사업을 통해 도로개선 및 문화예술 경관의 창출, 그리고 지역 주민활동 공간의 조성

67) 임지혜, 2022, 앞의 글, 97~99쪽.

68) 이재민, 2020,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본 지역문화콘텐츠의 창출 과정과 의미 : 칠곡군 영오리 사례」, 『지역과문화』 7-1, 14쪽.

69) 이재민, 2020, 앞의 글, 16쪽.

70) 이재민, 2020, 앞의 글, 20~21쪽.

이 이루어진다.<sup>71)</sup> 이러한 사례를 통해, 지역 정체성이 도시의 구조 재편 방향에도 영향을 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정체성은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가지고,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이 된다. 하지만 동시에 지역정체성에 관련하여 지역에 대한 부정적 정체성의 형성 및 재생산,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정 요소의 강조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매체를 통해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전파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낙인찍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특정한 소재를 내세우는 과정에서 지역의 다양한 성격 중 단일한 요소만이 강조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형성되어 매체를 통해 확대되고 재생산된다. 특정한 부정적인 사건의 발생 및 수습 과정에서 지역이 강조되면, 이후 해당 사건이 지역의 정체성으로 간주되며 다른 사건들이 발생할 시 거듭해서 환기되며, 지역 주민들 및 외부인들은 부정적인 지역정체성을 내면화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대중매체에 의한 화성 지역의 부정적 정체성 형성 및 그 재생산을 들 수 있다.

화성 지역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창작물은 이후 화성 지역에서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할 때 마다 거론되며 화성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고착시킨다.<sup>72)</sup> 이러한 부정적 지역정체성은 외부인들에게는 해당 지역을 기피하게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도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면화 하게 한다. 이는 곧 지역 주민들이 행정구역 통합 및 지역명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서라도 이미 형성된 부정적 지역정체성을 혁신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sup>73)</sup>

매체를 통해 부정적인 지역정체성이 형성되고 전파되는 데에는 지역에 대한 외부의 인식, 그리고 매체를 통해 그러한 고정관념을 재생산하는 자들의 심상 속 위계의식이 반영된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부산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을 거론할 수 있다. 부산을 배경으로, 부산 사람들을 주요 등장인물로 다루는 영화들에서 부산 사람들은

71) 이미연,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통과」, 매일경제, 2019년 4월 22일 수정, 2023년 11월 20일 접속, <https://www.mk.co.kr/news/realstate/8785041>

72) 조일환, 2013, 「지역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혼란 - 화성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4, 703~704쪽.

73) 조일환, 2013, 앞의 글, 707쪽.

거칠고 무뚝뚝하며 직설적인 인물로 그려진다.<sup>74)</sup> 이는 같은 영화들에서 등장하는 서울 사람들이 세련되고 전문성을 갖춘 인물로 묘사되는 것과 상반된다.<sup>75)</sup>

이러한 현상은 영화를 제작하고 소비하는 주체들이 부산을 바라보는 시선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서울로 대표되는 중심부의 시선은 부산을 비롯한 변경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생각하고 규정하는 특성을 투영하며, 이 특성이 내포된 매체가 대중들에게 소비되며 대중들이 바라보는 해당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한다.<sup>76)</sup> 그리고 이런 지역정체성은 확산되어 지역 주민들의 자기인식에 영향을 주고, 지역 정체성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진다.<sup>77)</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정체성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하는 과정에서 외부 시선에 의해 부정적인 정체성이 형성되고, 지역 주민들이 다시 이러한 정체성을 내면화하며 지역정체성이 재생산되는 부(富)의 순환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성격이 억압되고 정체성 형성 주체들의 의도에 부합하는 특정한 속성만 강조되는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인 지역정체성의 형성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이를 보여주는 사례로 부산의 두 랜드마크, 영도대교와 롯데타운에 대한 의미 부여를 둘러싼 논란을 살펴볼 수 있다.

영도대교는 영도와 부산시를 연결하는 연륙교로, 1932년 착공하여 1934년 개통한 도개교이다.<sup>78)</sup> 개통 직후의 영도대교는 부산대교라고 불리며 부산시와 영도를 이어주는 기능을 수행하였다. 영도대교가 사람들의 기억에 각인된 것은 한국전쟁 시기의 일이었다. 전쟁을 피해 부산으로 유입된 피난민들은 영도대교에 깊은 인상을 받았으며, 이후 실랑민과 피난민의 정서를 담아낸 노래 ‘굳세어라 금순아’로 유명세를 얻어 부산의 랜드마크가 되었다.<sup>79)</sup>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영도대교의 효용에 대해 논란이 제기되었다. 영도와 부산을 오가는 교통량이 증대하며 도개로 인한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었고, 70년대부터 영도대교의 노후화가 문제가 되어 1980년 1월에는 새로운 부산대교가 건설되었다.<sup>80)</sup> 이후 철거논의

74) 차윤정, 2012, 「영화 속의 지역어 사용과 지역 정체성 만들기 - 부산 배경 영화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0, 219~230쪽.

75) 차윤정, 2012, 앞의 글, 222쪽.

76) 차윤정, 2012, 앞의 글, 234~235쪽.

77) 차윤정, 2012, 앞의 글, 235쪽.

78) 「부산광역시 기념물 영도대교」, 국가문화유산포털, 2023년 11월 17일 접속,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332100560000>

79) 조정민·양홍숙, 2012, 「복원과 개발로 만들어지는 부산의 문화지형 - 영도대교와 롯데타운을 중심으로」, 『코기토』 72, 378~380쪽.

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영도대교의 의의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철거 반대를 주장하는 측은 영도대교가 가진 복합적인 성격 중에서 한국전쟁의 기억을 강조하였다. 이는 영도대교가 가지고 있는 식민지 시기의 흔적이라는 성격을 은폐하고 한국전쟁이라는 특정한 역사적 표상만을 내세우는 모습이였다.<sup>81)</sup> 현대의 영도대교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한국전쟁 속 부산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면서도 도개를 거듭 재현하며 식민지 시대의 근대적 도개도진교라는 표상을 재생산하고 있다.<sup>82)</sup>

이러한 기억과 표상의 모습은 롯데타운에서 다시 한 번 재현된다. 조선시대 왜관이 있던 용미산이 1932년 착평되고 그 자리에 부산부청이 들어섰다. 이후 부청 주변에는 미나카이 백화점이 들어서며 옛 용미산 일대는 부산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가 되었다. 1998년 부산시청이 이전하면서 시청 부지는 롯데그룹의 소유가 되었고, 이후 롯데타운이 건설되면서 지역의 관광객 유치 및 상권 부활에 대한 기대를 받았다.<sup>83)</sup> 롯데타운 부지가 가지고 있던 식민지 시대의 행정, 경제의 중심지라는 성격은 현재의 경제적 번영에 은폐되었고, 무장소성, 몰역사성이 전제된 위에서 부산의 원도심 공간은 다시 한 번 식민지 시기의 장소성을 재현하였다.<sup>84)</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정체성은 다양한 성격을 지닌다. 한 편으로는 주민들이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정치, 사회적 참여부터 지역문화유산의 보존과 지역 공동체 내부의 연대 등의 긍정적인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한다. 동시에 다른 한 편으로는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재생산하거나,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성격을 은폐하고 획일화된 정체성만을 드러내도록 강요하는 한계를 갖기도 한다.

### 3.2. 정체성의 창조와 지역 공동체

지금까지 지역 정체성이 긍정적인, 혹은 부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되는 방식을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지역 정체성을 새로이 창조해 나가는 과정과, 그렇게 창조된 정체성이 지역 주민에게 주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 정체성은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창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역을 규정하고자 하는 외부, 특히 중앙 정부의 의지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한 번 창조된 지역 정체성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은 상황에

80) 조정민·양홍숙, 2012, 앞의 글, 376쪽.

81) 조정민·양홍숙, 2012, 앞의 글, 385~386쪽.

82) 조정민·양홍숙, 2012, 앞의 글, 383쪽.

83) 조정민·양홍숙, 2012, 앞의 글, 394쪽.

84) 조정민·양홍숙, 2012, 앞의 글, 399쪽.

따라 다양하며, 주민들의 반응에 따라 정체성은 유동적으로 변화한다. 주민들은 창조된 정체성을 수용하며 지역에 대한 애착의 기반으로 삼기도 한다. 반대로, 주민들이 정체성에 대해 반발하고, 더 나아가서는 창조된 정체성에 대항하여 자신들이 생각하는 새로운 지역정체성의 창조를 시도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지역 주민들의 정체성 창조는 남원시 덕과면 주민들의 3·1운동 기념탑 건립 과정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기념탑의 건립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은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적 사건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창조하였다. 이후 해마다 3·1운동을 기념·재현하며 지역 주민들은 남원시 독립운동의 중심지라는 지역의 정체성을 계속 재생산해 나갔다.<sup>85)</sup>

남원시 덕과면 주민들의 3·1운동 기념탑 설치는 1996년 말에 처음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듬해 1월, 덕과면 내 주요 인사들이 모여 기념탑 건립 추진발기인 모임을 조직했고, 이후 25일에 추진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sup>86)</sup> 덕과면은 남원시 최북단에 위치해 있고, 접경지라는 특성상 같은 면민들이라도 다른 통학구에 소재한 학교 출신이어서 면내의 지연 및 학연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통합적 정체성을 형성하고, 면내의 폭넓은 지지를 얻기 위해 추진위원회는 면내의 여러 지역 출신 인물들을 체계적으로 안배하여 지역 내의 추진역량을 극대화하였다.<sup>87)</sup>

이후 남원시가 개입하면서 기념사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의의가 심화되었다. 덕과 지역은 남원시 최초의 3·1운동 발상지라는 정체성을 형성하였고, 남원시는 덕과면 기념탑에서 3·1절 기념식을 치르며 해당 공간을 남원시 전체의 3·1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으로 조성하였다.<sup>88)</sup> 1991년 3월 1일에 기념탑 제막식이 행해진 이후 덕과면은 남원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상징하는 공간이 되었고, 해마다 3·1운동 재현행사를 치르며 지역의 정체성을 재생산하고 있다.<sup>89)</sup>

이러한 덕과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필요와 사회적, 역사적 조건에 따라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

85) 황의동, 2018, 「기념물의 상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 - 황주성의 일기에 나타난 만세운동기념탑 건립 추진 활동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86) 황의동, 2018, 앞의 글, 133쪽.

87) 황의동, 2018, 앞의 글, 135쪽.

88) 황의동, 2018, 앞의 글, 143쪽.

89) 황의동, 2018, 앞의 글, 158쪽.

니어서, 필요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거나 대체되기도 한다.

이들 사례와 유사하게,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모색하고 이를 가꾸어 나가는 양상은 성북구 종암동에서도 나타난다. 종암동은 2012년부터 종암동 북바위축제를 치러 왔다.<sup>90)</sup> 해당 축제는 유희적 기능에 더하여 지역명의 연원이 된 북바위에 제사를 지내는 제례적 성격의 축제였다.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이육사가 종암동에 거주하면서 「청포도」를 비롯한 대표작들을 남겼다는 것이 알려진 뒤에는 이육사와 그의 작품들을 널리 알리는 문화제의 성격도 갖게 되었다.<sup>91)</sup> 축제를 통해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착과 소속감을 강화하고, 이육사라는 인물과 지역의 관계가 밝혀지자 이를 축제에 반영하며 지역 정체성을 새로이 만들었다.

남원과 성북구 종암동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 정체성의 창조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 능동적으로 이루어지며, 그렇게 창조된 정체성은 역사적, 사회적 조건에 따라 변화하며 지역에 대해, 지역의 역사에 대해 다른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체성의 창조 작업은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밖의 외부 집단에 의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대표하는 사례로 광주와 안동의 지역정체성 형성과정을 거론할 수 있다.

광주 지역은 오늘날 ‘예향(藝鄕)’이라 일컬어지는 경우가 잦다. 그런데 이러한 지역 정체성은 예로부터 고유하고 확고한 지역의 정체성으로 존재하였던 것이 아니라, 지역이 가지고 있던 수많은 정체성 중 하나였다. 이러한 예향 정체성은 1980년대, 중앙 정부와 지역 내의 여러 집단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전면에 대두하였다.

우선 당시의 중앙 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와 서울 편중의 해소를 요구하던 사회분위기 속에서 지방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문화시설의 확충과 문화 콘텐츠의 개발을 추구하였다.<sup>92)</sup> 지역의 주체들이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호응하며 지역문화 육성에 동참하였고, 이러한 흐름 속에서 예향 관념이 형성되었다.<sup>93)</sup>

이후 광주 및 전남 지역에서는 광주일보의 월간지 『예향(藝鄕)』을 통해 지역 정체성으로 예향을 내세우며 이를 통해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전남 지역의 소외를 마무리 짓고 지역을

90) 「제1회 종암동 북바위축제(1)」, 성북마을아카이브, 2023년 11월 20일 접속, <https://archive.sb.go.kr/isbcc/home/u/item/view/6199.do>.

91) 「북바위청포도문화제」, 성북마을아카이브, 2023년 11월 20일 접속, <https://archive.sb.go.kr/isbcc/home/u/story/view/1596.do>.

92) 김봉국, 2019, 「『예향(藝鄕)』 광주의 탄생 - 전두환 정부의 ‘새문화정책’과 ‘지역정체성」, 『역사연구』 37, 646~648쪽.

93) 김봉국, 2019, 앞의 글, 652쪽.



새로이 개발하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sup>94)</sup> 이후 지역 주민과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은 예향론을 거듭하여 향유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예향론을 제시하며 지역의 정체성을 새로이 규정하려 하였다.

이러한 광주의 지역 정체성 형성,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지역 내 주체들의 대응은 일정한 지역의 정체성을 지역 밖에서 형성하고자 하는 흐름과, 그렇게 형성된 정체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반응을 보여준다. 광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 주민들은 외부에서 형성한 정체성을 항상 일방적으로 수용하지만은 않으며, 오히려 자신들의 방식으로 같은 정체성에 대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며 정체성을 전유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정체성의 전유를 넘어 대안적 정체성을 모색하고 창조하는 사례 또한 존재한다.

지역 주민들이 정체성에 대해 반발하고 대안적 정체성을 모색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안동 지역을 들 수 있다. 안동 지역은 후삼국시대에 지역 호족들이 왕건을 도운 이후로 경북의 대읍으로 거듭났다.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16세기부터 성리학이 융성하였으며, 퇴계 이황, 서애 류성룡, 학봉 김성일 등의 인물을 배출해 냈다. 지역의 고유한 민속문화로 하회탈이나 차전놀이 등이 융성하기도 하였으며, 20세기에 들어서는 지역 유림 다수가 고향을 떠나 만주로 이주,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한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보유한 안동의 정체성을 20세기에 규정하던 과정에서, 중앙 정부의 의지에 따라 만들어진 민속 중심의 정체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유학이 부각되었다.

안동 지역의 민속에 대한 조사는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되었으나, 민속이 본격적으로 안동 지역 정체성의 중심을 차지한 것은 해방 이후의 일이었다. 하회탈춤, 차전놀이, 뚝다리 밟기 등의 지역 전통 민속놀이들은 전국민속경연대회 출연 및 민속 보존회 활동을 통해 전국에 알려졌고, 차전놀이의 경우 국가가 지향하는 의식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국가의 지원을 받기도 하였다.<sup>95)</sup> 이후 안동의 민속놀이들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면서 표준화되었고, 이 과정에서 무형문화재의 표준적인 형태는 국가에 의해 그 권위를 인정받은 민속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sup>96)</sup> 이후 하회탈로 대표되는 안동의 민속문화재들은 오늘날

94) 김봉국, 2019, 앞의 글. 659쪽.

95) 이상현, 2004, 「안동 문화의 변화와 민속의 재창조」, 『비교민속학』 26, 12쪽.

96) 이상현, 2009, 「지역 만들기와 무형문화재의 정치학」, 『실천민속학연구』 13, 273쪽.

에도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안동 국제 탈춤 페스티벌과 같은 새로운 방식을 통해 지금도 계속하여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다.<sup>97)</sup>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탈춤과 민속놀이가 안동의 지역 정체성으로 수용되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를 순응하지만은 않았다. 민속 중심의 정체성에 대해 반발한 주민들은 안동 지역의 정체성으로 유학을 내세우며 새로운 정체성을 창조하려 하였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지역의 여러 가문 사람들이 안동시에서 교류하며 자신들의 문종을 복구해 나갔고, 안동댐 건설로 이동하게 된 사람들이 안동시로 모여 문중집단의 규모는 더욱 커졌다.<sup>98)</sup>

개별 문중들이 연대하여 지역의 유학적 정체성을 강조한 것은 1980년대의 일이었다. 임하댐 건설로 또 다시 안동시에 인구가 유입되면서, 각 가문의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역 토착세력 전체의 연대가 이루어졌다. 이들은 각종 유교 단체 조직,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안동 지역의 유교적 정체성을 홍보하였고, 민속문화 중심의 지역 정체성 설정을 비판하며 사대부 문화를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로 내세우려 하였다.<sup>99)</sup> 이러한 움직임은 21세기에 들어 안동시 차원에서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슬로건을 앞세워 각종 유학적 전통을 다시금 강조하는 사업으로 나타났다.<sup>100)</sup> 지금도 안동 지역에는 민속 중심의 정체성이 유학적 정체성과 공존하고 있으나, 두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따라 더욱 조망받는 정체성이 달라지고,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응 또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지역 정체성은 기존에 존재했지만, 주목받지 못한 요소들 - 남원의 3·1운동, 종암동의 이육사, 광주의 예향, 안동의 민속 - 을 통해, 내외적인 의지에 의해 새롭게 창조되기도 한다. 이러한 창조의 사례는 정체성의 ‘발명’이라는 측면에서 군산과 목포 그리고 루베와 라인벨트와의 사례와 유사하다. 하지만 그동안 지역에서 전해 주목되지 않았던 특성(요소)들을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이들 사례와 차별성을 가지며, 지역 정체성 수립의 방향에 일정한 시사를 준다.

#### 4. 의정부 지역 정체성 수립의 방향 : 화해와 소통의 허브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통해 살펴볼 수 있듯이, 지역정체성은 전통적인 요소들을 통해 형성되기도 하지만, 특정한 주체의 의도 및 목적에 의해 창조되고 변화되기도 한다. 지역정

97) 유흥동, 2020,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지역정체성 획득 과정과 콘텐츠로서의 가치」, 『배달말』 67, 132쪽.

98) 이상현, 2004, 앞의 글, 9~10쪽.

99) 이상현, 2004, 앞의 글, 14쪽.

100) 조관연, 2011, 「문화콘텐츠 사업의 전략적 수용과 안동 문화정체성의 재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5, 575~576쪽.

체성은 개별 지역이 보유한 자연적인 요소에 따라 스스로를 타자와 구분 짓는 방식으로 형성되거나, 과거에 형성되었던 정체성이 필요성에 따라 재확인되고 다시 활용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과정에서, 과거에는 존재하되 정체성의 핵심이라 여겨지지 않았던 요소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소재로 재부상하기도 한다. 또한, 새롭게 형성된 집단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공동체의 정체성을 창조하는 사례나, 외부의 영향으로 집단이 정체성을 상실하고 해체될 위기에 대응하여 스스로의 정체성을 창조해 내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렇게 형성된 지역정체성은 한 편으로는 지역 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애착을 갖고 결집하게 하며, 정체성에 기반하여 다른 지역공동체와 소통하게 되는 의의를 갖고 있다. 동시에, 지역에 대한 부정적인 정체성이 한 번 형성되면 이것이 계속 재생산되며 지역 및 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지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정체성 형성 과정에서도 지역이 가진 여러 가지 속성 중 하나만이 강조되며 다른 맥락은 은폐되거나, 혹은 지역 정체성의 형성을 위해 이미 인지도가 높은 소재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정체성을 소재에 맞추어 변질시키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의정부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그 긍정적인 의미를 제시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이다. 특히 기존에 의정부시에 존재했지만, 주목받지 못한 역사·문화적 특성(요소)을 활용하는 방안에 주목하고자 한다.

의정부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미지로는 한국전쟁과 부대찌개, 미군부대나 306보충대 등이 존재한다. 이에 기초하여 사람들은 의정부를 분단과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군사도시로 생각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부대찌개의 탄생지, 미군 부대와 주민들의 마찰이 존재하는 도시, 혹은 훈련소와 군부대로 대표되는 긴장과 갈등이 서려 있는 도시 정도가 의정부의 지역 정체성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뒤의 연구성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정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및 현대 의정부시의 모습에서 찾을 수 있는 의정부시의 정체성은 ‘중심지’ 내지는 ‘허브(hub)’<sup>101)</sup>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대립하던 주체들의 갈등이 해소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화해의 허브이자, 물질적, 비물질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인 소통의 허브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

101) 허브는 캠브리지 사전에 의하면 ‘the central or main part of something where there is most activity(무언가의 중심부 내지 핵심부로 가장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미이다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hub>, Accessed November 20, 2023.). 표준국어대사전을 인용한 네이버 국어사전에 의하면 허브는 ‘자전거 바퀴의 살이 모여 있는 중심축’라는 의미와, 여기서 파생한 ‘신호를 여러개의 다른 선으로 분산시켜 내보낼 수 있는 장치’ 및 ‘중심이 되는 곳’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7e2e234bb644c6e8c2f457dc35a6d66>, 2023년 11월 20일 접속).

의정부 지역은 화해의 허브이다. 조선시대에는 대립하던 태조, 태종 부자의 화해가 이루어지던 곳이었고, 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무너진 도시를 미군과 주민들이 힘을 합쳐 재건하던 곳이며, 미래에는 남북통일로 화해와 평화가 찾아오기를 꿈꾸는 도시이다.

의정부 지역은 한국전쟁기에는 상당한 격전지였으며, 이후에도 다수의 미군부대 주둔 및 국군 훈련소의 존재로 인해 전쟁과 긴장의 이미지가 강하며, 지역의 정체성도 이러한 의정부 상을 전제로 성립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의정부는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를 이루어주던 역사의 장이자, 앞으로 화해와 소통이 이루어질 미래를 안고 있는 공간이다.

이러한 ‘화해의 허브’로서의 의정부 지역의 성격은 이미 조선 개국 전후,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부자의 화해로부터 드러난다. 태종 즉위 이후 태조는 양주 일대에 자주 행행하였고, 태종도 이를 따라가며 부자간의 화해를 시도하였다. 특히 조사의의 난이 진압된 이후 조선 왕실은 개성에서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이때 태조가 개성에서 출발하자 태종은 옛 견주땅, 곧 지금의 의정부에서 태조를 맞이하였음이 『태종실록』의 다음 기사에서 확인된다.

임금이 태상왕을 옛 견주(見州)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숙소에 나아가 태상왕의 장수를 축원하는 잔을 올리니, 태상왕이 조용히 이르기를,

“두 도읍에 오가느라 백성들이 생업을 편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수도를 한 곳으로) 정하여 살 수 있겠는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이내 모시고 잤다.<sup>102)</sup>

이러한 모습에서 의정부는 서울과 개성을 이어주는 중요한 교통로이자, 부자지간에 화해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알 수 있다. 태조와 태종이 보여준 화해와 소통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지역주민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의정부 지역은 한국전쟁기에는 여러 차례 격전에 휘말렸기에 전후에도 다양한 방면에서 복구작업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와중에 의정부 지역에 주둔한 미군 부대들은 지역의 복구사업에 큰 힘을 보태주었다. 의정부 주둔 미군부대들은 정전 직후부터 학교, 병원 등의 시설 재건을 위해 여러 차례

102) 『太宗實錄』卷10, 太宗5年 11月 6日, “上迎太上王于古見州. 上詣宿所獻壽 太上王從容謂曰 ‘兩都來往 民不安業. 自今其能定居乎?’ 上曰 ‘謹奉教.’ 仍陪宿.”

자금과 물자를 기부하였고, 이들의 지원에 힘입어 의정부는 빠르게 재건될 수 있었다.

#### 의정부 중·고등학교 30일 교사 기공식(의정부)

의정부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전란으로 파괴된 동교 교사를 재건, 복구하기에 많은 노력을 해 왔었는데, 이번에 동교 근방에 있는 미 231수송대대장 찰튼 중령이하 전 장병의 호의로 10교실분의 자재를 얻게 되어 30일 오후 2시에 신축대지에서 관계자 다수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공식을 거행하였다. 한편 이날 식이 끝난 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사크라멘토 고등학교에서 기증해온 서적 1천파운드도 전달되었다.<sup>103)</sup>

#### 미군이 건립한 병원 15일 정식 인도

미 제 1군단에서 건립한 의정부병원이 15일 낙성됨과 동시에 한국에 인도되어 민간에 개방되었다 한다. 그런데 동 병원은 작년 휴전 직후부터 진행되고 있는 미 제 1군단의 150만 달러의 대한부흥원조계획에 의한 것이며, 동 군단은 이 밖에도 350개의 학교, 병원, 교회, 고아원 등을 건축하였으며 6월부터는 새로운 원조계획에 의하여 대한부흥원조가 계속될 것이라고 한다.<sup>104)</sup>

#### 의정부 천주교회 성모상 제막식(의정부)

오는 8월 3일 오후 2시부터 의정부 천주교회(주임 이계광 신부)에서는 노 주교 집전으로 성당 사무실 낙성 및 성모동고상 제막식을 거행기로 되었다. 특히 금번 성당 앞 마당에 건립된 6척의 성모상은 그간 여러차에 걸쳐 성당(석조 70평), 유치원(석조 50평), 사무실(석조 40평)등의 건축을 전담한(총건축비 약 2만불) 미 제1군단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건립, 제막되는 것이며, 동 식전에는 미 제1군단장 및 내외 귀빈도 다수 참석하리라 한다.<sup>105)</sup>

이러한 신문 기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의정부에 배치된 미군들은 지역의 재건을 돕고 주민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현대 의정부시 역사의 한 장을 써내려 갔다. 의정부 하면 떠오르던 이미지는 지역에 주둔하던 미군부대, 그리고 306보충대의 이미지로 대표되는 긴장과 갈등의 도시지만, 의정부는 항상 그러한 갈등을 넘어 같은 공간 안에 사는 미군과 주민들의 화해와 공존, 그리고 미래에 언젠가 찾아올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도시이다.

의정부는 소통의 허브 도시이기도 하다. 한때는 서울과 북쪽을 이어주는 연결점이었으며, 지금도 경기 북부의 동과 서를 이어주는 ‘소통의 허브’라 할 수 있다. 경기도청 북부

103) 「의정부 중·고등학교 30일 교사 기공식」, 『조선일보』, 1954년 5월 2일 2면.

104) 「미군이 건립한 병원 15일 정식 인도」, 『동아일보』, 1954년 5월 17일 2면.

105) 「의정부 천주교회 성모상 제막식」, 『경향신문』, 1955년 8월 2일 3면.

지청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 교육, 보훈 등의 시설로 경기 북부의 행정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서울과 경기북부, 더 나아가서는 그 너머까지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이다.

경기도청이 수원으로 이전하면서 의정부에는 1967년에 경기도청 북부출장소가 설치되어 한강 이북의 행정을 담당하였고, 32년 뒤에는 북부지청으로 승격하였다.<sup>106)</sup> 또한 의정부에 소재한 지방법원 및 검찰청, 경기북부병무지청, 세관, 상공회의소 등은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경기 북부지역 전체의 사법, 병역, 경제 부문을 담당하고 있다.<sup>107)</sup> 이러한 모습은 의정부시가 경기북부 행정의 중심지임을 확실히 보여준다.

행정뿐만 아니라 보훈, 의료 등의 분야에서도 의정부는 경기 북부의 중심지 역할을 도맡아 하고 있다. 의정부에는 1975년에 의정부보훈지청이 설치되어 경기도 북부 지역의 보훈 관련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였으며 2016년 이래로는 경기북부보훈지청으로 이름을 바꾸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sup>108)</sup> 의료 분야에서는 2011년 기준으로 463개 병원, 4,961개 병상을 보유하고 3,742명의 의료계 종사자가 의정부에서 근무하고 있다.<sup>109)</sup> 또한 1954년 미1군단 민사처 구호병원에서 시작한 경기도의료원이 1975년부터 오늘날까지도 경기도 소속으로 운용되며 경기북부 공공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110)</sup> 이러한 모습에서 의정부가 경기 북부 행정의 핵심이자, 경기도 북부의 연결과 소통을 수행하는 행정의 허브임을 볼 수 있다.

또한 의정부는 서울과 북쪽을 이어주는 교통의 허브이기도 하였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누원을 거쳐 동북지방과 서울을 오가는 교통의 중심 지점이었으며, 근대에는 경원선을 통해 서울에서 강원도, 함경도를 오가는 철도망의 시작으로, 의정부역은 서울과 서울 바깥을 이어주는 철도의 시작이었다. 분단 이후에도 의정부시는 남으로는 천안까지 서로는 인천까지 이어지며, 북으로는 이제 곧 연천까지 이어질 지하철 1호선이 가로지르는 경기 북부권 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의정부는 서울 근교의 교통 중심지이자, 한국 영화 혁신의 첫 시도가 이루어진 지역이

106) 「경기도 북부출장소 의정부에 설치」, 『경향신문』, 1967년 6월 24일 7면 ; 「경기도 북부출장소 내달 지청으로 승격」, 『경향신문』, 1999년 7월 20일 21면

107)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 『의정부시사 3 : 의정부의 현대생활』, 155~173쪽.

108) 권숙희, 「의정부보훈청→경기북부보훈지청…현판 제막식 열려」, YTN, <https://www.yna.co.kr/view/AKR20160104149400060>, 2023년 11월 21일 접속

109)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 『의정부시사 7 : 자료로 살펴본 의정부』, 335~336쪽.

110)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 『의정부시사 3 : 의정부의 현대생활』, 177~178쪽.

기도 했다. 1937년에 설립된 조선영화주식회사는 의정부 용연동에 스튜디오를 갖추고, 1939년에는 현상공장, 녹음공장을 설치하여 단일한 종합스튜디오 내에서의 유성영화 제작을 시도하였다.<sup>111)</sup> 비록 조선영화스튜디오 의정부 촬영소는 당대 조선 영화시장의 한계와 일제의 통제로 인해 실패하였으나, 조선의 영화 산업계에서 새로운 사업구조를 갖추려 시도했다는 의의를 갖는다.<sup>112)</sup>

현대의 의정부는 스포츠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여러 이름 높은 스포츠 선수들이 의정부에서 태어나거나 의정부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고, 지금도 산악인 엄홍길, 스케이트 선수 제갈성렬 등 의정부 출신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은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사이클, 빙상, 유도 등의 종목에서도 의정부 출신의 여러 선수들이 국내외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으며, 다양한 국내, 국제 체육대회들이 의정부에서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이러한 의정부 스포츠의 영광은 학생체육의 꾸준한 육성, 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체육인재 양성을 위한 시의 꾸준한 기반시설 투자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sup>113)</sup>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의정부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대찌개, 미군부대, 군사도시 등의 정체성을 넘어서 화해와 소통의 허브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왕위 계승을 두고 대립하던 태조, 태종 부자가 화해를 이루고 북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던 장소이었고, 한국전쟁 이후에는 파괴된 도시를 미군과 지역주민들이 힘을 합쳐 재건하던 도시였으며, 언젠가 찾아올 평화통일을 통해 남북이 화해를 이루게 될 도시이다. 또한 의정부는 소통의 중심지이다. 분단 이전에는 서울과 동북지방을 이어주는 교통의 중심지였고, 현재에도 지하철 1호선을 비롯한 경기 북부 교통의 중심지이다. 또한 경기 북부의 행정, 보훈, 공공의료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에 기초하여 조선 영화의 혁신이 시작된 곳이자, 한국 스포츠의 중심지로 이름을 떨치고 있다.

## 5. 결론

지역정체성은 사회경제적 조건에 의해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일정한 목적을 갖고 만들어졌다. 쾰른과 오키나와의 경우는 각각 카니발과 슈리성이라는 상

111)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 『의정부시사 6 : 역사향기 깃든 의정부』, 98~99쪽.

112) 이순진, 2009, 「1930년대 영화기업의 등장과 조선의 영화 스타」, 『한국극예술연구』 30, 139~140쪽.

113)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2014, 『의정부시사 8 :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 238~250쪽.

정을 통해 외세에 대응한 본인들의 정체성을 만들어왔다. 군산과 목포의 경우는 근대의 정체성을 통해 도시를 브랜딩하며, 관광 활성화를 가져왔다. 루베 역시 마찬가지다. 남원시 덕과면, 성북구 종암동, 광주광역시와 안동시의 경우는 정통성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군산, 목포, 루베 등과 비슷하지만 그간 주목 받지 못한 도시의 특징을 부각시켜 새로운 정체성을 만든 사례로 차별성을 보여줬다. 이렇게 만들어진 정체성은 지역의 이미지를 만들어 관광 활성화 등에 도움을 주었을 뿐 아니라, 주민통합이라는 점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하지만, 자칫 한 지역의 이미지를 고착시킬 수 있으며, 만들어진 정체성(혹은 이미지)에 동의하지 못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만들기도 한다.

의정부시의 경우 한국전쟁과 부대찌개, 미군부대나 306보충대 등에 대한 이미지가 강했다. 하지만 이러한 이미지들은 모두 과거에 관한 것이고 이것만으로는 미래의 의정부의 방향성을 만들거나 관광자원화 등의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주목한 것은 그간 존재했지만 주목받지 못한 요소들의 부각이다. 지금까지 용역의 결과물들을 모아 보면 의정부는 태조와 태종의 화해, 미군과 주민과의 화해가 이루어진 화해의 공간이다. 통일시대가 다가오면 남북 화해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었다. 또한 의정부는 교통, 행정, 의료 등 경기북부의 중심도시로서 소통의 허브 역할을 한 도시이며 앞으로 해야 할 도시이기도 하다. 때문에 본고에서는 의정부 정체성을 '화해와 소통의 허브'라는 방향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뒤에 이어지는 발표들을 통해 화해와 소통의 허브로 기능하는 의정부 지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논하는 장이 열리기를 바라며 이번 발표를 마친다.



## [참고문헌]

### 사료

『太宗實錄』

『新增東國輿地勝覽』

### 단행본

베네딕트 엔더슨 지음, 서지원 옮김, 2018, 『상상된 공동체』, 도서출판 길

에릭 홉스봄 외 지음, 박지향·장문석 옮김, 2022,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성남시사편찬회, 2014, 『성남시사 6 도시개발사 - 도시박물관, 성남』.

연구모임 공간담화·도시사학회, 『서울은 기억이다』, 서해문집, 2023.

의정부시·의정부문화원, 『의정부시사 3 : 의정부의 현대생활』, 2014.

\_\_\_\_\_, 『의정부시사 6 : 역사향기 깃든 의정부』, 2014.

\_\_\_\_\_, 『의정부시사 7 : 자료로 살펴본 의정부』, 2014.

\_\_\_\_\_, 『의정부시사 8 : 사진으로 읽는 의정부』, 2014.

Audi, Robert, The Cambridge Dictionary of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Goldstein, Sam., and Naglieri, Jack A., Encyclopedia of Child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2011.

Schwartz, Seth J., Luychx, Koen., Vignoles, Vivian L., Handbook of Identity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 2011.

### 연구논문

고유경, 「‘유럽 기억의 장소’로서의 라인 강 - 19세기 라인 여행의 대중화를 통한 유럽 의식의 형성」, 『역사학보』 218, 2013.

\_\_\_\_\_, 「‘유럽 기억의 장소’로서의 라인 강(2) - 20세기 후반 상부 라인 지역 환경운동을 통한 유럽 정체성의 발전」, 『독일연구』 29, 2015.

김봉국, 「'예향(藝鄕) 광주의 탄생 - 전두환 정부의 '새문화정책'과 '지역정체성」, 『역사연구』 37, 2019.

김유신,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 지역정체성의 재생산」, 『지방사와 지방문화』17-2, 2014.

김종일, 「경관고고학적 관점에서 본 근대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비판적 검토 - 군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건지인문학』 36, 2023.

김창민, 「문화표상에 나타난 문화적 정체성의 정쟁 - 오키나와 슈리성의 사례」, 『동아시아 문화연구』 56, 2014.

류지석, 「지역 문화와 로컬 정체성 - 루베의 라 비신 미술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코기토』 73, 2013.

박충환, 「글로컬 문화지형과 지역학으로서 '영남학'의 위치」, 『嶺南學』 73, 2020.

박해남, 「서울 올림픽과 도시개조의 유산 - 인정경관과 낙인경관의 탄생」, 『문화와사회』 27-2, 2019.

사순옥, 「지역문화사업의 콘텐츠로서의 축제와 지역의 발전 : 쾰른 카니발」, 『독일언어문학』 39, 2008.

오영교, 「한국학과 국내 지역학」, 『지방사와 지방문화』 22-2, 2017.

유형동, 「안동하회별신굿 탈놀이의 지역정체성 획득 과정과 콘텐츠로서의 가치」, 『배달말』 67, 2020.

이상현, 「안동 문화의 변화와 민속의 재창조」, 『비교민속학』 26, 2004.

\_\_\_\_\_, 「지역 만들기와 무형문화재의 정치학 - '전통문화의 보고' 안동을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3, 2009.

이순진, 「1930년대 영화기업의 등장과 조선의 영화 스타」, 『한국극예술연구』 30, 2009.

이영민, 「서울 강남 정체성의 관계적 재구성 과정 연구 - 지역 구성원들의 내부적 범주

화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11-3, 2008.

이영원, 「지역 정체성이 지역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4-2, 2014.

이재민, 「공간생산이론을 통해 본 지역문화콘텐츠의 창출 과정과 의미 : 칠곡군 영오리 사례」, 『NGO연구』 14-3, 2019.

이재현, 「지역정체성과 지역사회활동이 정치적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문화연구』 7-1, 2020.

임병조, 「지역정체성의 구성과 제도화 - 홍성신문에 투영된 '內浦' 만들기」, 『대한지리학회지』 44-1, 2009.

임지혜, 2022, 「지역 공동체 기반 문화유산 활용의 교육적 의미」, 『교육문화연구』 28-5, 2009.

장세훈, 「중산층 프로젝트로서 '분당 만들기' - 분당 신도시 조성의 사회학적 해석」, 『지역사회학』 18-1, 2017.

전영의, 2022, 「일제 강점기 개항장의 도시화 과정과 식민지 근대화의 이중성」, 『한국문화이론과 비평』 26-3.

조관연, 「'근대적' 쾰른 카니발의 탄생과 지역 정체성 형성과정」, 『역사문화연구』 34, 2009

\_\_\_\_\_,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수용과 안동 문화정체성의 재구성」,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7-5, 2011.

조관연·장희권, 「국민국가 형성기 지역 축제의 역할과 변화 - 쾰른 카니발을 중심으로」, 『독일어문학』 49, 2010.

조일환, 「지역 이미지, 리얼리티 그리고 지역정체성의 혼란 - 화성 동탄 신도시를 사례로」, 『한국지역지리학회지』 19권 4호, 2013.

조정민·양홍숙, 「복원과 개발로 만들어지는 부산의 문화지형 - 영도대교와 롯데타운을 중심으로」, 『코기토』72, 2012.

차윤정, 「영화 속의 지역어 사용과 지역 정체성 만들기 - 부산 배경 영화를 중심으로」,

『우리말연구』 30, 2012.

천현순, 「독일의 지역문화와 지역의 정체성 - 쾰른 카니발 축제의 역사와 문화적 의미를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4-3.

최아름, 「군산과 목포의 장소성 기반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전략 비교」, 『인문콘텐츠』 57, 2020.

홍석준, 「근대 문화유산 관련 담론을 통해 본 도시 정체성의 형성과 변화 - 개항도시 목포의 사례」, 『한국학연구』 19, 2008.

홍지수, 「강남 지역의 담론적 재현과 정체성 변동 -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1990-2021」, 『한국도시지리학회지』 25-2, 2022.

황의동, 「기념물의 상징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정체성 확립 - 황주성의 일기에 나타난 만세운동기념탑 건립 추진 활동을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1-1, 2018.

## 연구 보고서

성남시, 2017, 『성남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체성 확립 방안』.

## 신문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 인터넷자료

권숙희, 「의정부보훈청→경기북부보훈지청…현판 제막식 열려」, YTN, 2016년 1월 4일  
송고, 2023년 11월 21일 접속,  
<https://www.yna.co.kr/view/AKR20160104149400060>,

이미연, 「강북구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심의 통과」, 매일경제, 2019년  
4월 22일 수정, 2023년 11월 20일 접속,

<https://www.mk.co.kr/news/realestate/8785041>

「부산광역시 기념물 영도대교」, 국가문화유산포털, 2023년 11월 17일 접속,  
<https://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2332100560000>

「북바위청포도문화제」, 성북마을아카이브, 2023년 11월 20일 접속,  
<https://archive.sb.go.kr/isbcc/home/u/story/view/1596.do>.

「제1회 종암동 북바위축제(1)」, 성북마을아카이브, 2023년 11월 20일 접속,  
<https://archive.sb.go.kr/isbcc/home/u/item/view/6199.do>.

네이버국어사전, “허브”, 2023년 11월 20일 접속,  
<https://ko.dict.naver.com/#/entry/koko/77e2e234bb644c6e8c2f457dc35a6d66>

Cambridge Dictionary, “Identity”, Accessed September 4, 2023,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identity>

Cambridge Dictionary, “Hub”, Accessed November 20, 2023,  
<https://dictionary.cambridge.org/dictionary/english/hub>

Wikipedia, “Identity(Social Science)”, Accessed September 4, 2023,  
[https://en.wikipedia.org/wiki/Identity\\_\(social\\_science\)](https://en.wikipedia.org/wiki/Identity_(social_science))

## 「지역 정체성의 형성과 작동을 통해 본 의정부시 정체성 성립의 방향」에 관하여

박정근(의정부문화원 사무국장)

그동안 의정부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 의정부 내부인의 시선으로만 들여다 보고 스스로 규정지으려 했던 지속된 작업 속에서 과연 외부인의 생각에 의정부의 정체성은 어떤 것인지? 또 의정부의 지역사 전반의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궁금증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발표문을 많은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고 읽었습니다. 의정부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박수진 선생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 연구는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석과 정의 그리고 사례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서 과연 의정부의 정체성을 수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심도 있게 들여다 봐야할 것은 무엇이고 특히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 있어 도시의 개별 특성을 규정하기 보다는 도시 전체의 역사, 문화, 사회상 등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이를 하나로 연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표자께서 의정부를 대표 할 수 있는 키워드를 “화해와 소통의 허브”라고 제시하고 의정부의 정체성을 “경기북부 허브”의 도시라고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표자께서 제시한 화해, 소통, 허브라는 키워드 역시 의정부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키워드인 것은 분명하나 이것이 의정부의 정체성이다라고 단정지어서 규정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 착안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발표문에서 이야기했듯 지역의 정체성은 역사, 문화적 배경과 정치, 경제적 입장에 근거하여 지역이 현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는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과 상호작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의 정체성 연구에서 놓치지 말고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지금의 도시입니다. 지금 현재의 의정부를 분석하고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관통하는 정체성의 단초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정리하는 학문을 우리는 지역학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연구의 중심을 과거에서 현재로 빠르게 이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지역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정부에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 땅 의정부를 실질적으로 지키고 살아온 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정체성을 정리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①태조,태종의 조선건국과 다락원, 장수원, 녹양, 송산의 사람들 ②임진왜란과 함께 이 땅으로 유입된 군인과 유입민 ③일제시대 의정부역과 함께 유입된 사람들 ④한국전쟁과 미군부대 주둔과 함께 유입된 사람들 ⑤서울의 팽창과 함께 유입된 사람들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건에 따라 대대적으로 유입된 의정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화해와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새로운 환경에서 살아가야 하는 낯선 사람들의 갈등하고 소통해가는 과정에서 새로이 만들어지는 포용의 개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도시의 정체성을 규정짓는 과정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정체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①깊이 있는 지역학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고 ②시민들의 도시 이해를 높이고 ③함께 정립해가는 도시 정체성을 통해 도시의 긍정적 이미지를 공유 및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도시의 정체성을 한가지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도시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에서 의정부 지역 정체성 수립의 방향에서 제시한 “화해와 소통의 허브”는 의정부의 역사와 사회의 변화의 격동기를 당당히 맞서 이겨낸 의정부의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건데 이와 같은 연구가 지속적인 지역학 연구로 이어져서 다양한 시각에서의 의정부 정체성을 발견하고 확산시키는 마중물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 조선 초기 국왕의 의정부 지역 행차와 의례적 성격

이왕무(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1. 서론
2. 의정부 지역과 왕조의 건국
3. 국왕의 의정부 지역 행차와 성격
4. 결론

### 1. 서론

조선 왕조의 도성 한양의 근교인 양주목에 현재의 의정부시가 소재하고 있었다. 의정부는 조선 왕조의 국정 최고 의결기관과 동일한 명칭이므로 그 유래가 정부 부처에서 온 것이라고 추정하게 하기도 한다. 조선시대 500여년 이상 장기간 존재한 국정 최고기관이 의정부였으므로 그 전통을 계승한 것인가 하는 설화가 나타날 수 있다. 양주라는 명칭이 고려시대 행정 구역인 양광도에서 나온 것으로 광주와 상대인 지역이었다. 한강을 기준으로 그 북쪽이 양주 남쪽이 광주라고 하던 경계의 공간이다. 조선시대에는 양광도가 경기도로 되었지만, 한양 도성의 이북은 양주, 이남은 광주라고 해도 될 정도로 양광도의 영향이 짙게 배어 있었다.

조선시대의 의정부는 경기도의 행정 구역에서 양주목 지역에 위치하였다. 양주목의 관할 지역이 한강을 경계로 광주 및 강원도 가평, 파주 및 고양 등의 경기 이북의 절반이라

고 해도 과언이 아닌 공간이었던 것을 감안해서 보면, 의정부시의 위치는 양주목이 위치 하던 불곡산으로 가던 노정의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회랑 지대 초입에 위치하고 있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서 본다면 녹양역 인근이었다.<sup>1)</sup> 의정부시 인근 지형과 지리의 전개만을 놓고 보면 한양 도성에서 혜화문을 통과해 미아리를 넘어 창동 누원점(樓院店)을 지나쳐 도봉산과 수락산의 위용을 보면서 개성으로 가거나, 혹은 금강산 및 원산으로 향했던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다.<sup>2)</sup> 교통과 유통의 중심지이면서 인적 물적 교류의 중점이었음을 단정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 초기부터 태조와 태종을 비롯한 역대의 국왕들이 의정부 지역을 행차하여 다양한 왕실 의례와 국가적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였다. 태조와 태종의 왕실 사냥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강무(講武) 행차, 정조의 광릉 능행(陵行)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sup>3)</sup> 국왕의 능침 행차는 일제 강점기와 해방 이후에도 광릉 고적 탐승이라는 명목으로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sup>4)</sup> 1948년 7월에 백범 김구가 휴양차 광릉을 참배할 때도 의정부에서 도중에 휴식처로 삼기도 하였다.<sup>5)</sup> 또한 교통과 유통망의 중심이라는 이점에 따라 목장과 둔전 등이 의정부 지역에 설치 운영되었으므로 현재와 같이 시민의 안식처로 육성되기에 적합한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조선 왕조 시대부터 조성하고 있었다고 사료된다.

그런데 우수한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구비하고 있는 의정부 지역에 대한 학계의 학술적 연구는 물론 국가 기관의 공적 조사조차 다소 미진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최근 학술적 조사와 연구가 활성화되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의정부 지명 유래에 대한 논란에서부터 6.25전쟁 이후 군사 문화 위주로 평가되던 연구 동향이 전근대 왕조 시대의 문화 유산에 대한 탐구를 필두로 역대 국왕들의 행적을 파악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기존의 의정부 지역 연구의 한계는 사료의 부족이라고도 대변되는 사안이지만, 보다 주요한 원인은 의정부라는 시민의 공간을 총합적(總合的) 관점에서 연구하려는 시도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지역 공간의 중층적 역사 문화 양상을 조명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기만이 아닌 시대의 확장을 통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사찰이 위치한 곳은 고대의 신앙처이거나 후대에 서원으로 변모되던 곳이었음은 이미 공인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K2-4957, 『대동여지도』.

2) 이왕무, 「조선시대 도봉옛길의 역사적 유래와 성격」, 『도봉학연구』 2, 2020.

3) 『태조실록』 권12, 태조 6년 12월 15일(계사); 『태종실록』 권9, 태종 5년 2월 15일(신사); 『정조실록』 권35, 정조 16년 9월 10일(병오).

4) 『조선일보』 1949년 10월 26일, 광릉고적탐방회.

5) 『경향신문』 1948년 7월 20일, 김구씨광릉참배.

된 사실이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회룡과 녹양은 원래 그 자리에 사람들이 무언가에 유인되어 왕래하던 곳이라는 시선에서 접근하는 것이 통시대적으로 역사의 흐름을 제시해 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본고는 조선 왕조 개국 초기의 의정부 지역에서 태조와 태종 등의 국왕들이 거행한 행차와 그로 인해 양산된 왕실 의례의 변화들을 조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의정부 지역이 내포하고 있는 조선 왕조 왕실의 유산과 문화가 전승-계승되어야 하는 역사적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연구의 주요 목적이 있다.

## 2. 의정부 지역과 왕조의 건국

오늘날 의정부 지역은 조선 왕조의 양주 지역이었다. 양주는 현전하는 지명이지만, 고려시대 경기도의 고유명이기도 한 양광도(楊廣道)에서 유래한 것이다. 세조대의 군사제도인 진관체제(鎭管體制) 구축에 따라 경기 좌우도 혹은 군익도(軍翼道) 체제로 변경되면서 관할 구역의 재편도 있었지만, 조선 후기까지 한강을 기준으로 경기 북부는 양주이며 남부는 광주라는 지리적 구분이 지속되었다. 조선시대에 의정부는 한강 이북의 양주 지역에서 한 공간에 위치하던 도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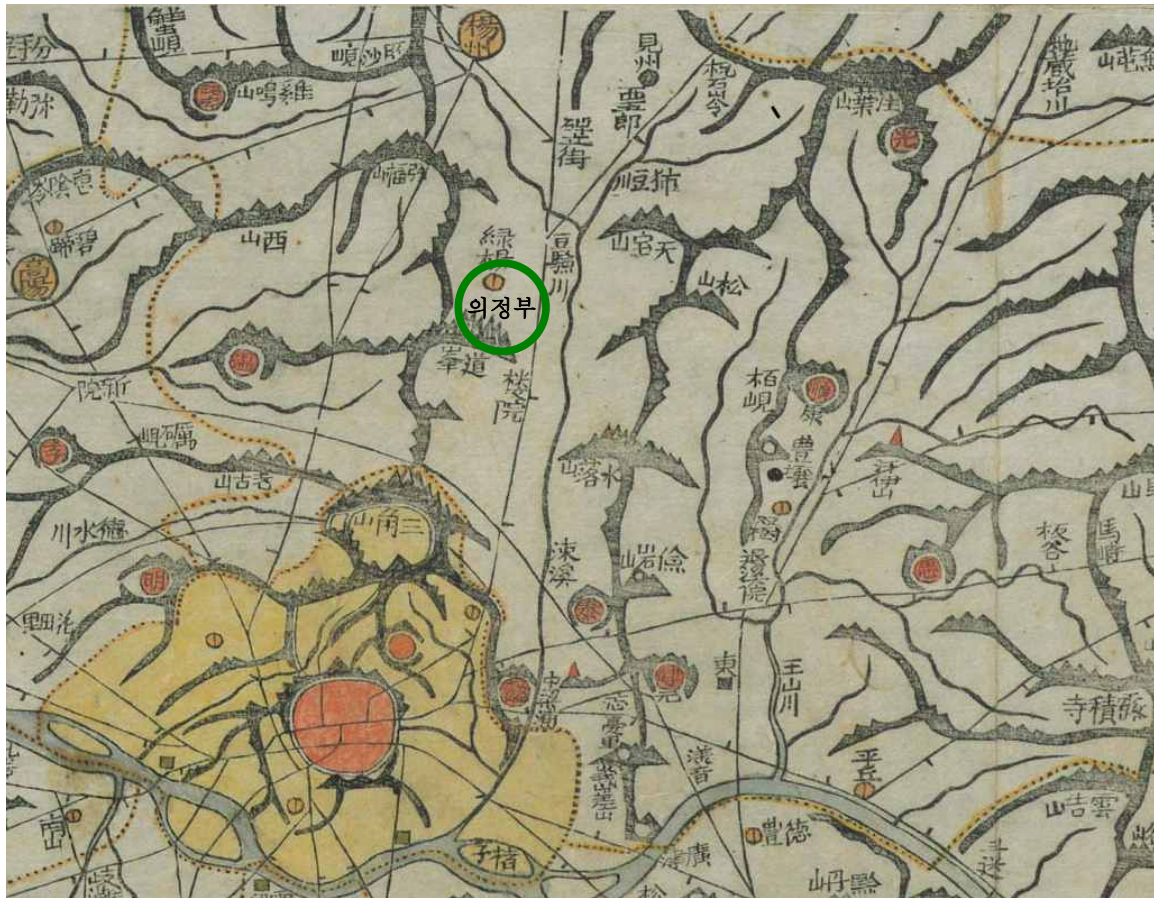
의정부가 양주 지역이라는 공간적 배치 속에서 바라본다면, 한양 도성과 고려 왕조의 도읍이던 개경 사이에 위치하던 교통의 요충임을 확인하게 된다. 현재에도 동일한 동선이지만, 개경에서 한양으로 가는 도로는 임진진에서 파주의 해음령과 벽제관을 거치거나, 적성을 거쳐 양주의 녹양역과 누원점을 통해 도성으로 진입하는 두 개의 길이 존재한다. 따라서 의정부는 조선 왕조의 도읍과 고려 왕조의 도읍 사이의 공간에 위치하던 역사 문화적 공간의 한 도회라는 지리적 개념으로 정리가 될 수 있다. 또한 왕조시대에도 의정부가 위치한 양주는 수도권이라는 인식이 팽배했다. 양주 지역 50리 이내는 도성의 근교라 하면서 경읍(京邑)이라고 하여 도성 생활권으로 보았다.<sup>6)</sup> 조선 후기 대표적 실학자라고 하는 반계 유형원도 양주가 도성의 영역이 아니지만 실제로 민인의 생활 터전이나 생활권으로 보아서는 도성민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하였다. 도성 인근의 지역은 산천으로 경계를 나누기보다는 실제 상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sup>7)</sup> 일제 강점기에도 주말

6) 최영준, 「조선시대의 도로에 관하여」, 『한국사론』 41-42, 1989, 4~10쪽.

7) 『礪溪隨錄補遺』 권1, 郡縣制, 歷代制.

○漢城京府, 今漢江諸里, 雖爲京城地, 而亦係楊州, 故收稅於楊州, 龍山之於高陽, 亦然, 人戶與田稅分主兩處, 未知其妥當, 此等地, 當全入漢城府.

에 서울역에서 기차를 이용해 의정부에 도착하여 점심으로 반주와 갈비를 먹고는 회룡사(回龍寺) 인근의 경치를 구경하던 교외 유원지였다.<sup>8)</sup> 다음의 <그림 2-1>은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 표시된 양주의 의정부 지역이다.



<그림2-1> 『대동여지도』의 양주 지역 의정부

위의 <그림 2-1>에서 녹색 원안의 표시가 의정부이다.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의 중랑천이 흐르는 회랑의 공간에 위치하였다. 도봉산의 우측에 누원이 있으며, 북측에는 녹양역이 있다. 그 남측으로 검은 실선을 중랑천 연변에 따라 내려오면 붉은 색의 도성까지 진입되는 양상이다.

이런 배경으로 조선 왕조가 한양 도성에 도읍을 설정하면서 양주의 의정부 지역은 도성의 교외이면서 구도(舊都)와 신도(新都)의 사이에서 인적 물적 교류의 중심지로 성장해 간

○楊州之自西山以外淨土等地，及自樓院蘆原，康泰陵茁洞 建元陵限王山川，循廣津三田渡 以內地割入。○高陽之昌敬陵，鴨島幸州近處等地，亦入之。

○自鴨鷗亭沙平坪，至狐峴以內地，又自銅雀至楊花渡限江之南十里地割入，即果川北面半，衿川東境也，按露梁等地，係是江外地面，而至近京城，凡於分地建邑，雖以山川爲界，實以人事所便爲主，屬于漢城爲是。

8) 『삼천리』 제13권 제7호, 1941, 한양부근명산기행(漢陽附近名山紀行).

것이다. 개경이 중국 대륙과 연계되는 경의대로(京義大路)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그곳을 거쳐 도성으로 유입되던 선진 문화는 의정부를 통해 전해지는 것이 순리였다.<sup>9)</sup> 따라서 조선 왕조 개국기의 의정부 지역은 ‘이씨 왕조’의 건국이라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의 회오리와는 다소 비켜 간 문화적 차원에서의 새 바람이 응기했다고 보겠다. 특히 의정부 지역은 도성에서 도봉산과 수락산의 회랑을 지나서 광야로 진입하는 출입구의 기능도 하였으므로 왕실과 국가의 각종 의례 및 행사의 장소로 운영되기도 하였다. 태조가 즉위 초에 양주의 도읍을 재편하고 행정 중심지인 목(牧) 체제로 구성한 것이다.<sup>10)</sup> 양주가 목 체제가 되면서 3품 이상의 고위 관원이 지방관으로 파견되던 지역이 되었다. 의정부의 행정 운영이 당상관의 지위에서 관리되었음을 의미하면서 중앙 정부에서 관원을 파견하는 관심 지역이라는 것도 동시에 의미하였다.<sup>11)</sup>

### 3. 국왕의 의정부 지역 행차와 성격

조선시대 국왕은 궁궐과 도성의 외부로 자주 행차하였다.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역대 모든 국왕이 신체적 제한이 없으면 언제나 교외로 행행(行幸)하여 국정의 관심사인 농경을 살피거나 민인들의 여론을 경청했으며, 선대 국왕과 왕비들의 능원묘(陵園墓) 및 사당에 행차하는 것이 왕조 초기부터 말기까지 항상적으로 진행되었던 의례였다. 양주의 대표적 왕실의 능침이었던 세조의 광릉(光陵) 능행이 왕조 후기까지 지속된 것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sup>12)</sup> 따라서 조선시대 양주의 의정부 지역에 역대 국왕의 행적과 문화가 역사적 유산으로 전해지는 것이 당연한 처사일 것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왕조 건국 초기의 태조 재위기일 것이다.

의정부 지역의 조선 왕조 국왕의 행적에서 태조와 태종의 고사들이 자주 언급되는 것은 드라마틱한 서사적 내용도 주목되지만, 당대의 역사적 사건 및 잔재들이 후대에 설화가 되고 문화 유산으로 전승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우선 의정부 지역 용어에서 회룡(回龍)과 전좌(殿座)라는 말은 국왕과 왕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의정부에 국왕이 행차했거나, 왕실 관련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회룡의 용은 왕을 의미하는 국가 의장의 형명(形名) 상징이며, 전좌는 국왕이 임어한 장소의 자리라는 의례적 용어이기

9) 『여지도서(輿地圖書)』 상, 경기도, 양주, 산천.

10) 『여지도서(輿地圖書)』 상, 경기도, 양주, 건치연혁(建置沿革).

11) 『여지도서(輿地圖書)』 상, 경기도, 양주, 관직.

12)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2016.

때문이다. 또한 태조와 태종의 고사가 설화로 현재에도 왕왕 언급되는 배경은 부자지간이면서도 왕조 권력의 향방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이었기 때문일 것이며, 그 두 사람의 일화가 고사로 전해지는 지역이 의정부라는 것도 주요한 배경이다.

태조의 입장에서 태종은 자식이기 이전에 자신이 내정한 세자를 제거하며 왕실의 후계 계통을 무난하게 했으며, 자신의 평생 동지들을 학살한 '원수'라고 보아도 지장이 없을 상대였다. 더욱이 태조의 재위기인 1396년(태조 5)에 친구였던 목은(牧隱) 이색이 요청하여 여강(驪江)에 피서하러 가다가 배에 올라 갑자기 죽는 사건이 있었고, 태조가 목은이 죽은 까닭을 의심하여 당시의 안찰사(按察使)를 죽였고, 태종을 의심하였다. 후대에서는 목은의 죽음에 대해 태조와 태종의 충성을 권장하고 악을 징계하는 방식이 동일한 법도에서 나온 것이니, 참으로 훌륭하다고 평하기도 했으나, 태조의 입장에서서는 자신이 국왕으로 재위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건이므로 태종을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다.<sup>13)</sup> 또한 태조는 조사의 난에 따라 함흥 차사를 일으키며 두 사람의 관계는 극으로 치달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사태까지 비약한다. 바로 그 시점에 역사의 무대로 등장한 것이 의정부 지역이었다. 현재에도 회자되듯이 태조와 태종의 갈등 양상이 극적인 화해의 무대로 작동된 공간이 의정부인 것이다.

의정부 지역에 대한 태조의 고사는 일제 강점기에도 관광객들에게 회자될 정도로 그 행적이 곳곳에 잠재되어 있었다. 우선 도봉산 회룡사였다. 회룡사 인근 중턱에는 태조가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 동굴과 무학대사가 기거했다는 처소가 있었다. 또한 태종이 정종의 선위를 받아 등극하면서 태조가 거처하던 함흥에 차사를 보내 문안하면서 참변이 일어나다가 박순(朴淳)과 성석린(成石麟)의 간청으로 마침내 태조가 돌아오았는데 조정의 정부 관료들이 전원 마중을 간 곳이 지금의 의정부 지역이라는 것, 그 사연 때문에 회룡사가 태조의 원찰(願刹)이 되었다는 것도 관광객에게 회자되었다.<sup>14)</sup> 태조가 왕자의 난에 궁궐을 떠나 행차하면서 의정부를 지나 양주 소요산 행궁에 거처했다는 조선 후기의 기사도 나타난다.<sup>15)</sup> 따라서 태조와 태종의 사건과 행적이 조선시대는 물론 일제 강점기를 거쳐 현재 까지도 서사로서 회자되는 것은 당시의 공간이 현재와 동일한 곳에 조성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의정부라고 하면 연상되는 것이 조선 왕조의 태조와 태종이었으며, 태조라고 하면 조선 왕조의 개국이 떠오르는 연속적인 연대기의 시계열이 전개되는 스토리텔링 받아

13) 『대동야승』 기재잡기 1.

14) 『삼천리』 제13권 제7호, 1941, 한양부근명산기행(漢陽附近名山紀行).

15) 허목, 『기언』 소요산기(逍遙山記).

점이라고도 하겠다. 의정부의 서사 구도가 태조와 태종이라는 것의 유래이며 소스 코드라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태조와 태종을 비롯한 조선시대 국왕들의 의정부 행차도 주목할 부분이다. 조선 왕조에서 국왕이 궁궐 외부로 행차하는 것을 행행이라고 하였다. 행행은 국왕이 민인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 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오늘날 정치가들의 퍼레이드와는 다소 상이한 왕조 국가의 제왕이 ‘군민일체(君民一體)’를 지향하며 거행한 유교적 개념의 의례 행사라고 할 수 있다.<sup>16)</sup> 국왕이 권력 지배층에 군림하면서 일방적인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닌 민의 입장을 대변하고 지켜준다는 위민 의식이 반영된 개념이다. 이러한 국왕의 행행을 극적인 효(孝) 의식과 정치적 행위로 연출한 것이 수원 능행을 주도한 정조이기도 하다.<sup>17)</sup>

국왕의 행차-퍼레이드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의정부 지역의 성격에 새로운 의미를 추가해서 조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 왕조 국왕들의 행차는 중국 및 일본의 군주들이 거행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행차를 관람하기 위해 구경나오거나 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다가오던 백성들을 제지하지 않고 수용한 점이다. 예컨대 1792년(정조 16) 정조가 광릉에 능행하기 위해 의정부로 행차하였던 사례를 보면 명확하게 입증된다. 당시 정조의 행차를 구경하러 온 지역민이 운집하였고 그들은 어떠한 제약이나 강압이 없이 자유롭게 왕조 국가의 군주를 대면하였다. 오늘날 전해지는 정조의 수원 화성 행차 그림을 보더라도 특별한 경계선이 없는 상황에서 백성들이 담소를 나누거나 음식물을 먹으면서 남녀노소가 자유롭게 국왕의 행차를 구경하고 있다. 특히 정조의 재위기 행차에서 주목되는 특이한 사안은 해당 지역의 민원을 수용하던 모습이다. 국왕의 행차가 진행되면 해당 지역민에게 인적 물적의 동원 및 수요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국가에서는 지역민에 대한 위무 차원에서 세금을 감해주거나 임시 과거를 실시하거나 지역민의 숙원을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진행했다.<sup>18)</sup> 따라서 조선 왕조기 의정부 지역에 국왕의 행차가 거행되었다는 것은 군민일체의 왕조 안정기 장면이 연출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의정부 지역이 군민 소통의 지역 문화가 전승되었음을 예시해 주는 사연일 것이다.<sup>19)</sup>

실제로 정조는 의정부 지역 행차에서 “산천은 사람의 외모와도 같은 것이어서 외모가 좋은 산천은 기색(氣色) 또한 좋다. 어제 오늘 지나온 산천은 모두가 좋은 기색이거니와

16) 이왕무, 『조선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2012, 125~220쪽.

17) 이왕무, 「정조대 始興 園幸路 조성과 운영」, 『장서각』 38, 2017.

18) 이왕무, 『조선시대 국왕의 행행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

19) 『정조실록』 권35, 정조 16년 9월 10일(병오).

더구나 아침에 비가 개인 모습은 더욱 명랑하고 수려함을 깨닫게 한다.”라고 하여 지역 공간이 지는 자연 지리적 특성까지 언급하였다. 또한 구경 나온 백성들이 산과 들을 가득 메웠는데, 직접 백성의 고통에 대해 두루 질문했다. 백성들이 “한 집에서 받는 조곡(糶穀)이 10여 석에 이르기도 하는데 모두 군포(軍布)로 바치고 남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자, 정조는 “감사와 수령이 있으니 조정에서는 그들을 신칙하여 너희들이 해롭고 지치는 일이 없게 하고 금년의 적모(糶耗)는 특별히 감면시켜 줄 것이다. 칙수(勅需)나 군향(軍餉)에 사용되는 곡식은 아무리 흉년이 든 해라 할지라도 원래 견감시켜 주는 규례가 없으나 이 또한 규례에 매이지 않고 모두 제거해 주도록 하겠다. 조관(朝官)과 사서인(士庶人) 중에서 70세 이상 된 자들은 자급을 올려 주고 유생과 무사는 과장(科場)을 베풀어 선발할 것이다. 그리하여 위로는 선조(先朝)의 융성한 덕을 몸 받고 아래로는 백성의 소원을 위로해 줄 것이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이 뜻을 알도록 하라.”라고 하였다.<sup>20)</sup> 국왕이 행차의 도중에 민원을 접수하여 소원대로 처리해 주었다는 사연을 동서고금의 전례로 따져 보아도 의정부 지역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것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조는 행궁에서 국왕의 능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면서 의정부 지역에 다양한 혜택을 동시에 내려준다고 유시했다.

“**(전략)** 나 소자가 성조의 능을 뵈고 성조의 유업을 계승하여 성조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삼는 것은 오직 우리 백성을 사랑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예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이 양주에 이르러 수레를 멈추어 들에 머물면서 두 고을의 부로들을 불러 먼저 농사 형편을 묻고 다음에 백성의 고통을 물어서 농사를 힘써 짓는 방법을 권장하고 어린이를 사랑하고 늙은이를 부양하는 어진 정치를 펴자, 몸이 굵은 늙은이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서로 마주보며 기쁘게 환호하여 고하는 것이 마치 내 말을 알아듣고 느끼는 것이 있는 듯하니 백성의 뜻을 여기에서 크게 알 수 있다. 오직 내가 그 뜻을 알았으니 은혜를 베푸는 조치를 어찌 대궐로 돌아가서 내릴 필요가 있겠는가. 유생의 시제(試製)에서는 각각 거수(居首) 1명을 뽑아 사제(賜第)하고 나머지는 회시(會試)에 응시하게 할 것이며, 무사의 시사(試射)에서는 우등한 자에게 사제하고 나머지는 회시에 응시하게 할 것이다. 70살이 넘은 조정 관원과 80살이 넘은 사서인으로서 선조(先朝) 병진년·을해년의 행행과 이번 행행을 모두 우러러 본 사람들에게는 모두 1급씩 가자(加資)할 것이며, 1백 살이 넘은 자에게는 쌀과 고기를 더 지급할 것이며, 일반 백성들에게는 한 해 동안 급복(給復)할 것이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모(還耗)를 제거해 주는 실질적인 일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므로 특별히 올해의 향곡(餉穀)과 환곡(還穀)의 모곡(耗穀)을 견감시켜 줄 것이며, 전종(田種)은 마땅한 것을 헤아려 대

20) 『정조실록』 권35, 정조 16년 9월 11일(정미).



신 수봉하게 하고 수미(收米)는 소원대로 작전(作錢)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내 들으니 대가(大駕)가 임하는 것을 행(幸)이라 하는 것은 백성들이 다행함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효유하는 것을 어찌 족히 은혜라 할 수 있겠는가. 내 생각은 옛날을 몸 받고자 하는 데서 나온 것임을 보이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다. 아, 너희 두 고을 부모와 백성들은 모두 이 뜻을 알도록 하라.”<sup>21)</sup>

정조는 국왕의 행차가 “백성들이 다행함을 바랄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백성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것이 제왕의 의무라고까지 천명하였다. 이에 대한 응대로, 의정부의 백성들이 정조 행차를 영접하는 장면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가족을 상봉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한다. 왕조 국가의 유교적 통치 이념이 의정부 지역에 촘촘히 부식되었다고 다소 딱딱한 정치적 해석을 하는 것보다, 국왕과 백성들이 자유롭게 대면하며 지역 현안을 의논하고 해결하려는 모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곳에서만 연출되던 역사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조의 능행은 왕실의 의례적 행위로서 후계의 국왕이 반드시 항상 거행해야 하던 행사였으며, 그것을 바라보는 백성들은 국왕이 조상에 대해 효심을 다하는 정성스런 동작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입장까지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조선시대 역대 국왕에게 나타나던 현상이며, 정조대의 행차 관련 자료가 다수 전해지는 관계로 그의 행적이 강조되고 있다.

위의 사료에서 정조는 의정부 지역민에게 세제의 혜택과 지역 인재의 선발 등의 현안 사안을 해결해주려고 한다. 세금의 종류와 형태의 변경, 지역 인재들의 신분 승급 등 의정부 백성들의 소원을 적극 수용하는 자세이다. 이런 현상은 의정부에서만 나타나던 독특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정조 재위기 행차시마다 발생하던 동일한 양상이다. 따라서 의정부 지역에서 나타났던 국왕의 행차 양상은 조선 왕조기 보편적인 현상이었으며, 바로 그 점이 의정부의 역사적 위상을 재고하게 하는 사실이라고 생각된다. 의정부 지역에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정하면 일회성 내지는 해당 시기에만 진행된 일로 현재적 계승성이 약화되는 요인이 된다. 반면 왕조시대의 보편적 양상이 의정부 지역에 만연하였다고 한다면, 그 전통적 양상이 문화 유산으로 현재까지 계승되게 하는 지역의 ‘힘’으로 작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의정부 지역에서는 왕실 의례로서 국왕의 강무(講武)와 습조(習操)도 거행되었다. 특히 태조와 태종 등의 국초부터 세조대에 이르는 조선 전기 시기 왕성하게 거행되었다.

21) 『정조실록』 권35, 정조 16년 9월 11일(정미).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양 도성과 개경 사이의 공간에 위치한 의정부 지역은 국초에 국왕을 비롯한 왕실 인물들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다. 왕래가 잦았다는 것은 낯익은 곳이라는 것이며, 익숙한 장소들에서 의례를 거행하는 것도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또한 의정부 지역이 지니는 자연환경의 우수성도 강무 등의 왕실 의례가 선행되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 조선의 새 도읍 한양을 출발하여 동북면을 통해 개경으로 가려면 수유(水踰) 고개를 넘어 누원(樓院, 다락원)을 거쳐 지금의 의정부시 일대를 지나야 한다. 서쪽의 도봉산과 동쪽의 수락산 사이로 빠져나와 북쪽으로 길을 잡으면 곧장 펼쳐지는 너른 들이 바로 그곳이다. 녹양평(綠楊枰)이라 불리던 이곳은 교통의 요지(要地)요 용무지지(用武之地)였다. 녹양은 교통의 요지이면서 군사 훈련과 양성을 하기에 적합한 훈련장 같은 환경이었다.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를 지나오면 광활한 평야가 중랑천의 상류인 두험천(豆驗川)과 같이 전개되었다. 태조 이성계를 비롯한 무장 출신의 기마부대가 강무를 거행하기에 안성마춤인 공간이 의정부 지역이었던 것이다. 당시 의정부 지역의 강무 장소를 조선시대 그림에서 추정한다면 다음의 <그림2-2>이다.



<그림 2-2> 의정부 지역의 녹양 인근의 강무 공간

위의 <그림 2-2>에서 청색 원으로 표시한 의정부 지역의 녹양이 조선 전기의 대표적인

강무장이면서 군사 훈련 장소이다. 조선전기 강무는 사냥<sup>22)</sup>의 형태를 지닌 군사 훈련이었으며 기병이 중심이 되는 전술이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왕조 국가의 사냥은 지배층에게 유희이면서도 육식을 할 수 있는 활동이었다. 물론 조선시대 국왕의 사냥이 신민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의례적 요소가 강했으며, 사냥의 이유가 군사 훈련 내지는 위민재해(爲民除害)를 위한 악수(惡獸)의 제거와 종묘의 제수 마련이 그 주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의례화되는 속내에서, 건국 세력의 출신이 북방 무장 집단이며 유목적 기마전에 능했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냥 문화가 일상이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적어도 세조대까지 국왕들의 사냥=강무가 늘 지속되었던 것이 그 반증일 것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강무가 위정자인 국왕이 백성에게 모범을 보이는 의례로 작용한 것도 사실이지만, 조선 초기에는 왕실의 사냥 문화로 이용되었다고도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조선시대 국왕의 사냥을 강무라고 한 것은 국왕의 사냥에 국가의 공적인 의례 체제가 동원되었고 군사 명령 체제에 따라 무력을 사용하여 일종의 군사 훈련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다. 태조가 전국 지방관에게 정례화된 이외의 사냥을 금지하고 인명과 농사를 해치는 짐승만을 잡아 제사에 사용한다는 것에서도 사냥이 조선 건국 초기부터 공적 의례화 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sup>23)</sup>

이런 시대적 배경 아래 조선 초기에 <그림 2-2>의 녹양역 인근 의정부 지역에서 대규모의 강무가 진행된 것이다. 예컨대 1405년(태종 5) 2월 15일부터 28일까지 보름 간에 걸쳐 강무가 펼쳐졌다. 당시 동원된 강무 인원은 연대기 자료에서 명확히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적 강무 상황을 비교하면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 강무에 참가하는 인원은 국왕에서 정부 관원, 장병, 백성 등으로 시기와 상황에 따라 동원 인원엔 차이가 있었다. 대부분 수천 명에서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강무 참여 인원은 대규모였다. 왕족이 참여하는 경우도 많았다. 세자와 대군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세자의 경우 군대 지휘와 통솔을 익히는 수단에서 참여하였다. 강무가 거행되기 전에 원유도감(苑圍都監)을 설치해서 원유, 즉 강무장을 관리하게 했다. 강무장의 설치 및 통제, 국왕의 임시 거처 및 소용 물품의 장만 등이 주요 업무였다. 강무장은 일정한 지역에 상설되지 않고 매년 정해졌다. 강무장의 사방은 깃발로 경계를 표시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였고, 개인적인 사냥은 물론

22) 사냥의 어원은 산행(山行)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 조선 전기 사회에서는 수렵을 산행이라고 하였는데, 산행은 산행수숙(山行水宿)으로 풍찬노숙과 동일한 의미였다. 산행이 군사들을 동원하여 짐승을 몰이해 잡는 사냥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산행이 곧 사냥을 의미했다고 본다. 실제로 세종대 산행출입(山行出入)은 군사 훈련을 의미하기도 하였고, 군사산행(軍士山行)이라고 칭하기도 했다. '산행'이 '사냥'으로 변화된 것은 18세기 이후로 추정하며 산행(山行)→산행→사냥으로 추정하고 있다.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 『역사민속학』 24, 2007, 169~171쪽)

23) 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 2019, 156~1761쪽.

별목, 경작을 금지했다. 일반인이 허가 없이 출입하면 장 1백에 처해졌다. 강무장의 내부는 위내(圍內)라고 했고 그 안에서 짐승을 몰아서 국왕과 장병이 화살을 이용해 잡는 사장(射場)을 두었다. 강무장에 동원된 군사들은 초기(抄旗)로 소속 부대를 구분했고 군복의 등에 어디 소속 누구라는 표식을 붙여야 했다. 장병은 삼군으로 나뉘어 중군은 붉은 표식, 우군은 흰색 표식, 좌군은 푸른 표식을 명주 혹은 베로 방형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장병이 소지한 화살에는 이름과 표식을 하여 마음대로 사냥을 못하게 함과 동시에 표식이 없는 화살을 휴대하면 처벌하도록 하였다.<sup>24)</sup>

그러므로 조선 초기 의정부 지역에서 진행되던 국왕의 강무는 왕실 의례가 정착되는 한 과정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왕실 문화가 도입 정착되는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국왕의 의례적 행차를 위해 의정부 지역민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사안들은 해당인들에게 문화적 기억으로 잠재되었고, 해당 지역에 전승되어 문화유산으로 계승되었다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의례적(儀禮的) 행사가 의정부 지역민의 의례적(依例的) 생활로 연결되어 현재에도 ‘전좌(殿座)’라는 용어 등에 전승되게 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 4. 결론

의정부는 조선 왕조 500여 년이라는 역사적 무게가 중층적으로 지역 곳곳에 잠재되어 있는 공간이다. 태조 이성계의 활시위와 대한민국 국군의 용맹함까지 한국사의 시대별 굴곡이 스펙트럼처럼 의정부 각 지역에서 비쳐진다. 의정부의 역사적 공간은 인물과 사건이 지속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면서 지역 공간에 존재했다는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곳이다.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지속해서 생활하며 ‘이야기’를 역사의 무게가 되도록 서사화되게 하는 공간이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의정부가 중심이 되어 인근 지역의 역사까지 아울러 주도할 수 있는 역사적 공간의 중심에 있음을 의식해야 할 시기일 것이다.

물론 역사는 기록으로 과거를 보여주고 말한다. 사마천이나 헤로도토스 등의 동서양 역사가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역사가의 시각은 기록된 자료를 통해 말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럽게 객관적으로 접근하는 자세일 것이다. 다만 최근에는 다양한 매체의 발달로 인해, 흔히들 역사는 후대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어질 수도 있다고 서슴없이 주장하는 사례가 왕왕 나타나기도 한다. 대부분 객관적 사실 관계를 확인

24)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4, 2007, 181~184쪽.

조차 하지 않고 서사화시키는 것이 작금의 실정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통해 학계와 민간이 교류 소통하는 작업이 지니는 의미가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불변하는 것이 역사의 장소성일 것이다. 역사적 무게가 담겨져 있는 공간을 의미한다. 사료 속의 이야기가 공간의 인문 유적들과 융합하게 되면 설왕설래되는 주관적 해석들이 다소 정리될 것으로 사료된다.

의정부의 대표적인 지역의 공간과 역사 속의 사료가 융합되는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소 정치적 색채가 담겨진 연대기 사료가 지역민의 삶에 투영되어 해석되는 것이 다른 역사 서술과는 상이한 인간의 삶을 조명해 주는 결과를 양산하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의정부의 공간적 특성이 재차 주목된다. 도봉산과 주변 자연경관이 역사의 주요인일 수도 있겠으나, 여전히 역사의 이야기에서 인간이 주인공인 주제가 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이 혼돈스러워진다. 물론 자연 경관의 지리적 우수성을 무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길을 왕래하고 그 길의 한 지점에서 머물며, 삶을 이어가던 그 역사의 궤적을 인간의 존재 흔적과 동시에 언급하는 것이 더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만히 의정부의 녹양역에서 망월사역에 이르는 공간을 바라보며 과거를 지켜보고 있으면, 사방의 건물들 사이로 수없이 잠재되어 있는 역사의 자취가 도봉산의 바위들처럼 솟아 오른다. 한양 도성과 개경을 왕래하던 사람들, 금강산과 원산으로 여행 및 장사를 하러 가던 사람들, 의정부역에서 도봉산의 유적에 탐방하던 경성의 시민들, 북한군의 탱크를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던 국군의 용맹함 등이 조선시대부터 현대까지 시계열적으로 보여지는 자취들이다. 특히 1966년 미국의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과 의정부를 방문하여 한국군의 태권도 시범을 보고 퍼레이드를 한 것까지 기억해본다면, 의정부의 어떤 지역도 소홀히 지나칠 수 없다는 것을 되새기게 한다. 존슨의 의정부 방문은 한국군의 월남 파병을 요청하는 차원에서 지역에 배치된 부대들의 시찰과 동시에 한미 우의를 다지는 자리였다. 오늘날 지역 명물로 유명한 부대찌개가 존슨탕에서 시작했다는 설도 그 유래가 1966년에 존슨이 의정부를 방문하며 탄생한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과 같은 학술대회를 계기로 의정부의 역사문화유산은 보다 새롭게 해석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다. 기존의 연구와 논의처럼 지역 문화재 혹은 유적으로만이 아니라 의정부를 대표하는 조선시대의 역사 유적 내지는 한국의 대표적 문화자원으로 양

성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오늘 진행되는 학술대회가 의정부 연구의 초석을 다지는 것은 물론 지역의 역사문화유산이 새롭게 시민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 [참고문헌]

### 사료

『태조실록』

『태종실록』

『정조실록』

『대동여지도』

『여지도서(輿地圖書)』

『대동야승』

유형원, 『礪溪隨錄補遺』

허목, 『기언』

### 단행본

이왕무, 『조선 후기 국왕의 능행 연구』 민속원, 2016.

이왕무, 『조선왕실의 군사의례』 세창, 2019.

### 연구논문

심승구, 「조선시대 사냥의 추이와 특성-講武와 捉虎를 중심으로」, 『역사민속학』 24, 2007.

이왕무, 「조선시대 도봉옛길의 역사적 유래와 성격」, 『도봉학연구』 2, 2020.

이왕무, 「정조대 始興 園幸路 구성과 운영」, 『장서각』 38, 2017.

최영준, 「조선시대의 도로에 관하여」, 『한국사론』 41-42, 1989, 4~10쪽.

### 신문·잡지

『조선일보』

『경향신문』

『삼천리』

## 「조선 초기 국왕의 의정부 지역 행차와 의례적 성격」에 관하여

이규철(성신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현재의 의정부 지역은 조선시대 양주 지역에 해당했습니다. 조선 초기에 양주 지역은 능행과 강무 등의 의례와 관련하여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었습니다. 발표문에서는 조선 초기 특히 태조와 태종의 재위기 동안 양주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던 왕실 의례의 성격과 내용 등이 잘 소개되었습니다. 사실 조선 초기는 양주와 관련된 기록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더욱이 국왕과 양주 지역에 관련된 의례 관련 기록도 제한적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관련 사료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조선 초기의 국왕들이 직접 주관했던 국가 의례의 내용과 의미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1. 국왕의 행차는 발표문에서 잘 설명되었던 것처럼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국가 행사인 동시에 백성들과 소통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의례였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왕들은 궁궐 안에 머무르면서 백성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었습니다. 전근대 시기의 사회제도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왕과 백성이 소통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선시대 국왕들이 능행 과정 등을 통해 백성과의 소통 기회를 만들었다는 점은 역사적 의미가 더욱 크다고 하겠습니다.

조선시대 국왕의 행차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지만 아쉽게도 조선 전기의 기록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습니다. 조선시대의 국왕 행차 과정이나 백성과의 소통 과정 등은 정조대 기록을 중심으로 설명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다만 정조대의 정치·사회적 환경은 조선 초기와는 차이가 컸기 때문에 국왕의 행차 과정에서 가능했던 백성과의 소통 과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물론 조선 초기에도 궁궐 근처에서 격쟁을 통해 백성이 국왕에게 직접 억울함을 알렸던 기록이 남아 있다는 점이나 형식적이기는 해도 신문고 등의 제도가 운영되었던 사례를



본다면 국왕 행차 과정에서 백성과 소통이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다만 관련 기록이 제한적으로 남아 있는 조선 초기 국왕 행차의 과정이나 형태를 어떻게 추정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 조선 초기 양주 지역에서 진행되었던 국왕 주도 의례 중 구체적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강무 또는 사냥이라 생각합니다. 조선 초기는 복잡한 국제정세 때문에 군사와 관련된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물론 이와 관련된 여러 조치가 항상 고민되고 시행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강무 역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고, 다른 시기에 비해 자주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국왕이 직접 참여하는 강무와 사냥 의례가 양주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사례도 기록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초기 강무와 양주 지역의 관계는 더욱 밀접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건국 초기 태조의 재위기부터 성종의 재위기까지는 양주 지역에서 강무나 사냥 의례를 계속 진행하지만 이후에는 양주에서 관련 의례를 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군사의례와 훈련의 목적을 가졌던 사냥에서 유흥의 성격만 강조했던 연산군조차 양주 지역에서는 관련 행사를 진행했던 기록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이후에는 양주 지역과 강무 또는 사냥과 관련된 기록을 더욱 찾기 어렵습니다. 조선 중기와 후기를 지나면서 양주 지역에서 강무나 사냥 의례가 점차 시행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발표자 선생님께서는 이와 같은 변화의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조선시대~대한제국기 의정부들의 설치와 운영

최주희(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사학전공 교수)

1. 머리말
2. 조선시대 양주지역의 둔전 설치와 녹양벌의 역사지리적 성격
3.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의정부들의 운영과 변화 양상
4. 맺음말

### 1. 머리말 : 양주에서 의정부로

의정부는 조선시대 양주에 속했던 몇 개 면(面)들이 통합되어 하나의 시군으로 성장한 지역이다. 애초에 단일 행정구역으로 존재했던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날 의정부시의 역사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시가 과거에 속해 있었던, 조선시대 양주목의 역사지리적 특성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주지하다시피 양주는 고려 건국 이후 처음 그 명칭이 확인되며, 문종 21년(1067) 삼경제 하에 남경으로 승격되었다. 이후 부침을 겪으며 충렬왕 34년(1308) 한양부로 강등되었다. 조선이 건국되고 태조 3년(1394)이 되는 해 남경 일대가 왕도로 격상되고 양주 일부가 성저십리로 포함되는 변화를 겪었으며, 한양을 제외한 나머지 양주 동북부 지역은 그대로 양주라는 지명하에 단일 행정권으로 편제되었다. 세조 12년(1466)에는 ‘도호부(都護府)’에서 ‘목(牧)’으로 승격되어 19세기 말까지 양주목 체제가 유지되었다.<sup>1)</sup>

1) 양주의 연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이도남, 2004, 『조선시대 양주지방사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요근, 2014, 「도봉구 연혁 기록의 비교 검토와 補正」, 『인문과학연구』 19 ; 이건설, 2020, 「조선시대 경기도 楊州牧 행정구역 명칭의 우리말 명칭 표기의 복원」, 『지명학』 32.

고려 초부터 양주라는 지명이 쓰이기는 했지만, 양주의 지역 정체성이 확립된 것은 조선시대부터였다. 양주는 조선시대 도성에 인접해 국왕을 비롯한 왕실구성원의 왕래가 잦았던 곳이다. 특히 태조 이성계는 양주에 직접 방문해 자신의 묘자리를 정했다고 전해지는데, 태조 사후 건원릉이 양주에 안치된 이래 국왕은 물론 대군·왕자, 공주, 후궁의 능묘군이 다수 조성됨으로써 왕실의 사후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과전법 폐지 이후로는 왕실의 품위유지를 위해 왕실 각 전공과 대군, 왕자, 공·옹주에게 토지가 지급되었는데, 이러한 궁방전 역시 양주에 다수 설치되었다.<sup>2)</sup> 또한 수도 한양과 경기·강원·함경도를 연결하는 경흥대로가 이 지역을 관통함에 따라 선초부터 국왕·관료의 공적 행차가 빈번했으며, 조선후기 들어서는 서울시장의 발달로 함경도 어물상들이 왕래하는 중간교역로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양주는 수도 한양의 동북부에 위치해 기보(畿輔)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서울로의 인적, 물적 자원을 이동시키는 중간기착지로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에 조선시대 양주로의 유입인구가 꾸준히 늘어 15세기 2,726명 수준이었던 인구가 18세기 이후로는 5~6만에 달하게 되었다. 특히 오늘날의 의정부시에 해당하는 시북면과 둔야면은 도성에서 읍치로 연결되는 남북간 교통요지에 위치해 있었다.

그러면 시북면과 둔야면 일대가 의정부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는 무엇일까? 을미개혁 당시까지만 해도 양주목이 양주군[한양부→경기도 양주군]으로 개편되었을 뿐, ‘의정부’라는 명칭은 공식적인 행정지명으로 등장하지 않는다. 의정부가 행정지명으로 사용된 것은 1912년에 간행된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상에 기재된 둔야면 ‘의정부리’에서 처음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sup> 이후 1914년 시북면, 둔야면이 시둔면으로 통합되고, 1922년 양주군청이 의정부리로 이전됨으로써 의정부리는 일개 마을에서 일대의 행정중심지로 부상하였다. 당시 양주군청을 의정부리로 옮긴 데에는 1910년 3월 경원선이 착공되고 이듬해인 1911년 10월 용산~의정부 구간이 설치됨에 따라<sup>4)</sup> 경원선 철도 역사가 의정부리에 자리하게 된 요인이 컸다. 이후 1938년에는 시둔면의 명칭을 양주면으로 개칭하고 1942년 양주면을 다시 의정부읍으로 재편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의정부읍이 의

2)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성책류들 중 양주목 소재 궁방전으로, 명례궁, 용동궁, 어의궁, 명선공주방, 숙빈방, 정빈방, 창의궁, 연잉군 소유 궁방전이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그 운영양상을 검토하기로 하겠다.

3) 당시 양주군 둔야면에서 속한 15개 마을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리, 파발따리, 호동리, 누원리, 장수원리, 본둔야리, 신촌리, 동막동, 추동리, 발이술리, 장자리, 조암동, 탑석리, 양현리, 어룡리가 그것이다.

4) 정태현, 2017, 『한반도 철도의 정치경제학』, 도서출판 선인, 101쪽.

정부시로 승격되었다.<sup>5)</sup>

그러면 조선시대 정1품아문으로 경복궁 궁궐 앞에 위치해 있었던 의정부가 도성 밖 양주 일대의 마을지명과 읍명으로 쓰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조선시대 국공유지라 할 수 있는 둔전 경영에서 그 역사적 연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정부시의 지역 정체성에 근간이 되는 의정부 둔전의 실체와 운영 양상을 조선시대 재정자료와 지도류를 바탕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2. 조선시대 양주지역의 둔전 설치와 녹양벌의 역사지리적 성격

조선왕조는 선초부터 군사방어를 위한 군량미 마련과 국가행정을 위한 경상비 확보를 위해 둔전(屯田)을 경영했다. 이는 고려 말의 둔전제를 개편한 것으로, 선초부터 의정부 주도하에 둔전 설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었으며, 이로써 전국에 둔전이 설치되었다. 그러나 군인·관노를 활용한 둔전 경작은 생산성에 한계가 있었을 뿐더러 일반 농민을 동원하는 경우에도 많은 반발이 야기되었다. 이에 둔전은 치폐를 반복하다가 세조대에 국둔전과 관둔전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면서 제도적 틀을 갖추었으며, 이것이 『경국대전』에 성문화되었다. 국둔전(國屯田)은 전국의 경작 가능한 미개간지에 설치되어 군량을 비축하거나 국용을 보충하는 데 활용되었으며, 관둔전(官屯田)은 지방 군현과 포(浦), 진(鎭) 등 군사, 행정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지방관아 혹은 군사기구의 경비로 쓰였다.<sup>6)</sup>

조선시대 의정부에도 일찍이 둔전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의정부의 둔전 경영에 관한 기록은 명확하지 않다. 반면 선초부터 양주목에 둔전을 설치해 운영한 사례는 다수 확인된다. 선초 의정부 일대의 둔전은 녹양벌에 군사, 행정시설이 들어서면서 이를 운영할 경비 확보 차원에서 설치, 운영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자연 지형으로 볼 때 둔야면과 시북면은 양주 읍치의 남쪽에 위치해 도봉산과 수락산 사이에 넓은 평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시북면은 녹양벌을 포함한 면이며, 둔야면은 시북면의 남쪽에 인접한 면으로서, ‘둔전이 설치된 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 일대에 둔전을 설치한 배경으로는 양주가 경기의 배후 군사기지로서 선초 군용 목장이 설치된 점을 들 수 있다.

태종 6년(1406) 경기도관찰사 전백영의 상언으로, 금주의 목장을 녹양의 교외로 옮기

5) 의정부시사편찬위원회, 2014, 『의정부시사 1-의정부의 생활공간』, 의정부시, 175쪽.

6) 이재룡, 1965, 「조선초기 둔전고」, 『역사학보』 29, 118~120쪽 ; 이경식, 1978, 「조선초기 둔전의 설치와 경영」, 『한국사연구』 21·22, 117~118쪽.

면서 녹양벌에 목장이 운영되기 시작했다.<sup>7)</sup>



<그림1> 조선시대 의정부 행정 범위(○표시 지역, 출전: 『해동지도』)

『세종실록지리지』 상에도 양주는 “땅이 기름져 개간한 토지가 15,190결에 달하며, 여섯 개의 역[청파·노원·영서·평구·구곡·쌍수]과 두 곳의 목장[살곶이·녹양벌] 운영되고 있다.”고 하였다.<sup>8)</sup> 특히 녹양벌은 읍치의 남쪽에 위치해 남북으로 12리에 달하는 들판으로, 중군과 좌군의 말을 함께 놓아 먹인다고 하였다. 경기 방어를 위한 군용 목장으로 선초부터 녹양벌이 활용된 것이다. 세종대에는 이를 ‘갑사장(甲士場)’이라고 했으나, 범의 피해가 많아 성종대 이전에 이미 목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sup>9)</sup> 녹양 목장이 설립될 당시에는 많은 수의 말을 길렀으나, 도봉산과 수락산에 서식하는 범들에게 자주 공격을 당하자 전 곳이 목장으로 말을 옮겨 기르게 되었고, 이로써 녹양벌의 목장 운영이 폐지된 것이다.<sup>10)</sup> 이후 목장이 폐지된 곳에 민간의 농지, 제택 개발과 정부관서의 둔전 개발이 확대되었다. 아래 기사를 살펴보자.

7) 『태종실록』 권11, 태종 6년 4월 7일(정묘).  
 8) 『세종실록지리지』 권148, 경기 양주도호부.  
 9) 『성종실록』 권107, 성종 10년 8월 22일(을사).  
 10) 『연산군일기』 권55, 연산 10년 8월 26일(계미).

사헌부가 차자를 올려 아뢰기를, 『대전속록(大典續錄)』을 상고하건대, 녹양은 곧 강무장이니, 즉 옛날의 원유입니다. 요사이 간사한 백성이 침입하여 개간한 것이 많고 혹은 스스로 점유하여 집을 지은 자도 있어서 기사년에 병조가 옛날 규칙을 들어 거주하는 자와 개간한 자를 금단하였고, 그 고을의 관리로서 규점하지 못한 자도 또한 다스려 죄준 지 겨우 6~7년인데, 지금 몰래 거주하고 몰래 개간한 자가 전일의 배나 됩니다. [중략] 병조가 초계한 바를 보면, 거의 모두가 조관·종척의 하례와 반인입니다. 양주 관아에서도 사사로이 둔전을 만들고 종척·거실들도 제택을 지었으니, 이는 의지하고 믿는 곳이 있어서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소위요, 가난한 백성으로서 생업을 잃고 돌아갈 곳이 없는 자가 아님이 분명합니다.<sup>11)</sup>

위의 기사는 중종 10년(1515) 사헌부가 녹양벌에 백성의 불법적인 개간으로 강무장이 침탈당하는 문제를 논핵한 기사이다. 강무장이 침탈당하게 된 배경에는 연산군대 도성 주변의 사방 100리를 국왕의 사냥터로 지정해 금표를 설치하고 민가를 없애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한 조치가 있었다.<sup>12)</sup> 연산군대 강무장을 무리하게 확대 운영했던 것이다. 그러나 중종반정 이후 강무장을 침탈해 농지를 개간하고 가옥을 지어 살던 자들 역시 가난한 농민들로서 생계를 위해 강무장을 침범한 것은 아니었다. 이들은 조정 관료 혹은 종실 소속 하례와 반인들로서, 중종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논핵에도 이들의 불법적인 토지개간과 제택 점유를 전면 금단하지 않았다.

중종대 이후 강무장을 농지로 개간하거나 가옥을 짓는 이들이 늘어나고 양주 관아에서도 관둔전을 경영하면서 녹양벌 일대의 개발이 확대되었다. 중종 32년(1537) 무렵에는 녹양벌에서 강무가 시행되지 않아 이 일대가 밭으로 경작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sup>13)</sup> 결국 녹양벌 일대의 군사적 기능 역시 중종대 강무의 중단으로 축소되었으며, 이후 녹양벌 일대는 녹양역이 관통하는 교통 요충지이자 민전과 관둔전이 경작되는 농촌마을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다만, 당시 양주목에는 『경국대전』에 규정된 대로 부, 대도호부, 목에 허용된 관둔전 20결 외에 별도로 둔전을 추가로 확보해 운영했던 듯하다. 그러나 조선전기까지 녹양 일대의 둔전 경영이 그다지 활발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인조 3년(1625) 무렵 비변사에서는 녹양벌의 갑사장(甲士場)이 공가(公家)가 소유한 공한지로 토지가 비옥해 광해군대 궁가와 간민들이 불법 점유해 농사를 지어 먹고 있으므로 모두 둔전

11) 『중종실록』 권22, 중종 10년 7월 13일(무술).

12) 『연산군일기』 권55, 연산 10년 8월 7일(갑자).

13) 『중종실록』 권84, 중종 32년 4월 5일(계축).

으로 삼아 산성의 양식을 비축해야 하는 의견을 아꼈다.<sup>14)</sup> 조선전기 국용 목장으로 쓰이던 갑사장이 농지와 민가의 유입으로 인조대까지도 둔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5)</sup>

한편 녹양별은 선초부터 국왕과 왕세자가 매사냥을 구경하거나,<sup>16)</sup> 국왕이 철원의 강무장에서 사냥하고 환궁할 때 머무는 중간 휴식지로 활용되었으며,<sup>17)</sup> 역원이 설치되어 파발 기능을 수행했다. 특히 의정부 일대가 조선시대 서울 동북부 행정 교통망의 중심지 역할을 하게 된 것은 녹양역이 설치되면서부터였다. 녹양역은 태종대부터 그 실체가 확인되는데 태종 15년(1415) 병조에서 각 역의 리수를 계산한 계목을 올릴 때에도 창덕궁 돈화문에서 광시원, 광시원에서 녹양역까지의 리수(里數)와 보수(步數)가 보고되었다.<sup>18)</sup> 녹양역은 포천 안기역과 영평의 양문역에 이어 강원도 은계역에 이르는 9개 역으로 묶여 은계도찰방에 의해 관리되었으며,<sup>19)</sup> 18세기에는 평구역 소속으로 운영되었다. 역에는 역리와 이노가 있었는데, 『여지도서』에 따르면 18세기 녹양역에는 이노가 44명, 비 28명이 속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녹양역의 운영을 위해 『경국대전』 상에 명시된 것처럼 역둔전 12결이 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자료가 분명치 않다.

요컨대, 한양 천도 이후 중앙정부는 양주의 읍치를 북동쪽으로 이전하고 면리를 개편해 양주목으로 편제하였으며, 이 일대에 군사, 행정시설을 배치해 한양 도성과의 접근성을 높이고, 외곽방어기지로서의 성격을 강화해갔다. 이에 선초부터 양주의 녹양별 일대에 목장, 역원 등이 설치, 운영되었으나 성종대 이전 녹양 목장이 폐지된 이후로는 토지개간과 제택 개발이 확대되었다. 녹양역 역시 연산군대 강무장 확대로 기능이 일시 중단된 적이 있으나, 곧 회복되어 임진왜란 이후에도 평구역으로 이어지는 주요 역참으로 기능하였다.<sup>20)</sup> 이러한 양주의 행정 변화 속에 양주목 소속 관둔전과 녹양역 소속 역둔전이 녹양별 일대에 조성되어 경작되었다. 그러면 의정부 소속 둔전은 언제부터 설치되었을까? 현존하는 조선시대 문헌자료 속에서 의정부 둔전에 관한 기록은 매우 단편적이며, 19세기

14) 『승정원일기』 7책, 인조 3년 7월 21일(정묘).

15) 조선후기 누원 일대에 북한산성 소속 둔전으로 갑사둔이 설치된 것도 녹양에 설치된 갑사장의 명칭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16) 『세종실록』 권11, 세종 3년 1월 13일(병자).

17) 『태종실록』 권27, 태종 14년 2월 27일(신미).

18) 『태종실록』 권30, 태종 15년 12월 14일(신축).

19) 『성종실록』 권10, 성종 2년 4월 11일(계축). 세종 6년(1424) 녹양역, 안기역, 양문역을 평구도 찰방이 별도 관리하게 하였다가, 이때에 다시 은계의 찰방이 하나로 관리하도록 했다.

20) 『광해군일기』(중초본) 권50, 광해군 4년 2월 15일(경진).



이후 재정자료에서 일부 확인될 뿐이다. 조선후기 들어 비변사가 국정운영의 주요 회의체로 운영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되기는 했지만, 국가 최고위 관료들이 속한 정1품 아문의 운영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찍부터 둔전이 설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적어도 녹양벌 일대에 의정부라는 지명이 확인되는 시점부터는 둔전이 경작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에 대한 단서로 아래의 『노상추일기』 기사를 살펴보자.

이날 행장을 꾸려야 하는데 빚을 얻을 길이 없어서 이성수령인 척형 정달신에게 70금을 얻어서 행장을 꾸리고, 오후에 이성 수령과 함께 북쪽으로 출발하였다. 친지들이 와서 모여 전별하였다. 병조에서 마패와 초료장을 받고 본조의 역마를 타고 홍인문으로 나아가니, 바로 오시~미시(오전 11시~오후 3시)였다. 이성 수령이 먼저 가고 나도 뒤따라갔는데, 역마라는 것은 백 번 채찍질에 한 걸음을 간다. 나는 남자종이 없어서 이성 수령의 남자종 명재로 하여금 개인 짐말(卜馬)을 끌게 하였다. 30리를 가서 누원점에 도착하니, 이성 수령이 쉬면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성 수령과 동행하니 먼 길을 떠나는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된다. 10리를 가서 의정부점(議政部店)에 도착하여 이성 수령은 서오랑점으로 가고, 나는 역을 찾아 10리를 가서 녹양역에 묵었다. 지나는 길의 수해로 손상된 벼들이 보기에 매우 경악스러웠다.<sup>21)</sup>



<그림2> 의정부점의 위치(○표시지역, 출전 : 『동여도』)

위의 기사는 노상추가 서울에서 행장을 꾸려 홍인문-누원점-의정부점-녹양역으로 이동

21) 『노상추일기』 정조 11년 6월 28일(갑자).

하면서 기록한 것이다. 노상추는 이때 개인 말이 아닌 역마를 빌려 타고 남자 종도 이성 수령의 종을 빌려 데리고 가면서 역마가 백번 채찍질해야 한 걸음 갈 정도로 길들여지지 않은 것을 불평했다. 관원에게 빌려주는 역마의 상태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기사로, 노상추가 서오랑점으로 가지고 앉고 녹양역에 묵은 것 역시 말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노상추가 녹양역에 가기 전에 경유한 지역을 보면 누원점과 의정부점으로 확인된다. 이때의 의정부는 ‘議政府’가 아닌 ‘議政部’로 쓰여있기는 하지만, 府와 部 모두 행정관서를 의미하기 때문에 동일한 단어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당시 기사를 작성한 시점은 정조 11년(1787)에 해당하므로, 적어도 18세기 후반에 의정부라는 명칭이 이 일대 지명으로 사용되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의정부점은 어느 곳을 가리키는 것일까?

〈그림 2〉에서 경흥대로 구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누원점-서오랑점-축석령길로 들어야 한다. 이성 수령은 누원점에서 노상추를 기다리다가 함께 이동하여 의정부점에 도착했고 다시 서오랑점으로 출발했는데 노상추는 녹양역으로 행선지를 달리했다. 따라서 의정부점은 누원점과 녹양역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으면서, 서오랑점으로 향하는 길과 달라야 하는 점을 감안해보면, 위의 그림에서 비석거리와 서오랑점으로 갈라지기 전, ○로 표시된 곳 일대에 의정부점이 자리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의정부점이 위치했다는 것은, 이 일대 의정부와 관련된 시설물이 있었다는 의미가 되므로, 의정부점 인근에 둔전이 경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노상추가 의정부점에서 녹양역을 지나는 길에 수해로 들판의 벼들이 보기에 경악스럽다고 한 점에서도, 둔전으로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이 일대가 농지로 경작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컨대, 조선시대 의정부 둔전 관련 기록이 많지 않은 가운데, 조선전기부터 녹양벌 일대 관둔전과 역둔전이 설치되어 경작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조선후기 의정부점이라는 명칭을 통해 적어도 18세기 후반에는 이 일대 의정부 소속 둔전이 경작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면 의정부 둔전은 실제 어떻게 운영되고 있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조선후기~대한제국기에 작성된 재정자료를 통해 의정부의 둔전 경영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3.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의정부들의 운영과 변화 양상

의정부는 조선시대 백관을 통솔하고 국정의 제반 서무를 다스리며, 국방을 경략하는 최고위 행정기관이다. 임진왜란 당시 임시회의체인 비변사가 설치되었다가 조선후기 국정에 관한 제반 시책을 논의하는 상설기구로 운영되면서 의정부의 기능이 축소되었으나 고종 즉위 후 의정부의 기능을 회복하고 비변사를 의정부 합설기구로 재편하면서 의정부는 선초의 위상을 되찾았다.<sup>22)</sup> 고종대 의정부는 삼정승 각 1인, 좌·우찬성 각 1인, 좌·우참찬 각 1인, 사인 2인, 검상 1인, 공사관 11인, 사록 1인으로 구성된 관서였다.<sup>23)</sup> 이밖에 실무행정을 담당하는 녹사 19인과 서리 26인, 약방 1인, 권두 15명, 사령 26명, 방직 9명, 군사 10명이 속해 있었다.

의정부의 역할은 인사와 관련된 매복(枚卜)·천선(薦選), 재정과 관련된 전부(田賦)·조적(糶糶 : 환곡)·공시(貢市 : 공인·시전상인 관리)·재용, 제향·의례와 관련된 전례(典禮), 관료 행정에 관련된 좌기(坐起)·계차, 외교와 관련된 사대·교린·개시(開市), 군사방어에 관련된 군무·변정(邊政 : 표류인 관리), 형정에 관련된 형옥·법금, 진휼에 관련된 혜휼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sup>24)</sup> 이처럼 국정을 총괄하는 업무를 띤 의정부는 다양한 경로로 관서 경비를 마련했으며, 그 액수도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동전 25,399냥, 쌀 417석, 잡곡 19석, 무명 8동 45필에 달했다. 이는 선혜청에서 급대를 책임지는 종친부[동전 30,000냥, 미 609석 6두, 무명 15동 24필, 포 10동]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수입에 해당하는 응입 항목을 살펴보면, 호조의 세삼가, 납약가로 의정부에 바치는 동전이 5,267냥으로 가장 많고 급대로 지원받는 동전량도 상당했다. 주지하다시피 급대는 균역법 시행 이후 군아문에서 거두는 군포 수를 절반으로 줄인 대신 부족한 경비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일컫는다. 의정부는 재정아문으로부터 2,522냥 가량의 급대를 지원받았다. 한편 약재값과 인삼세, 어세 등을 동전가로 받았으며 의정부에서 상변해야 하는 서리, 군인 등의 역가도 동전으로 수취했다. 지출에 해당하는 용하는 응입액에 맞추어 액수를 산정해 놓았다. 원역의 매달 급료와 의복비, 식비, 봄·가을 행차 시 여비 등에 가장 많은 비용[14,054냥]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으로 대신, 당상, 사록에게 지급하는 삼가로 5,880냥이 쓰였다. 조선전기에는

22) 홍순민, 2015, 「고종 초년 합설 의정부의 직무와 위상」, 『역사와 현실』 95 ; 이경동, 2015, 「합설 의정부의 내부 구조와 공사색(公事色)의 위상」, 『역사와 현실』 95.

23) 『대전회통』 권1 이진, 경관직 의정부.

24) 『육전조례』 권1 이진, 의정부.

의정부 소속 관리에게 현물로 지급되던 삼과 약재를 동전으로 대신 지급하고, 의정부에 입번하는 군인, 서리 역시 고립가만 상납하는 방식으로 변화된 것이다.

용입		용입	
호조 세삼가(稅蔘價)·납약가(臘藥價)	5,267냥	제용감미 이자	52석
혜민서상정전	40냥	<b>계</b>	<b>417석</b>
급대	392냥	해주, 강령둔토세(잡곡)	19석
녹사급대	84냥	<b>계</b>	<b>19석</b>
서리급대	46냥	병조약재가무명	1동 40필
별급대	2,000냥	혜국급대무명	4동 5필
혜민서삼가	691냥	별급대무명	3동
초재가(草材價)	288냥	<b>계</b>	<b>8동 45필</b>
각읍청밀대전·수령시가차사원 고평채 (守令試暇差使員古風債)	444냥	<b>용하</b>	
각사간삭고풍채(各司間朔古風債)	188냥	대신당상사록삼대전	5,880냥
팔도감병수영·송영·심영수납 연례약채 (八道監兵水營·松營·沁營收納年例藥債)	4,800냥	당재초재가(唐材草材價)	
		기별서리, 장무서리 도목등제과 방시권등고립 1년 예하(奇別書 吏·掌務書吏都目等第科榜試 券等雇一年例下)	105냥
부안, 변산산세어세	1,600냥	약방 이송	2,000냥
강령 어세	200냥	불우비이송(不虞備移送)	595냥
수안 약재가	100냥	호조이송세삼가, 현목대전	255냥
이천등읍서리번전	254냥	각향예하	1,722냥
전라좌수영휴번목대전	3,174냥	유치전장조(留置傳掌條)	288냥
영영사군목대전(嶺營射軍木代錢)	500냥	원역삭하·의자·세칸·훈추행행시 응용전	14,054냥
안영예납(安營例納)	300냥	매년 유치전	500냥
포삼별장세전(包蔘別將稅錢)	5,000냥	<b>계</b>	<b>25,399냥</b>
양주둔토세전	30냥	약방이송미	62석
<b>계</b>	<b>25,399냥</b>	원역삭하미	355석
혜민서 고평미	47석	예하잡곡	19석
당재가미	15석	<b>계</b>	<b>417석</b>
서리삭하부족미(書吏朔下不足米)	10석	원역의 의자용으로 쓸 무명	8동 45필
납미	293석	<b>계</b>	<b>8동 45필</b>

<표 1> 19세기 중반 의정부의 세입-세출 구조(\*출전: 『육전조례』 권1 이전, 의정부 )

그런데 위의 표에서 의정부의 수입 가운데 둔세로 거두는 항목이 확인된다. 양주의 둔토세전 30냥과 해주, 강령둔토세가 그것이다. 양주에서는 동전으로, 해주, 강령에서는 잡곡으로 둔세를 거둬 의정부의 경비로 활용하고 있었다. 의정부의 둔전 수입은 <표 1>로 봤을 때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같은 1푼아문으로 5상사에 들어가는 충훈부의 경우 둔세에서 거두는 동전만 3,559냥이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의정부의 재정운영에서 둔세 의존율은 상당히 낮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관서	둔전 결수	관서	둔전 결수
의정부	69결 96부 1속	봉상시	205결 32부 7속
종친부	792결 4부 3속	사용원	258결 78부 4속
둔녕부	400결	사포서	2,009결 26부 3속
충훈부	1,414결 17부 9속	내의원	9결 34부 1속
기로서	1,561결 75부	상의원	74결 1부 5속
균역청	23,007결 44부 9속	내접시	3결
훈련도감	3,330결 30부 1속	선공감	31결 64부 7속
금위영	18결 25부 3속	빙고	16결 98부 5속
어영청	7결 86부 2속	장원서	111결 6부 9속
총융청	194결 74부 9속	전생서	204결 51부 7속
성균관	531결 10부 1속	사축서	51결 45부 7속
사학	39결 19부 1속	혜민서	3결 41부 6속
사복시	11,687결 7부	내농포	72결 24부 9속
계		계	46,104결 97부 9속

<표 2> 1808년 각 아문 둔전 면세결(\*출전 : 『만기요람』)

위의 <표 2>는 1808년에 작성된 『만기요람』상의 각아문 둔전 면세결을 정리한 것이다. 19세기 초반 균아문의 둔전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균역청이 압도적인 규모로 둔전 결수를 많이 확보한 가운데, 훈련도감과 충훈부에서 그 다음으로 둔전을 많이 보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의정부의 경우는 당시 총 46,104결 97부가량의 둔전 총액 중 69결 96부 정도(0.15%)의 둔전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데 대한제국기에 들어서면 의정부의 둔전 결수는 이보다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아래 <표 3>은 현존하는 『내장원소관양주군의정부둔전답조사정도성책(內藏院所管楊州郡議政府屯田畚調查定賭成冊)』(奎20709)에 기록된 의정부 둔전 결수와 두락수, 도조액을 정리한 것이다. 광무 5년(1901) 의정부 둔전결수는 총 18결 78부 1속에 불과해 1808년 69결 96부 1속으로 파악됐던 결수의 26%에 미치는 규모로 축소되었다.

구분	토지구모	지대액	비고
경작논 총 규모	45석 11두 5승락		
실제 경작논 규모 (환산 결수)	43석 16두 5승락 15결 23부 7속	조 164석 19두 5승	1석 15두락 구진
실제 경작밭 규모 (환산 결수)	54일 1식경 3결 54부 4속	조 12석 12두 5승 총결수 18결 78부 1속	2부 4속 회룡사 전좌지
지대총액(도조)	-	조 177석 12두	15석 마름 비용
실지대총액(도조)	-	조 162석 12두	
산 세	-	잡목 20태	손언동(산직)

<표 3> 대한제국기 의정부둔전답의 운영양상

주지하다시피 국공유지로서 정부관서에서 경비로 활용되었던 둔토·역토는 1894년 갑오개혁을 기점으로 탁지아문에 이속되었다가 궁내부, 탁지부로 이관되었으며, 대한제국

수립 이후 1899년부터는 고종황제의 직속 재정기구인 내장원으로 옮겨졌다.<sup>25)</sup> 위의 의정부둔전답 역시 처음에는 의정부에서 둔세를 수취하던 전답이었지만, 대한제국기 내장원 소속으로 이관되어 둔전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이다. 경작 둔전은 토지 결수로는 논과 밭을 합해 앞서 언급한 대로 18결 78부 1속으로 확인되지만, 밭보다는 논이 절대적으로 많아서 논에서 164석 19두 가량의 지대를, 밭에서는 12석 12두 정도를 도조로 수취했다. 이와 더불어 산직인 손언동을 통해 산세(山稅)로 잡목 20짐을 바치게 했다. 이에 내장원에서 거두는 의정부둔의 도조액은 177석 12두 정도였으나, 도조를 관리하는 마름에게 15석을 급료로 지급하면서 실제 의정부둔에서 거둔 내장원 수입은 162석 12두 정도였다.

이러한 둔세 수취 규모는 20세기 초 일정 수준으로 유지된 듯하다. 1902년 양주군수 흥태윤이 내장원경에 보고한 의정부둔의 도조 실수를 살펴보면(〈표 4〉 참조), 160석 12두, 잡목[柴] 20짐 정도였다.<sup>26)</sup>

둔토	도조액	역토	도조액
양향둔	조 38석 1두 8승, 전 62냥, 밭 30두	연서역	조 45석 6두 2승
갑사둔	전 1,387냥 6전	쌍수역	조 30석 4두 2승
총융둔	전 631냥 6전 화율세전(火栗稅錢) 320냥	평구역	조 78석 1두 9승
충훈둔	조 311석 7두, 시세전(柴稅錢) 17냥	벽제역	3석 17두
관둔	조 6석, 전 7냥 8전 5푼	녹양역	조 78석 13두 5승
의정부둔	조 160석 12두, 잡목 20짐	구곡역	34석 19두 4승 5홉
아차산	밭 10두	-	-
해동촌산	조 14두, 밭 15두	-	-
별리산	밭 8두	-	-
계	조 507석 17두 5홉, 전 2,426냥 5푼, 잡목 20짐, 밭 33두		

<표 4> 1902년 양주군 내 역둔토 현황과 지대액

당시 양주군에는 연서역·쌍수역·평구역·벽제역·녹양역·구곡역의 6곳 소속 역토와 갑사둔·의정부둔·양향둔·총융둔·충훈부둔·관둔전이 소재하고 있었다. 이들에서 수취하는 도조액은 총 507석 17두의 벼와 2,426냥의 동전, 잡목 20짐, 밭 33두 정도였다. 의정부둔의 도조액은 양주군의 역둔토 도조액 중 벼의 비중만 놓고 봤을 때 31.6%에 달하는 양이었으며 충훈둔에 비하면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한편 녹양역에서 보유한 역토는 군

25) 이에 대해서는 박성준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박성준, 1998, 「대한제국기 내장원의 역둔토 경영의 성격」, 『조선시대사학보』 6).

26) 『경기도각군보고』 5, 광무 6년 11월 2일, 보고서 제11호 참조.

내 다른 역토에 다른 역들에 비해 도조액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 녹양역이 경기동북부 역원들 중에서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문제는 역둔토를 경작하는 농민들의 거납(拒納)으로 인해 도조액이 내장원에서 제때 수취되지 않는 데 있었다. 당해 5월 경기봉세관 이태하가 내장원경에 올린 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양주 의정부둔 도조의 태반이 수취되지 않은 것은 둔전민들 중 호강세력이 납세를 거부하며 바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거납을 주도한 인문들의 명단까지 조사해 보고했다.<sup>27)</sup>

아래 <표 5>는 둔전 도조액을 바치지 않은 각호를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표에 제시된 미납 각호는 앞서 <표 3>의 『내장원소관양주군의정부둔전답조사정도성책(內藏院所管楊州郡議政府屯田畚調查定賭成冊)』(奎20709) 상에 이름이 기재된 자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1901년 내장원에서 양주에 소재한 의정부둔을 전수조사하고 도조액을 일일이 확정해 성책해둔 것은 내장원에서 의정부둔의 도조를 받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둔전민들이 도조 납부를 거부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납 명단	미납 도조액	비고
정천경	17석 10두	성책 수록
함계룡·이소용·배영석	9석 2두	-
한봉용	5석 16두	내장원소관양주군의정부둔전답조사정도성책(이하 성책) 수록
이용문	8석 16두	성책 수록
홍정봉	6두	성책 수록
지친실	15두	성책 수록
진인보	4석	성책 수록
홍오공	1석 8두	성책 수록
허학이	6두 5승	성책 수록
손숙안	3두	성책 수록
이정만	3두 5승	성책 수록

<표 5> 1902년 의정부둔 도조 미납 각호

이들이 도조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서는 1902년 5월 26일 이들이 양주군수 홍태윤에게 올린 소장예을 통해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의정부둔민들은 자작농으로 척박한 토지를 수백년에 걸쳐 상속, 매매를 통해 경작해오다가 무술년(1898) 선희궁에서 의정부둔에 매결에 4석씩 도조를 받고자 했기 때문에 감히 거역할 수 없어 부득이 도조를 납부했는데, 뜻밖에 작년 가을에 봉세관이 상답은 2두락마다 6두씩, 중답은 4두씩, 하답은 2두

27) 『경기도각군보고』 4, 광무 6년 5월 19일, 보고 제19호 참조.

씩 도조를 납부하도록 했을 뿐 아니라 결전(結錢)도 함께 바치게 하므로 과세가 매우 부담하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도조와 결세를 한꺼번에 거두면 전답의 주인인 둔전민은 토지를 버리는 것만 같지 않아 경작이 폐해져 진황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인근의 갑사 둔토는 매 두락에 2두씩을 동전으로 환산해 도조로 바치는데, 같은 국유지[公土]에서 바치는 도조와 세가 다를 수 없으므로 갑사둔의 예대로 해달라는 호소였다. 그러나 내장원에서 토지의 비옥도를 따져 도조를 정한 것이기 때문에 갑사둔과 비교해 도조액을 낮춰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sup>28)</sup>

여기서 한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무술년에 선희궁에서 의정부둔토에 도조를 받은 대목이다. 의정부 소속 둔전의 도조를 당시 선희궁에서 수취한 배경에는 고종 7년(1870) 선희궁이 육상궁 내별묘에 합병되고 선희궁 소속 토지도 호조로 귀속되었던 상황과 관련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선희궁은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의 제사궁으로, 영조 40년(1764) 영빈 이씨 사망 당시에는 의열묘였다가 정조 12년(1788) 선희궁으로 추증되었다. 그런데 1897년 선희궁을 다시 이진해 종전대로 회복시켰고, 선희궁 토지도 다시 지급하도록 했으나 갑오승총 이후 국방전을 혁파했기 때문에 선희궁 소속 둔토를 다시 지급하기 위해 의정부에 속했던 둔전의 도조를 이관해준 것이다. 이때 당시 선희궁에 이관된 토지는 경기 14군을 비롯해 전국 8도에 산재해 있었다.<sup>29)</sup> 이 토지들이 1901년 다시 내장원으로 환속되면서 도조액을 달리 적용하자 위와 같은 조세저항이 발생한 것이다. 당시 내장원에서 선희궁 소관 둔전을 환속시킨 것은 내장원에서 봉세관을 파견해 도조를 수취하는데, 선희궁 역시 감관을 파견해 도조를 수취하면서 수세상의 혼란을 야기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정부둔민들은 내장원에서 적용한 도조액과 결세 징수에 더 큰 불만을 호소하고 있었다. 그러면 1901년 당시 내장원에 귀속된 의정부둔전이 어느 곳에 위치했으며, 둔전에 어떠한 방식으로 도조를 적용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28) 『경기도각군보고』 5, 광무 6년 5월 26일. 보고서 2호.

29) 박성준, 앞의 논문, 166~170쪽 참조.



토지 등급	결	租	작인
中田 二日耕	十二畝	八斗	孫一奉
中田 一日耕	八畝	五斗	洪性茂
中田 一日耕	八畝	五斗	李同文
中田 一日耕	四畝	三斗	李士有
中田 八日耕	十四畝四束	一石三斗	張德成
下田 一日耕	六畝	四斗	同人
中田 五畝	九畝	一石	李令奉
中田 五畝	七畝三束	十斗	卓性玄
上田 五畝	二畝三束	五斗	金中星

<그림3> 『내장원소관양주군의정부둔전답조사정도성책』(奎20709)

1902년 둔전민들이 거납을 하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선희궁에서 관리하던 의정부둔을 내장원에서 환수조치하면서 <그림 3>의 성책을 작성하고 도조역을 새롭게 적용하면서 발생한 것이었다. <그림 3>에서 보듯이 내장원에서는 의정부둔을 상·중·하답으로 구분하고 토지마다 작인들에게 부과할 도조역을 명시해 놓았다. <부표 1>은 이를 전수 목록 화한 것으로 당시 의정부둔전을 경작한 둔민들의 실체와 이들에게 부여된 도조역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정부둔이 실제 어디에 소재했는지도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의정부(점) 이외에 독주천, 전좌동, 호곡전평, 직곡, 빙고현, 회룡동 등에 의정부둔이 경작되고 있었다. 그러나 의정부둔민들의 요구가 내장원에 수용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2년 후에 발생했다.

1904년 10월 26일, 양주군수 홍태윤의 보고를 접한 경기도관찰사 이근교가 외부대신 이하영에게 올린 보고 내용을 살펴보면, 러일전쟁기 의정부점과 인근 둔전 일대가 병참기지로 활용된 상황을 엿볼 수 있다. 러일전쟁기 일본군이 용산에 주둔기지를 조성하고 러시아와의 육지전을 위해 북상하면서 의정부점을 경유해간 것이다. 일본군은 처음에는 병사를 주둔시키기 위해 의정부점사(議政府店舍)를 빌려 쓰고자 했는데, 공간이 협소하다고 판단해 10월 초 의정부점 부근에 있는 민전에 터를 닦아 장교가 머물 사무실과 군수 물자를 보관할 고사(庫舍), 마구간을 새로 건축하고자 양주군수 홍태윤에게 이를 통보해 왔

다는 것이다.

당시 양주군수는 외국인이 내국 영토에 표목을 세워 건물을 짓는 것은 조약장정에 없는 것이라고 하여 막아섰으나, 일본군은 군사업무에 관계되는 일이고, 군대를 철수할 때 건물도 마땅히 철거할 것이고 사용한 토지는 세전(貫錢)을 지급할 것이라고 하면서 일본인 공장을 데려다 빠르게 건물을 짓고자 하기에 부득이 일본병사가 점유하는 토지와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 보고한다고 알려왔다.<sup>30)</sup> 여기서 홍태윤이 언급한 조약장정은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조선의 토지를 군용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지용과 일본공사 하야시 사이에 교환된 한일의정서(韓日議定書, 1904. 2)를 의미한다. 한일의정서에 따라 중앙에서는 일본군에 군사용 토지를 제공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의정부점사는 물론 인근 둔전도 빌려쓰도록 허용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외부대신 이하영 역시 군사에 관계되는 일이므로 금단하기 어려우나 둔전에 불법 난입한 자들은 해관에 즉시 알려 상황을 심문하도록 했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조치로 1904년 당시 의정부둔전과 오참판택 산소 인근에 일본군 사무실 6칸, 고사 16칸, 채전, 마구간 22칸이 조성되었다. 특히 고사 16칸과 채전은 <부표 1>의 첫줄에 확인되는 의정부둔민 한봉용의 토지를 차대한 것이었다.



<그림> 의정부점과 의정부의 주요 행정지명

30) 『경기도래거안』 3, 광무 8년 10월 26일. 보고서 제36호.

러일전쟁 이후 의정부둔전은 다른 역둔토들과 마찬가지로 통감부로 귀속되었으며, 합일병합 후로는 1920년에 반포된 「역둔토특별처분령」에 따라 동양척식주식회사를 통해 일반인에게 불하되는 역사적인 경로를 밟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이 부분까지 세밀하게 다루지 못하였기에 통감부 이후 일제시기에 걸친 의정부둔전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보완하도록 하겠다.

#### 4. 맺음말

지금까지 조선시대~대한제국기에 걸쳐 현 의정부시에 소재했던 조선시대 둔전 운영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조선시대 의정부 일대는 양주목에 소재한 경기북부의 교통요지로서 녹양역과 녹양목장이 운영될 만큼, 군사·행정면에서도 위상이 높았던 지역이다. 녹양역을 유지하기 위한 역둔전과 양주목을 운영하기 위한 관둔전이 설치된 것은 법전과 관찬사료를 통해 확인되는 바이지만, 조선전기 이래 의정부 둔전이 설치된 정황은 사료 상에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다. 19세기 법전류와 재정자료에서 의정부 관할 둔전이 확인되기는 하지만, 다른 관서의 둔전 규모에 비하면 그 액수가 크지 않고 둔세도 많지 않은 편이다.

그럼에도 의정부라는 명칭이 19세기 이후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구심점이 된 데에는 일제시기 경원선 역사가 놓이는 자리 인근에 조선후기 의정부점이 자리함으로써, 이 곳을 지나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랜 기간 지명이 남아있었던 점을 들 수 있겠다. 또한 농민들 역시 대대로 의정부 둔토를 경작함에 따라 이곳을 자신들의 생활 터전으로 인식해옴으로써 의정부 둔토를 지역을 대표하는 용어로 인식하고 사용해 온 것이 아닐까 한다. 의정부 둔전을 설치한 것은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른 것이었지만, 의정부라는 지명을 지역 정체성으로 이어온 것은 결국 의정부 둔전을 삶의 기반으로 인식했던 지역민들이었다고 할 것이다.

<부표 1> 내장원소관 양주군의정부분전답조사정도성책(광무5년 11월 일)

자호	토지 규모	결수	지대액	작인
의정부	응자전 중전 3일경	24부	18두	한봉용
	중전 1일경	8부	6두	유백돌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이산이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동 인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허전봉
	중답 7두락	12부 6속	1석 8두	권명학
	중답 1석 2두락	39부 6속	4석 8두	김환득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허학이
	하전 일일경	6부	4두	동 인
	중답 11두락	19부 10속?	2석 4두	홍성무
	하전 2일경	12부	8두	손일봉
	중전 1일경	8부	6두	홍성무
	중전 1일경	8부	6두	이용문
	중전 반일경	4부	3두	이사유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배덕성
	하전 1일경	6부	4두	동 인
	중답 5두락	9부	1석	이금봉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탁성현
	상답 1두락	2부 3속	6두	김중성
	상답 5두락	11부 5속	1석 10두	이수홍
	상답 8두락	18부 4속	2석 8두	한봉용
	중답 5두락	9부	1석	차성어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김선녀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이사유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이정방
	하답 5두락	6부 5속	10두	이유정
	상답 10두락	23부	3석	허학이
	상답 4두락	9부 2속	1석 4두	신군서
	상답 6두락	13부 8속	1석 16두	이산이
	상답 10두락	23부	3석	유백돌
	상답 8두락	18부 4속	2석 8두	이산이
	상답 3두락	6부 9속	18두	허학봉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한봉용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배덕성
	상답 5두락	11부 5속	1석 10두	이학용
	상답 3두락	6부 9속	18두	홍성무
	상답 3두락	6부 9속	18두	허학봉
	상답 15두락	34부 5속	4석 10두	한중갑
	상답 12두락	27부 6속	3석 12두	이화춘
	상답 4두락	9부 3속	1석 4두	이정만
	상답 1석 1두락	48부 3속	6석 6두	김환득
	중답 1석 1두락	37부 8속	4석 4두	동 인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동 인
	중답 5두락	9부	1석	한봉용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배덕성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함양손
	상답 4두락	9부 2속	1석 4두	이산이
상답 6두락	13부 8속	1석 16두	한백?	
상답 5두락	11부 5속	1석 10두	이정만	
상답 7두락	16부 1속	2석 2두	한봉용	
상답 9두락	20부 7속	2석 14두	이산이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김중성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곽복돌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이정만
	중답 2두락	3부 6속	8두	정천경
	중답 2두락	3부 6속	8두	이금봉
	중답 10두락	18부	2석	현수만
	하답 7두락	9부 1속	14두	김선녀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이정만
	상답 8두	18부 4속	2석 8두	함순용
	상답 7두락	16부 1속	2석 2두	동 인
	상답 10두락	23부	3석	최학신
	상답 6두락	23부 8속	1석 16두	이정만
	상답 7두락	16부 1속	2석 2두	최학신
	상답 16두락	36부 8속	4석 16두	김오득
	중답 2두락	5부 4속	12두	동 인
	중답 12두락	21부 6속	2석 8두	이경인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이용문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이화춘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홍정봉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이용문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이용성
	중답 5두락	9부	1석	김용원
	중답 1석 4두락	43부 1속	4석 16두	동 인
	하답 5두락	6부 5속	10두	한봉용
	하답 1두락	1부 3속	2두	손성옥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함양손
	하답 5두락	6부 5속	10두	이수근
	하전 1일경	1부 5속	1두	동 인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손성옥
	하전 1석경	1부 5속	1두	동 인
	중답 5두락	9부	1석	동 인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강순철
	중답 7두락	12부 6속	1석 8두	최학신
	중답 10두락	18부	2석	정천경
	중답 6두락	18부 8속	1석 4두	이용근
	중답 2두락	3부 6속	8두	이용문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천만겸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박성탁
독주천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김수보
	중답 5두락	9부	1석	이송심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1두	천여장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박귀돌
	중답 3두락	5부 4속	12두	이정삼
	중답 2두락	3부 6속	8두	김명근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황덕근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함양손
	하답 5두락	6부 5속	10두	박문여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함원근
	하전 2일경	3부	2두	박주?
전좌동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현균일
	하답 5두락	7속	1두	한명순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박순서
	하전 1일경	1부 5속	1두	지천실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동 인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오경천
	하전 1일경	1부 5속	1두	함원근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지천실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강씨동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임만보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김윤식
	하하답 5두락	5부	5두	지천실
	하전 반일경	3부	2두	동 인
	하답 5두락	구진	-	강씨동
	하하답 4두락	4부	4두	김환득
	하하답 6두락	6부	6두	박성철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함원근
	하답 14두락	18부 2속	1석 8두	정천경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이윤여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함양손
	중답 10두락	18부	2석	정천경
	중답 8두락	14부 4속	1석 12두	임만보
	중답 6두락	10부 8속	1석 4두	이윤여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한인수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함원근
	하답 1석락	26부	2석	정천경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홍정봉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이정만
	하답 1두 5승락	2부	3두	진인보
	하답 4두락	5부 2속	8두	동 인
	하전 1석경	1부 5속	1두	김환득
	하전 3두락	구진		
	하전 1석경	1부 5속	1두	이윤여
	하답 5두락	구진		
	하답 7두락	9부 1속	14두	이정만
	중답 4두락	7부 2속	16두	임만보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정천경
	하답 6두락	7부 8속	12두	함양손
	하답 7두락	9부 1속	2석 16두	이윤여
	하답 4두락	구진		
	하답 4두락	구진		
	하답 5두락	구진		
	하답 15두락	19부 5속	1석 10두	진인보
	중전 일일반경	12부	9두	최학신
	중전 일일반경	12부	9두	이정만
	중전 일일경	8부	6두	함순영
	중전 일일반경	12부	9두	이재만
	하전 일일경	6부	4두	강경실
	하전 2일경	12부	8두	강순철
	하전 반일경	3부	2두	황만철
	하전 일일경	6부	4두	문성삼
	하전 일일경	6부	4두	강경실
	하전 일일경	6부	도조 4두	이황용
	하전 일일경	6부	4두	손명화
	한전 일일경	6부	4두	이윤여
	중전반일경	4부	3두	손숙안
	하전 일일경	6부	4두	이경인
	하전이일경	12부	8두	천산옥
	하전일일경	6부	4두	이춘경
	하전 반일경	3부	2두	김사범
	하답 6두락	구진		
	하하답 2두락	2부	도조 2두	강순철

호곡	하전 2일경	12부	8두	이정만
	하전 1일경	6부	4두	함치명
	하전 1일경	6부	4두	이화춘
	하전 반일경	3부	2두	강귀성
	하전 반일경	3부	2두	권태진
	하전 반일경	3부	2두	강순철
	하전 3일경	18부	12두	진인보
	하전 2일경	12부	8두	강순철
	하답 7두락	도조 9부 1속	14두	진인보
	하답 7두락	9부 1속	14두	한봉용
	하전 2일경	12부	8두	홍정봉
	하답 2두락	2부 6속	4두	동 인
	하답 1석락	26부	2석	진인보
	중전 반일경	4부	3두	박시오
	중전 1식경	2부	1두 5승	이정봉
	중전 1식경	2부	1두 5승	천만겸
	하답 3두락	3부 9속	6두	홍오공
	중답 7두락	12부 6속	1석 8두	동 인
	중전 3일경	24부	18두	이윤지(동입)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이봉선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천만겸
	하전 1식경	1부 5속	1두	이정만
	하하답 4두락	4부	4두	동 인
	하답 3두락	구진		홍양손
	하하답 3두락	3부	3두	천만겸
	하전 반일경	3부	2두	동 인
	하하답 3두락	3부	3두	동 인
	하하답 2두 5승락	2부 5속	2두 5승	김오득
	하전 반일경	3부	2두	김환득
	중전 1식경	2부	1두 5승	김학봉
	하하답 18두락	18부	18두	김환득
	하전 2일경	12부	8두	동 인
	하전 3식경	4부 5속	3두	이화춘
빙고현	하답 8두락	10부 4속	16두락	이용문
회룡동	중전 1일경	8부	6두	김윤식(동입)

## 「조선시대~대한제국기 의정부둔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송양섭(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본 발표문은 조선시대~대한제국기 의정부에서 운영한 양주 소재 관둔전의 성격을 검토한 후, 이것이 20세기 들어 지역을 대표하는 행정지명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역사지리적 관점으로 분석한 글입니다.

조선시대 국가적 필요성에 의해 설치된 둔전이 오늘날 의정부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을 통시적으로 검토한 본 발표문은, 앞으로 의정부시사의 내용을 풍부히할 수 있을 뿐아니라, 조선시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의정부의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데에도 큰 의미를 지닐 듯합니다. 이에 발표 후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보완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 1. 조선시대 의정부 둔전 경영 실태

발표문 2장은 조선시대 의정부 둔전 경영에 관한 내용인데, 주로 19세기 재정자료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어 조선 전·후기 의정부의 위상이 달라지는 상황과 그에 따른 재정운영의 변화, 둔전 설치의 문제가 유기적으로 설명되지 않은 듯합니다. 사료 상의 한계가 있더라도 향후 조선전-후기 둔전제도의 변화 속에서 의정부 둔전의 성격을 설명해주는 내용이 보완되기를 바랍니다.

### 2. 의정부 둔전경영과 둔전민의 존재양상

의정부 둔전 경영 과정에서 의정부와 둔전민과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합니다. 대한제국기 내장원에 보고하는 문서 일부에서 둔전민들의 거납(拒納) 양상이 일부 확인되기는 하지만, 조선시대 의정부 둔전민의 존재 양상과 의정부와의 관계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보완되어야 조선후기~대한제국기 의정부 둔전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인식이 명확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 3. 녹양역의 운영과 역둔토 운영에 대한 실체 보완 필요

현재 의정부시의 명칭은 발표문에서처럼 의정부 둔전이 설치된 지역을 중심으로 의정부리가 설치되고, 이후 읍명과 시명으로 승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의정부시 행정구역 중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시설은 경기 동북부를 관통하는 녹양역이었기 때문에, 둔전 외에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녹양역의 운영과 위상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 근현대 의정부 문학의 흐름과 특징

- 의정부의 지역정체성과, 내러티브로서의 '의정부 문학'을 중심으로 -

김준현(서울사이버대학교 웹·문예창작학과 교수)

1. 서론
2. 심상지리 지역으로서의 '의정부'
3. 근대문학 소재/배경으로서의 의정부 - 교통과 방어
4. 근대문학 소재/배경으로서의 의정부  
- 서울 근교의 농촌/농촌 계몽 운동
5. 문학 커뮤니티로서의 의정부 - 의정부 스튜디오와 의정부 정체성
6. 의정부의 지역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7. 결론

### 1. 서론

이 글은 '지역 내러티브'의 개념을 활용하여 '내러티브로서의 의정부 문학'을 규명/정립하고, 이에 따라 내러티브로서 구성된 지역 문학이 지역 정체성의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 지역을 설정하고, 그 지역의 문학을 연구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 한 국가의 문학이 지리적으로 어떤 특색을 가지고 변주되는지를 살피기 위함일 수도 있고, 사료로서의 문학 작품을 발굴하고 정리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거기에 더해,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혹은 생산하기 위해서 지역의 문학을 연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문학’을 예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정말 순수한 지적 호기심에 의해 한국의 여러 문학적 현상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한국문학’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거기에 천착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국문학’이라는 개념을 만들고 접근하는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문학을 통해 드러난)한국은 어떤 나라인가’, ‘(문학을 통해 본) 한국문화는 어떤 특성을 가지는가’라는, 요컨대 ‘한국의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 ‘한국문학’을 바라보는 경우도 그에 못지않은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한국문학’의 특성은 실증적으로 ‘증명/규명’되기도 하지만, 또 ‘선언’되기도 한다. 민족이 상상의 공동체이듯이, 한국문학은 규명된 것이기도 하지만 상상된 것이기도 하고, 또 발명된 것이기도 하다. ‘한국문학’의 경우가 이러하듯이, ‘지역문학’의 경우도 같은 원리가 적용될 수 있다.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볼 ‘의정부 문학’의 경우도, ‘의정부 문학을 규명한다’는 맥락에서 연구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또 ‘의정부 문학을 고안한다’는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지역정체성 사업’은 각급 지방 단체나 지역 기반 학술 단체에서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사업의 일종이다. 이에 따라 ‘지역정체성’을 키워드로 한 연구 성과도 활발하게 축적되고 있는 상황이다.<sup>1)</sup> 학술 분야에 따라 ‘지역정체성’에 접근하는 관점도 다양하고, 또 그것을 논하는 방법론도 다양하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이 있음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지역정체성이 귀납적이고 객관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연역적이면서, 또 일부는 주관적으로 ‘선언’되는 것이라고 보는 경향이다.

한국문학을 대표하는 키워드로 ‘문화적 혼종성’을 들 것인지, ‘한(恨)’을 들 것인지를 결정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완전히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혼종성’으로 접근했을 때와 ‘한’으로 접근했을 때 한국문학의 특성은 매우 다르게 규명된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 문학의 특성을 바탕으로 구성되는 ‘한국적인 것’ 또한 달라진다. 지역정

1) ‘지역정체성’을 키워드로 한 연구 성과는 다양한 학술 분야에서 제출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연구 성과들이 이 글의 맥락에서 참고할 만하다.

최원희,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한국지리학회지 6권 2호, 2017. 8. /서태열, 「세계화,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43권 4호, 2004. 12. / 김유신,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 지역정체성의 재생산」,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11. / 송영민,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환경 디자인의 방향 연구」, 『한국 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5), 2012. 10. / 이태원, 김원동, 「지역정체성의 다차원성과 결정요인 검증: 강원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5(2), 2016. 12.

체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답’이 정해져 있고 연구를 통해서 그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그 답이 고안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럿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의 키워드 중 하나인 ‘내러티브’는 사실 연구가 갖고 있는 이러한 이중적 성격을 논의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문화에 대한 연구는, 사실 규명이라는 객관적인 행위와 창작/상상이라는 주관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문화내러티브(cultural narrative)’라는 개념은 문화 현상을 설명하고 규명하는 줄 알았던 문화 연구가, 사실 문화의 특성을 창조하는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깨달음을 포함하고 있다. ‘The american dream is the classic sample of a successful cultural narrative(아메리칸 드림은 성공적인 문화내러티브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sup>2)</sup>라는 문장은 문화내러티브가 무엇인지에 대한 가장 명확한 예시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분명히 대중들에 의해 존재한다고 인정받은 사회문화적 현상이다. 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객관적/과학적으로 규명된 것이 아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진다’, ‘한국인은 한의 민족이다’와 같은 명제들도, 원리상으로는 ‘아메리칸 드림’과 같다. 객관적/과학적으로 규명될 수 없는 현상들이지만, 대중들에 의해 ‘참’으로 받아들여지는 명제들인 것이다. 이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명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례를 허용한다. 즉,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한 사례’가 다수 발견되어도 그 명제가 폐기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서로 모순되는 명제들도 어렵지 않게 양립한다. ‘사람의 성공은 운에 달렸다’라는 명제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어렵지 않게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공존한다.

이 연구의 주제인 ‘내러티브로서의 지역문학’은 지금까지의 설명으로 독자와 그 의미가 공유될 수 있을 것이다. ‘내러티브로서의 의정부 문학’은 그 훌륭한 사례일 것이다. 문화 현상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 사례들이 다양하게 집대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러티브적 지역정체성은 여러 사례들이 수집되고, 그 이후에 일반화를 거쳐 논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보면, 각 지역들이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내러티브로서의 지역문학’을 정립하고 활용하는 사례들은 좀 더 다양하게, 진취적으로 수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의정부 문학’이 어떻게 ‘정립’되거나 ‘선언’될 수 있고, 또 어떻게 의정부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피도록 하겠다. 이러한 작업은

---

2) Giseline Kuipers, *Cultural narratives and their social supports, or: sociology as a team sport*,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70(3), 2019. 6.

‘의정부’와 ‘의정부 문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도 기억할 수 있지만, 더 나아가 ‘내러티브 적 지역문학’, ‘문화내러티브로서의 지역정체성’이라는 일반 현상을 구체적으로 살피는 일로서도 학술적인 기여를 수행할 수 있다.

## 2. 심상지리<sup>3)</sup> 지역으로서의 ‘의정부’

지역 내러티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심상지리’라는 개념을 누락할 수는 없다. 사람들에게 인식된 것이 실재하는 것만큼 중요하다고 보는 문화내러티브 개념에서, 지역이란 사실상 실재 지역이라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인식된 지역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북을 예로 들면, ‘성북의 문화’라는 대상을 호명했을 때, 그 ‘성북’은 ‘성북구’의 ‘성북’이나 ‘성북동’의 ‘성북’과는 외연이 일치하지 않는 기호이다. 행정구역은 매우 객관적인 지리적 기준이기는 하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구역이 사람들의 인식에 ‘성북’이라는 기호와 그 외연이 자리잡을 때의 행정구역이나 지리적 구획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음은 물론이다. 심상지리상의 ‘성북’은 행정구역상의 ‘성북’이라는 기호와 구별되는 것이다.

의정부 역시 마찬가지이다. ‘의정부’를 행정구역이 아니라 심상지리상의 구역으로 접근할 때, 수락산과 그 근방은 경계선상에 위치한다. 수락산 주변은 행정구역상으로 서울시에 포함된 지역이 있고, 또 의정부시에 포함된 지역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에 포함된 지역은 ‘의정부’의 기억을 되살리거나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누락되어야 할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구태여 자세하게 논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의정부’는 조선왕조 정치기관이었던 의정부에서 운영하던 둔전(屯田), 즉 ‘의정부둔’에서 지명이 유래되었다는 설이 유력하다.<sup>4)</sup> 이 의정부둔을 바탕으로 ‘의정부리(里)’라는 행정구역의 명칭이 생겼고, ‘의정부읍(邑)’, ‘의정부시(市)’ 등의 명칭들이 등장했다. 굳이 ‘명칭’을 강조하는 것은, 언중이 ‘의정부’라는 지역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이 지역의

3) ‘심상지리’는 국문학 뿐 아니라 여러 분과학문에서 적극적으로 쓰인 지 오래 된 낱익은 용어가 되었다. 이 개념이 사용된 논문을 소개하자면 매우 다수를 거론할 수밖에 없겠지만, 이 글에서 다루는 주제와 연관성이 깊은 논의 중 ‘심상지리’를 포함한 것을 소개하자면 다음을 거명할 수 있다.

문재원, 「한국문학에서 로컬리티 연구 성과와 과제」, 『우리말글 제76집』, 2018. 3., 박진한, 「조감도를 통해 살펴 본 1920-30년대 인천의 심상지리와 시가지 계획」, 『도시연구』, 17집, 2017. 3. 권혁래, 「문화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51, 2016. 7., 김동우, 「문자로서의 도시, 도시 시학의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 10.

4) 이외에는 이성계가 함흥에서 한양으로 돌아오는 중에 현 의정부 지역에서 대신들과 국정 논의를 했다 하여 그 일대를 (임시)‘의정부’로 불렀다는 설이 존재한다.

전부, 혹은 일부를 지칭했던 명칭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1466년 양주군 시북면과 둔야면 → 1914년 시둔면, 1938년 양주면 → 1942년 의정부읍 → 1963년 의정부시 등의 행정구역 변화를 겪었지만, ‘시북면’, ‘시둔면’, ‘둔야면’, ‘양주면’ 등의 행정구역 명칭이 의정부에 대한 대중/언중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바는 뚜렷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신 ‘의정부리’의 명칭을 따서 명명된 1911년 ‘의정부역(驛)’의 개설은 ‘의정부’라는 지역을 대중들에게 알리고 인식의 대상이 되게 한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역’은 많은 사람이 지나치거나 정거하면서 역 주변의 지역을 해당 명칭으로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행정구역이 아니면서도 ‘인식’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의정부역은 의정부라는 심상 지리를 형성하는 데 더 큰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다. 지역에 ‘의정부리’, ‘의정부읍’이라는 명칭이 붙었다고 해서, 그 사실이 사람들에게 곧바로 알려지는 원인이 되지는 않는다. 모종의 계기를 통해 지역명이 퍼져야, 대중들의 인식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한다. 해당 지역에서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거나, 주목받는 인물이 그 지역 출신이나 거주자이거나, 혹은 ‘역’과 같은 방문객이 많아지는 시설이 생기는 일들이 그 사례들일 것이다.

의정부역은 1911년 10월 15일에 개통된 경원선의 주요 역이었다. 1912년 연천역까지 경원선이 연장되기 이전까지는, 용산역과 의정부역이 각각 반대 방향 종점 역할을 했다. 따라서 초기 경원선의 종점이었던 의정부역은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당초 계획된 종점인 원산역까지 연결되어 경원선이 완전히 작동되는 것은 1914년으로, 의정부역은 경원선 개통 초기에는 종점으로서, 또 이후에는 서울의 관문에 해당하는 역으로서 중요한 위상을 점하였다.

경원선의 이용률도 활발하였고, 이에 따라 의정부역 또한 명소로 떠올라서 ‘의정부’라는 지명이 대중들에게 확실히 각인되기 시작한다. 대중의 인식을 기록하는 사료로서의 문학작품에서 이런 사례가 확인된다면, 이는 더 이상 가설의 단계에 머무르지 않게 된다.

“차가 의정부역에를 당도랴말나하야 일 괴혹한 운편이 북천에서 기하더니 전광이 섬섬하고 뇌성이 은은한 양점이 우두둑 청풍이 슬슬 취래하니 인인쓰오록이 다 시원하여 일시에 땀이 없서진다.”<sup>5)</sup>와 같이, 조선일보가 창간된 1920년부터 의정부역이 문학작품(수필)에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일필생, 「북행잡식」, 조선일보, 1920. 8. 10.

이와 더불어 “그리하여 철마가 청량리를 지나 정거장 셋(창동-의정부-덕정)을 지나서 동두천역에 와 닿았을 때 명순이는 철원서 남행하여 서울을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sup>6)</sup>, “서울서 떠날 때에 의정부까지 차표를 사 가지고 내리니 아직 오정도 못되어 해가 만호니 태호는 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전 어치 딱 다섯 개를 사먹고 위선 철원 가는 길을 물어 떠났습니다.”<sup>7)</sup>와 같이 1930년대 소설/수필 등 문학작품에서는 ‘의정부역’을 배경으로 쓰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1920년대~1930년대에는 다양한 문학작품<sup>8)</sup>에서 ‘의정부’가 등장하는데, ‘의정부 역과 그 근방’의 의미로 호명된다는 사실이 파악된다. 이는 행정구역의 구획 말고도 실제 지역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는 데에는 다른 계기가 개입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이기도 하다.

‘수락산’은 심상지리로서의 ‘의정부’라는 지역이 행정구역상의 의정부와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 현재 수락산은 의정부시, 남양주시, 서울시의 경계에 위치해 있는 산이다. 따라서 수락산의 영역은 이 세 도시에 나뉘어서 소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의 기준으로 접근하면, ‘수락산 관련 설화’라고 해도 그것이 수락산의 남쪽(서울)인지, 북쪽(의정부)인지를 따져서 그것이 의정부의 문학적 유산이 맞는지 확인해야 하는 웃지 못할 일이 연출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접근 방식인지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한다. 역사적으로 서울의 동북쪽 지역은 ‘양주’라는 지역으로 포괄되어 있었다. 현재 수락산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는 서울 지역은 노원구는 1963년 서울시 성북구로 구획되기 전까지는 양주군 노해면에 해당하였다(이는 의정부시가 1963년 양주군에서 분리된 것과 시기를 같이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수락산에 대한 문화적/문학적 기록을 복원하는 것은 최소한 1963년 이전 시기까지는 양주군, 혹은 의정부읍에 관련된 일이라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성북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는데, 현재는 동대문구 신설동에 소속된 일대 중 일부가 예전에는 성북구에 소속되었던 사실이 있다. 성북구의 역사적 사실들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현재

6) 이정호 작, 연작소년소설 「소년기수」, 조선일보, 1930. 11. 22.

7) 소년소설, 「새 주인」 23화, 조선일보, 1934. 5. 2.

8) 박태원은 의정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발표한 이들 중 가장 유명한 작가 중 한 명일 것이다. “그러나 차가 의정부를 지났을 때 그는 우연히 기차 시간표를 다시 끄내어 보고 오전 열한 시 사십오 분이면 바루 건영이 남매가 해주역에서 토성 가는 차를 탈 시간이라고- 그러한 사실을 새로이 발견하여 내자 그는 다시 한번 가만한 한숨을 쉬었다.”(박태원, 「우맹」, 93, 1938. 7. 29.)와 같이, 사이비종교 단체와 관련된 사회 스캔들을 다루어 당시 시사(時事)를 톺아내려 묘사했던 「우맹」과 같은 작품에서는 의정부 뿐 아니라 여러 지역과 연관된 당시 사람들의 일상사가 기록되어 있다.



성북구의 행정 권역만을 따르게 되면 역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결국 이런 맥락에서도 ‘심상지리’로서의 지역에 접근하는 일은 더욱 그 중요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소요산에서 다시 내룡을 밟아 내려왔다. 양주땅이 되었다. 수락산이 보이는 불암산에 병풍친 듯 둘러섰다. 맞은 편을 바라보니, 도봉 망월의 붓끝같은 문필봉이 천하절경을 벌여 놓으면서, 잇따라 삼각연봉이 우람하게 남성적인 장쾌한 멋을 뽐내어 푸른하늘을 찢어 있고 쉬구 우이동 앞에는 넓고 넓은 광야가 흰칠하게 벌어져 있다. 무학은 주춤 산마루에 앉아 본다.<sup>9)</sup>

인용문은 박종화의 역사소설 『세종대왕』의 일부이다. 수락산, 망월사, 도봉, 우이동 등 현재에도 활발하게 사용되는 지명을 여럿 포함하고 있다. 이 지명에 해당하는 지역들은 현재 서울시와 의정부시로 나누어져 소속되어 있지만, 소설의 배경이 되는 조선 초기에는 모두 동일성을 갖춘 지역으로 인식된 것은 물론이다.

이와 같이 심상지리적 지역으로서의 ‘의정부’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것은, 행정구역과 같은 객관적인 기준이나 구획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다. 행정구역이 아니지만 대중 접근성이 높은 ‘역’과 같은 시설, 그리고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다르지만 대중의 인식에서 ‘의정부 지역’으로 승인되었던 시설이나 위치 등이 그것이다.

결국 지역정체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이런 ‘인식된 지역’, 즉 심상지리로서의 지역이라면, 이 지역 인식을 구체적으로 재구하고 복원하기 위해서는 문학 작품에 사료로서 접근하는 일이 필요하다. 지역정체성의 규명과 제시에 문학연구가 기여한다면, 그 지역이 심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사실부터 명확히 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 3. 근대문학 소재/배경으로서의 의정부 - 교통과 방어

의정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은 몇 가지로 유형화하여 접근할 수 있다. 우선, 근대 이전(주로 조선 시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역사소설과 창작 당시의 ‘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현대소설로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에 더해 내용상으로 유형화를 시도한다면, 서울과 동북지역을 잇는 의정부의 면모, 서울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로서 의정부의 면모, 또 서울 근교의 농지로서 브나로드/농촌 계몽운동의 무대로서 의정부의 면모를 드러내는 유형들을 분류해 내는 것이 가능하다.

9) 박종화, 『세종대왕』 184화, 《조선일보》, 1969. 10. 2.

먼저 현대에 창작된 역사소설부터 살펴보도록 한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등장하는 의정부는 물론 역사적인 공간으로서의 ‘의정부’이다. 역사소설에 등장하는 의정부는 ‘의정부’라는 명칭을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 대신, 심상지리적 의정부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명들을 통해 그것이 의정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는 한양의 동북쪽 입구에 해당했다. 일제강점기에 한성 사람이 강원도나 함경도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경원선을 이용했던 것처럼, 조선 시대에도 의정부에 해당하는 지역은 한양을 함경도, 강원도와 이어주는 관문이자 경로였다.

따라서 조선시대 역사에서 의정부가 갖는 위상은 낮지 않다. ‘통로’로서의 위상이 높았음은 물론이고, 서울을 지키는 ‘관문’으로서의 위상 또한 널리 확산되어 있었다. 역사적으로도 의정부에서 중요한 전투가 일어났던 것이 사실이다. 임진왜란부터 한국전쟁에 이르기까지, 수도인 한양/서울이 중요 방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수도의 동북쪽에 위치한 주요 관문에 해당하는 의정부 지역에서 수도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투가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다.

태조, 태종, 세종 등 한양을 수도로 삼고 수도로 안정시켰던 조선왕조 초기의 군주들이 등장하는 역사적 일화에 의정부가 자주 거론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의정부’라는 지명의 유래 중에 태조 이성계의 함흥차사 일화가 얽혀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박종화의 역사소설 『세종대왕』에서 무학대사가 한양 천도를 돕는 과정을 그리면서 수락산 일대에서의 일화를 넣는 것, 그리고 이광수의 『단종애사』에서 세조에게 왕위를 찬탈당한 단종이 강원도로 귀양가는 길에 현재 의정부 지역에서 일화를 겪는 것 등, 초기 조선 왕조를 다루는 역사소설의 서사에서 의정부는 자주 호명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물론 이는 한양/서울이 조선의 수도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가지는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의정부가 갖고 있는 서울로 가는 ‘통로’, 서울의 ‘관문’, 혹은 ‘입구’의 성격 또한 반영되어 있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이런 교통의 요지로서의 위상과 동전의 양면처럼 존재하는 또 하나의 위상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위상일 것이다. 박종화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역사소설을 지속적으로 창작한 작가<sup>10)</sup>인데, 1956년 발표한 『임진왜란』에서는 사명당 유정대사

10) 박종화는 서울 중구 출생으로 의정부에서 살았던 기록은 없지만, 조선을 시대적 배경으로 한 자신의 수많은 역사소설에서 의정부 지역을 꾸준히 등장시켰던 작가이다. ‘의정부 문학’과 그 문인들의 외연을 ‘의정부 출신/거주 문인’보다 넓힌다면, 박종화는 의정부 문학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거론되어야 할 문인 중 한 명일

의 활약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유정이 이끄는 조선 의병이 명나라 군대와 연합하여 양주 수락산 골짜기로 왜병을 유인하게 대첩(大捷)을 거둔 역사적 사실이 이 작품에서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다. 서울을 점령한 왜병이 수락산에 매복한 의병/승병을 경계해 도성 밖 약탈을 멈추어야 했던 것 역시 해당 작품에서 묘사된 사명당 유정대사의 전공이다.

이처럼 서울의 관문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지정학적 위치가 의정부라는 지역을 역사적 전쟁/전투의 중요 배경으로서 문학 작품에 등장하도록 만들었던 바, 수도 서울을 중심으로 벌어졌던 또 하나의 큰 전쟁인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한 작품에서도 의정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해당 맥락에서 의정부를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으로 등장시킨 문인 중 한 명이 염상섭이다. “더구나 의정부가 탈환되고 국회에서도 수도 사수를 결정한 터인즉 대포 소리가 이편에서 쏘는 것이고 설마 서울이 오늘 내일로 어떠랴 하는 안심과 신뢰로 누구나 꿈쩍하려 들지는 않았던 것이다.”<sup>11)</sup>, “의정부 쪽으로 끌려가다가는 별판에서 폭격을 맞아 몰살을 하였느니 수색정거장에서는 기차에 잔뜩 실은 채 송두리째 불바다 속에서 타죽었느니 하는 소문이 떠도는 것을 들을 때마다 몸서리가 쳐지는 것이지마는, 저렇게 심한 폭격에 살아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sup>12)</sup>와 같은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의정부는 장편소설 『취우』에서 한국전쟁의 전황을 파악하는 바로미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등장하곤 한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염상섭은 일반인들의 일상을 묘파하는 작품에 따라 『취우』에서도 한국전쟁기 시민들의 일상이 무너져 가는 상황, 또 피난민이 되어야 하는 상황을 톺아내며 묘사하고 있다. 염상섭과 함께 한국전쟁과 피난민의 삶을 그린 주요섭 또한 자신의 작품에서 의정부 출신 인물을 등장시킨 바 있다.<sup>13)</sup>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 한국사의 주요 전쟁에서 의정부가 배경으로 적극 등장하는 것은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의정부는 조선/대한민국의 수도를 방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전략적 역할을 점하는 지역이며, 역으로 한국전쟁을 다룬 문학작품에서 보이듯이 의정부 지역이 함락되면 서울이 위협에 빠지고 대규모의 피난민이 발생하는 등 사건이 일어날 여지가 커진다.

---

것이다.

11) 염상섭, 『취우』 3, 《조선일보》, 1952. 7. 20.

12) 염상섭, 『취우』 120, 《조선일보》, 1952. 12. 5.

13) “최응석 노인은 의정부에 살고 있다가 괴뢰군 포탄이 의정부 주변을 불바다로 만들던 밤에 생화장을 당하고 역시 팔순이 넘고 노망들린 안해와 맏아들 육만(59세)의 가족은 서울시내로 피난을 왔다.” (주요섭, 『길』 106화, 《동아일보》, 1953. 6. 5.)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적극적인 스토리텔링을 가미하면 ‘호국’이라는 키워드로 의정부의 정체성을 호명하는 것도 가능하다. ‘호국로’는 현재에는 고양시 행주IC부터 강원도 용암삼거리까지 이르는 도로이지만, 1970년대에는 의정부역에서부터 포천을 거쳐 철원까지 이어지는 43번 국도의 명칭이었다. 이 도로 명칭의 유래가 수도 서울을 휴전선 이북으로부터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들을 무형의 선분으로 연결하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sup>14)</sup>

#### 4. 근대문학 소재/배경으로서의 의정부 - 서울 근교의 농촌/농촌 계몽 운동

의정부의 지역정체성이 문학 작품에 반영된 또 다른 유형은, ‘서울 근교의 농촌 지역으로서의 의정부’이다. 의정부 출신 문인은 적지만,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의정부 지역의 중요성은 20세기 초기부터 급속도로 커지기 시작했다. 수락산과 도봉산 사이의 남북으로 길게 뻗은 평지 지역이 서울의 관문 역할을 한 것에서 출발하여, 경원선의 설치로 교통요지로서의 위상을 본격적으로 확보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20세기 초반 지식인들의 관심사가 변화하는 맥락에서 의정부라는 지역이 주목받는 계기가 하나 더 발생한다.

사실 이 장에서 언급할 문학 작품은 문학사적 위상이 매우 높은 작가들에 의해 창작된 경향이 강하다. 이는 1920년대와 30년대, 한국의 근현대 문학이 정립되는 과정에서 당대의 지식인이자 문인들의 관심사가 의정부나 안산 등 서울 근교의 농촌 지역에 쏠렸던 맥락과 관련이 있다.

현재 의정부는 농촌의 이미지를 강하게 갖고 있는 지역은 아니다. 하지만 ‘의정부’라는 지역명의 유래가 조선 시대 관청이었던 의정부의 둔전이 있었다는 사실과 연관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대 초기에 서울(당시 경성)을 구심점으로 한 교통망의 발달에 따라, 경성에서 접근성이 가장 높은 농촌 지역의 성격을 갖게 됨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의정부를 이 맥락에서 자신의 작품 배경으로 적극 활용한 작가 중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농촌소설가’로 알려진 이근영이다. 이근영은 1938년 《동아일보》에 연재했던 장편소설 《제3노예》에서 의정부를 주요한 공간적 배경으로 활용한다. 1930년대 후반에 매우 비판적인 시선으로 전시 동원체제 하의 농민들의 비관적 삶을 퓌진하게 묘사하던 이근영이었

14) 이는 수도방어와 국토방어의 맥락에서 의정부가 미군부대를 유치한 것과는 연결지어 스토리텔링을 시도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으나, 연재 장편인 이 작품의 경우 그런 비판적인 내용은 희석되고 젊은 지식인의 애육 문제로 통속적인 전개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은 이근영이 비판적으로 농촌을 묘파하는 방식을 계승하고 있다. “허일의 소유가 된 땅은 의정부에서 북편으로 밤나무 밭을 지나 제법 높직한 산을 넘어 있었다.”<sup>15)</sup>, “어제 의정부 타작을 가보기도 했지만 그놈의 논만 밟고 살겠드라고요? 흥년만 들으면 아조 짚뽕이구. 일 년내 그러케 죽을 고생을 하고도 올같은 해는 한 마지기에 세 말 차지밖에 안되는걸요.”<sup>16)</sup>

대중문학 장르라고 여겨지는 연재장편소설은 ‘대중 인식의 기록’, ‘일상사의 기록’의 관점에서 보면 (준)사료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인용된 대목들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밤나무 밭’<sup>17)</sup>과 같이 의정부에 대한 대중 인식/일상을 드러내는 표현들이 포함된다. 당대 의정부 주민들이나 방문객들의 구체적인 경험은 대중 장편소설들에서 ‘발굴’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sup>18)</sup>

의정부를 ‘서울 근교의 농촌’의 이미지로 작품에서 채용한 또 다른 작가는 춘원 이광수이다. 『무정』으로 한국 근대문학에서 가장 큰 족적을 찍어서 명실공히 시대를 대표하는 소설가가 된 이광수는, 1920년대에 들어와서 농촌 계몽을 주된 관심사로 둔다. 농촌의 근대화와 발전이 식민지 조선 전체의 발전, 나아가 독립의 근간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광수는 작가이자 활동가로서의 면모를 발휘한다. 다분히 논설적인 주제를 자신의 작품에 담는 이광수는 1932년작 『흙』에서 농촌계몽의 필요성을 강하게 설파한 바 있다. 「애육의 피안」은 1936년작으로, 『흙』에서 보여주었던 농촌근대화의 의지는 후면으로 물러나고, 당시의 군상을 다양하게 묘파하는 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는 수락산, 망월사 일대가 등장하는데, 이곳은 서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풍광이 좋은 휴양지이면서, 또 농지가 펼쳐져 있어 지식인/작가가 ‘농촌 근대화 활동’의 꿈을 펼칠 수 있으면서

15) 이근영, 『제삼노예』 44화, 《동아일보》, 1938. 4. 15.

16) 이근영, 『제삼노예』 81화, 《동아일보》, 1938. 6. 9.

17) 의정부는 밤나무가 많기로 유명하여, 의정부를 다룬 여러 문학 작품에서 ‘밤’, ‘밤나무’가 등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륙썩을 지고 의정부에 이르러 거기 밤을 가득 지고 오든지 아니면 신작로를 걸어 망우리 고개에 이르러 새빨강게 물들은 단풍 한 가지를 꺾어 들고 돌아오리라.”(임학수, 「가을(수필)」, 1939. 8. 26.)와 같은 작품에서도 의정부의 풍경에서 밤을 강조하고 있다.

18)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중 장편소설은 그 문학적 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않아 여전히 많은 작품이 연구의 대상으로 적극 호명되지 못했다. 대중 장편소설을 연구대상으로 접근하는 것에는 그 작업을 필요로 하는 관점이 요구된다. 작품 자체의 가치를 재평가하는 것도 그 관점 중 하나겠지만, 지역정체성이나 지역의 인식/일상성을 재구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관점이 될 수 있다.

도 또 이면에서는 휴양을 즐길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드러난다.

이와 같이, 당시의 장편서사에서는 의정부가 가지고 있는 지정학적 특성, 지리적 특성이 당대 사람들의 삶과 일상에 녹아 있다. ‘서울로부터의 높은 접근성’이라는 특성, 또 전통적으로 ‘둔전’으로서 기능했다는 사실은 그저 독립적인 역사적 기록으로만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져서 의정부 주민들과 방문객들, 그리고 의정부를 바라보는 대중들의 인식을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5. 문학 커뮤니티로서의 의정부 - 의정부 스튜디오와 의정부 정체성

OSMU(one source multi use)는 최근 문화산업에서 각광을 받는 키워드가 되었지만, 사실 근대 장편소설이 정립되고, 또 근대적 영화관이 수입되는 1920년대~1930년대에도 OSMU는 일반적인 문화적 현상이었다. ‘전통단절론’에 대한 대항 담론이 많이 제출되어 한국 근대문학/문화의 성립에서 서양 문물의 도입이 절대적인 원인이 되었다고만 보는 시각의 한계는 많이 공유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양 문물의 도입이 근대 예술작품의 미디어 - 양식 - 형식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큰 역할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정되지는 않았다. 근대문학과 근대영화의 형성과 발전은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이 양자 사이의 거리는 우리의 기억만큼 멀지 않았다.

‘의정부 스튜디오’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 근대 문학사와 영화사의 상호성을 복원하려고 할 때 주의 깊게 호명되어야 할 역사적 사실이다.

이미 제작 플랜이 섰다는 성봉영화원에서는 ‘제작에는 먼저 제작에 필요한 기구부터’라는 의미에서 의정부 용연동에 ‘토키 스튜디오’를 건축 중인데, 이의 전 기능을 발휘하여 <군용열차>를 <나그네>의 ‘스태프’ 그대로 영목중길 감독, 왕평, 문예봉 주연 등 1월 하순, 2월 상순부터 착수하리라고 한다.<sup>19)</sup>

<조영>에서는 의정부촬영소의 완성과 아울러 새로운 인재를 모아 의외의 큰 수확을 볼 모양으로 세상의 주목을 끌고 있거니와 방금 안석영 감독의 신작을 준비 중 배역에 있어서 여배우를 찾기에 부심하던 바<sup>20)</sup>

두 건의 인용문은 ‘의정부 제작소’, ‘의정부 촬영소’ 등의 명칭을 통해 ‘의정부 영화 스튜디오’가 1938년부터 1940년에 걸쳐 완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신문기사들이다. 그리고,

19) 기업가의 대진출로 다산(多産)될 조선영화 - 외화(外畵)금수(禁輸)와 국산장려가 호기회], 《동아일보》, 1938. 1. 3.

20) 「조영신 작의 스타로 - 신진 안영옥 양 등장」, 《동아일보》, 1940. 6. 1.

첫 번째 인용문을 통해 의정부 스튜디오가 당시로서는 첨단이었던 ‘토키(유성영화)’<sup>21)</sup> 제작 장비와 환경을 갖추었다는 사실 또한 파악할 수 있다.

구태여 논증할 필요 없이, 1940년 전후의 시기를 기준으로 할 때 (유성)영화는 첨단의 문화산업이었다. 서울 근교의 평지였던 의정부는 근대화 이전에는 ‘서울 근교의 농촌’의 이미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었으나, 1940년을 전후해서부터는 그 접근성과 지형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잠재성이 외면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다분히 문학적인 현상이기도 하다.

앞서 인용문에서 본 것처럼, ‘외화금수’ 조치가 발동되고 나서 영화계는 호재를 맞이하게 된다. 당시 태평양전쟁을 일으켰던 일제가 서양 문물의 수입을 금지하게 되고, 이는 일본은 물론 조선의 영화인들이 자신들이 직접 제작하는 영화의 시장 크기를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여겨졌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영화를 만들기 위한 ‘원천서사’에 대한 제작자들의 수요가 일순간에 높아졌는데, 이는 21세기 문화산업 전반에서 나타나는 ‘OSMU 열풍’과 궤를 같이 하는 면이 있다.

박영희 씨 원작 안석영 씨 감독으로써 이미 촬영을 전부 끝마치고 방금 의정부 스튜디오에서 녹음중에 있는 동아영화제작소의 「지원병」은 늦어도 오는 삼월 중순경에는 개봉할 예정으로서...<sup>22)</sup>

인용문은 박영희의 원작 소설을 영화화한 「지원병」의 개봉소식이다. 당시 장편소설을 영화화하는 움직임은 매우 활발했던 것으로 보이며, 「지원병」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된 것이다. 굳이 ‘21세기에 문학의 외연을 넓게 보는 시각이 우세해졌다’는 전제를 동원하지 않아도, 의정부 스튜디오를 중심으로 한 ‘토키’ 영화시장의 성장은 당대 문학 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끼치는 사건이었던 셈이다.

인용된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기사라는 양식은 충분한 구체성을 담지 못하는 못한다. 예컨대 당대 의정부 스튜디오의 풍경이 어떠했고, 또 실제로 스태프들의 생활/일상은 어땠으며, 당시 문인(文人)들이 의정부 스튜디오에 대해 가지는 인식은 어떠했는지를 기사를 통해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바로 이 지점에서 ‘의정부를 배경으로 한 문학작품’의 가치는 다시 한번 강조될 수 있

21) 당시 ‘토키’에 대한 인식은 “안중화, 「조선문화이십년(16) 영화편(5) - 토키 제작의 초보」(《동아일보》, 1940. 4. 28.)와 같은 신문기사의 제목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파악할 수 있다.

22) 「본보 연재 중의 장편소설 「대지의 아들」의 영화화」, 《조선일보》, 1940. 2. 22.

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구체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일상사를 기록하는 데에 있어서는 연재 장편소설과 같은 장편서사/연재서사가 큰 힘을 발휘하곤 한다.

이런 맥락에서 김연수가 《경향신문》에 1949년에 연재했던 장편소설 『파도』는 중요하게 언급될 수 있다.

차가 의정부 역에 닿자 일행은 와아~들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다. 역 앞을 나서니, 선발대가 미리 와서 준비해 놓은 트럭이 기다리고 있었다.<sup>23)</sup>

집에 있어도 별로 할일이 없으니까, 노단은 아침만 먹으면 사무실로 나왔다. 사무실로 나와도 모두 의정부로 로케를 떠나고 아무도 없으니까 심심하기가 짝이 없었다.<sup>24)</sup>

인용문은 『파도』의 일부이다. 이 작품은 의정부 스튜디오로 ‘로케이션’을 떠나는 영화사에 소속된 인물들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으며, (인용문에서는 ‘의정부’ 지명이 언급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했으나) 의정부 스튜디오를 둘러싼 여러 가지 풍경과 일상이 묘사되어 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1949년 현재 의정부 스튜디오가 활발하게 작동하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확인할 수 있기도 하다.

국내 초기의 ‘토키’ 스튜디오로서의 의정부 스튜디오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은 충분히 복원되지 않았다. 이 스튜디오에 대해 남아 있는 공식 기록들도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실을 통해 상기할 수 있는 사실은, 문혀 있는 공식 기록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질감 있는 역사의 복원을 위해서는 주목되지 않았던 대중문화 작품들을 자세하게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이다.

## 6. 의정부의 지역 정체성과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은 지역정체성을 포함한 모든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이러한 사례는 신화와 서사시가 민족/국가의 정체성을 담당했던 것부터 찾아진다. 스토리텔링은, 언뜻 보면 파편화되어 있고 병치(並置)되어 있는 각각의 사실들을 맥락화하여 연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철마가 달리고 싶은대로 달리고 평화로에 통일의 깃발이 휘날리는 날 관광버스 속에는 금강산의 절경으로 이야기 꽃이 필 것이고 원산행 열차의 기적과 함께 의정부의 새 장이 막을 올릴 것이다.<sup>25)</sup>

23) 김연수, 『파도』 130화, 《경향신문》, 1949. 9. 6.

24) 김연수, 『파도』 144, 《경향신문》, 1949. 9. 21.



인용문은 경원선의 주요 역으로 대중들에게 인식되었던 ‘의정부’라는 심상지리 상의 지역을 강조하고 있다. 이 인용문 자체가 스토리텔링의 단적인 사례가 될 수 있는데, ‘경원선’과 ‘통일’은 각각 따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하나의 맥락에 의해 매우 밀접한 사실들로 연결될 수 있는 것이다.

서울과 한반도 서북부를 잇는 경의선, 그리고 서울과 한반도 동북부를 잇는 경원선은, ‘철마는 달리고 싶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분단/통일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스토리텔링 재료(모티프/상징)로 기능해 왔다. 인용문의 필자는 ‘의정부’라는 지역에 대해 쓰는 수필에서, 의정부의 구체적인 풍경보다는 이러한 스토리텔링적 기호들에 주목한 셈이다.

지역정체성을 설정하고 강화하는 일은,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원선이 단순히 과거에 온전히 존재했던 역사적인 유물로 의미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통일’의 염원이라는 당대의 문화적 코드를 적극 반영하는 상관물로 쓰일 수 있는 것처럼, 의정부의 지역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상관물들을 찾아내어 서로 의미로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의정부를 담고 있는 문학작품들은 그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언뜻 보면 관계 없어 보이는 ‘의정부 스튜디오’와 ‘의정부 캠프 홀링위터’는 ‘서양 문물의 창구’로서 의정부 지역이 가지는 지리적 특성과 연결되어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의정부 캠프 홀링위터’는 ‘사명대사 유정’과 연결되어 ‘호국’과 ‘수도방어’라는 맥락으로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의정부 스튜디오’, ‘의정부 역’은 독립적인 대상이지만, 스토리텔링에 포함되면 수많은 의미를 창출할 수 있는 조합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근현대 의정부문학은, 이러한 스토리텔링과 문화 내러티브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국’, ‘평화’, ‘발전’, ‘첨단’ 등의 잠재적인 의정부 지역 정체성의 키워드를 암시하는 기능 또한 하고 있다.

## 7. 결론

본 연구는 지역정체성과 관련하여 ‘내러티브로서의 지역문학’ 정립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그 사례로 ‘의정부 문학’의 성격을 규명/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한 국가나 공

25) 김양주, 「강산만리 - 고향따라 정따라 토박이세이」31, 1979. 1. 24.

동체, 그리고 지역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귀납적이고 객관적인 '규명'과 함께 연역적이고 주관적인 '선언'이 함께 개입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인물의 행적이거나, 실증적으로 규명된 사건보다도 지역과 관련된 문학 작품이 지역정체성 형성에 더 크게 기여하기도 한다.

지역정체성 발굴/창조의 맥락에서 문학작품을 살피는 것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 1) 지역정체성에서의 '지역'은 물리적 지역과 심상지리적 지역 개념을 포함한다. 의정부의 경우로 예시하면, '행정구역상의 의정부'와 '대중/언중들이 의정부 지역에 대한 인식'을 포함한다. 2) 실제 사실이 아닌 '인식'을 기록하는 데 있어서는 '문학작품'은 대안 없는 사료(史料)의 역할을 한다. 문학작품은 허구가 개입하기 때문에 객관성을 완전히 확보하기 어렵지만, 대중 인식을 객관적이고도 적극적으로 기록한 자료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으로만 존재한다. 문학작품이 인식론적 사료로서의 역할을 한 것은 패관(裨官) 문학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생각보다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다.

지역문학을 이러한 '인식적 사료'로 접근하면, '지역 출생 문인'의 문학적 행적은 지역문학의 작은 일부가 된다. 의정부를 예로 들면, 의정부 출신 문인은 아니지만 이광수, 염상섭, 심훈, 이근영, 이문열, 박영희 등 많은 문인들이 의정부를 소재/배경으로 작품에서 활용하면서 의정부의 지역정체성을 개발할 수 있는 실마리를 조성해 놓았다. 20세기 한국문학에서 의정부에 대한 '인식적 사료'로서 기능할 수 있는 문학 활동을 한 작가는 30명 이상이다. 이들의 작품에서 의정부의 지역 정체성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이 반영되어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는데, 1) 의정부는 역사적으로 호국(護國)의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 2) 의정부가 서울(한양)과 한반도 북부, 그리고 강원도를 이어주는 교통 허브이자 서울의 입구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 3) 의정부가 서울 근교의 농지이자 휴양지로서 농촌계몽운동, 서울의 확장 등 다양한 역사적 맥락에서 독자적 지역성을 가진 요지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 4) '의정부 스튜디오'와 '미군기지'로 인식되는 첨단 근대/외국 문물의 중요한 창구로 인식되어 왔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

## [참고문헌]

- 최원희, 「청양군의 지역정체성」, 한국지리학회지 6권 2호, 2017. 8.
- 서태열, 「세계화, 국가정체성, 그리고 지역정체성과 사회과교육」, 『사회과교육』 43권 4호, 2004. 12.
- 김유신, 「근대이행기 울산 병영 지역정체성의 재생산」, 『지방사와 지방문화』 17(2), 2014. 11.
- 송영민, 「지역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환경 디자인의 방향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1(5), 2012. 10.
- 이태원, 김원동, 「지역정체성의 다차원성과 결정요인 검증: 강원도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55(2), 2016. 12.
- 권혁래, 「문화지리학 연구의 정체성과 연구방법론 고찰」, 『우리문학연구』 51, 2016. 7.
- 김동우, 「문자로서의 도시, 도시 시학의 가능성」, 『한국근대문학연구』 24, 2011. 10.
- 김영미, 「박완서 문학과 ‘개성’의 로컬리티」, 『한국현대문학연구』 67, 2022. 8.
- 김준현, 「지역내러티브와 심상지리 - 지역의 관광/특성화의 인식론적 양상과 관련하여」, 『돈암어문학』 34집, 2018.
- 김창원, 「〈관동별곡〉의 관찰사 여정과 심상지리」, 『한국시가연구』 27권, 2009.
- 문재원, 「지역문학관의 재현과 로컬리티」, 『인문과학연구』 36집, 2013. 3.
- 문재원, 「한국문학에서 로컬리티 연구 성과와 과제」, 『우리말글』 제76집, 2018. 3.
- 박진한, 「조감도를 통해 살펴 본 1920~30년대 인천의 심상지리와 시가지 계획」, 『도시연구』, 17집, 2017.
- 유승미, 「식민지 경성, 그 상실된 장소의 소설적 재현 - 염상섭의 「광분」을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1, 2013.
- 임옥규, 「남북 역사소설에 형상화된 ‘간도’의 심상지리적 인식과 심상지도」, 『현대북한연구』 16집 2권, 2013.
- 장동석, 「1930년대 한국 현대시에 나타난 ‘경성’ 제시 방식 연구 - 김기림, 이상, 오장환 시를 중심으로」, 『한국문예비평연구』 41, 2013, 39~66면.
- 조규태 외 14인, 『성북동 역사문화자원 조사 연구』, 성북구청·성북문화원, 2016.

## 「근현대 의정부 문학의 흐름과 특징」에 관하여

박수빈(고려대학교)

김준현 선생님의 발표문은 근현대 의정부 문학의 흐름과 특징을 ‘지역정체성’과 연관시켜 ‘향후 의정부 문학을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에 중요한 아이디어와 의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대문학 연구자로서 저는 ‘근현대 의정부 문학’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미군 부대와 관련된 서사가 있을 것이다, 한국전쟁이나 피난민 묘사가 두드러지는 작품들이 있을 것이다. 즉, 작품에 묘사된 의정부의 모습을 ‘역사’와 연관지어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김준현 선생님은 발표문을 통해 문학(연구)이 갖는 일종의 ‘선언’으로서의 의의를 설명함으로써 의정부 문학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동시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안’하고자 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정체성’이라는 개념이 최근의 연구들에서 실증적인 방법론을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아니라 종종 ‘선언’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저 역시 지역 문학에 대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발표문을 통해 지역(문)학 연구의 새로운 관점을 엿볼 수 있었고, 의정부와 의정부 문학 전반에 대해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연구의 전반적인 시각과 방법론에 큰 이견은 없습디만, 발표문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과 사실확인 및 보완 사항 등을 담아 제안함으로써 이 글이 논문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 글의 독특한 점은 지역의 정체성이 지역 문학에 미친 영향을 살피는 일반적인 접근 방식이 아니라 “내러티브로서 구성된 지역 문학이 지역 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살피겠다는 연구목적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재하는 것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인식론적인 부분이 훨씬 중요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론적 연구는 그 ‘방법론’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들이 다양하게 집대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그것의 범위나 자료의 대상이 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기준’을 마련하는 일이야말로, 연구자들이 주력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중장편소설에 주목한 부분이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대중연재소설은 당대 사람들의 일반인식을 가장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텍스트라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sup>1)</sup>

글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2. 심상지리 지역으로서의 의정부에서 ‘사람들에게 인식된 의정부란 어떤 공간이었나?’를 설명하고, 3. 4장에서는 근대문학의 소재/배경지로서의 의정부를 교통과 방어/서울 근교의 농촌·농촌계몽 운동으로 개념화하고 있습니다. 5. 문학커뮤니티로서의 의정부에서는 의정부 스튜디오와 의정부 정체성을 설명하고, 6. 의정부의 지역정체성과 스토리텔링에서는 지역정체성의 키워드로 ‘호국’, ‘평화’, ‘발전’, ‘침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논문의 구성적 측면에서 보았을 때 3, 4장에 비해 5와 6장은 보다 심화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5장의 제목은 현단계에서는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의정부 내에 문학 ‘커뮤니티’라는 것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커뮤니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의 의미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보다 명확한 서술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정부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1925년에 ‘의정부 현상 시울대회(議政府懸賞詩律大會)’가 있었다는 기사를 확인했습니다. 조선동아 양국 후원을 받아 의정부에서 자체적으로 현상공모를 했다는 건데, 이러한 문학·제도적 측면에서부터 먼저 규명이 되면 근현대 의정부 내 문학 활동에 대한 그림을 어느 정도 만들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6장과 7장을 통해 제시해 주신 키워드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조선일보》를 통해서 확인해 주신 바와 같이 1920~30년대 심상지리로서의 ‘의정부’는 교통 및 ‘철로’와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동아일보》에서 ‘의정부’로 처음 확인되는 기사 또한 1920년 7월 20일, 큰비로 인해 선로가 끊어져 의정부와 덕정 사이의 경원선이 불통(不通)이라는 내용입니다. 일제강점기 유명한 하이킹 코스이자 영화촬영소로 조명되었던 사실도 의정부의 지역정체성과 그 인식적 측면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이는 ‘문화도시’ 또는 ‘관광도시’로서의 의정부를 의미화할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의정부의 지리적 특성에서 비롯된 ‘관문’이라는 표현과 ‘호국’이라는 키워드로 정체성을 호명하려는 시도도 크게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해보다

---

1) 이 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염상섭의 『사랑과 죄』에도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참 그런데 그 장마통에 엇더케 지냈서? 뉘보를 치차니 불통이라지! 누구나 내려보낼까 하였스나 그 역시 의정부까지는 회복할 가망이 업다고 하니 엇저는 수가 잇서야지.”하고 변명하는 남자와 “입이 보배야! 입이 보배야!” 하며 발길질 하는 여자의 싸움 장면인데요. 의정부에서 지내고 있는 여자에게 거리가 멀고 가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소홀했던 남자의 모습이 나타난 대목입니다.

면, 그로 말미암아 의정부는 근현대 역사 속에서 많은 피해를 당했던 상처의 시공간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군이 지역사회에 끼친 지대한 영향력, 방치되었던 군 시설물 문제, 한국전쟁의 상흔 등은 근현대 의정부 문학과 의정부의 '인식론적 정체성' 형성에 어떤 식으로든 그 흔적을 남기고 있을 것입니다. 의정부가 그러한 상처들을 어떻게 회복하고 건강한 도시로 나아갈 수 있었는지를 서사화하고 의미화하는 작업이 함께 수반된다면 의정부 문학 안에 더 큰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의정부 근·현대 건축 유산과 그 활용 방안

최호진(지음건축도시연구소)

1. 의정부시 근·현대 건축유산 현황
2. 의정부시 근·현대 건축유산의 특성
3. 의정부시 근·현대 건축유산의 활용 방안
4. 의정부시 주요 근·현대 건축유산 조사표

### 1. 의정부시 근·현대 건축유산 현황

#### 1.1. 대상과 범위

- 행정구역상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하며, 다음의 기준으로 대상과 범위를 정함
- 기존 문화재(국가지정 및 등록, 경기도 지정 및 등록), 향토유산, 전통사찰 등 제외
- 비지정문화재 혹은 건축자산(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의 가치가 있는 건축유산
- 현존(터와 부지의 형태가 유지된 것 포함)하는 것 우선 고려
- 기존 의정부시의 정체성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
- 조성 시기가 오래되지 않았으나, 과거, 현재, 미래적 가치를 고려한 의정부시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것

## 1.2. 조사 현황

### 1.2.1. 후보군 목록화

- 기존 조사연구자료와 기타 자료를 통하여 기본적인 목록화 작업 진행
- 자료 및 주제 구분 :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 관련, 역사문화자원, 건축자산, 건축상 수상작, 교통시설, 상업시설, 문화 및 체육시설, 공공시설, 교육연구시설, 기념물, 도시 재생 및 도시개발

연번	구분	조성연대	명칭	비고
1	전쟁, 분단 관련	1953.7.27	캠프 레드클라우드	
2			구 캠프 라과디아	
3		1955.4.15	캠프 스탠리	
4		1960년대	뺏벌마을	
5		1970년대 추정	의정부 중량천·회룡천 합류 용치	
6		1970년대 추정	의정부 중량천 용치	
7	역사문화자원	1914	신곡동 전진목가옥	
8		1940년 이전	고산동 신윤식가옥	
9		1955~1956	의정부동 한옥문화주택(1-2)	
10		1955~1956	의정부동 한옥문화주택(1-7)	
11	건축자산	1953 / 1954	의정부주교좌성당 부속건물	
12		1960	상가_호국로1298	
13		1960	상가_시민로 133-1	
14		1962	부흥국수	
15		1964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지부	
16		1965	한옥_평화로484번길 14	
17		1967	한옥_평화로474번길 45	
18	교통	1970년대	다락교, 망월교, 회룡교, 녹양교 등	국도3호선
19		1970년대	고산교, 정자교, 흑석교 등	
20			의정부역사	
21			의정부버스터미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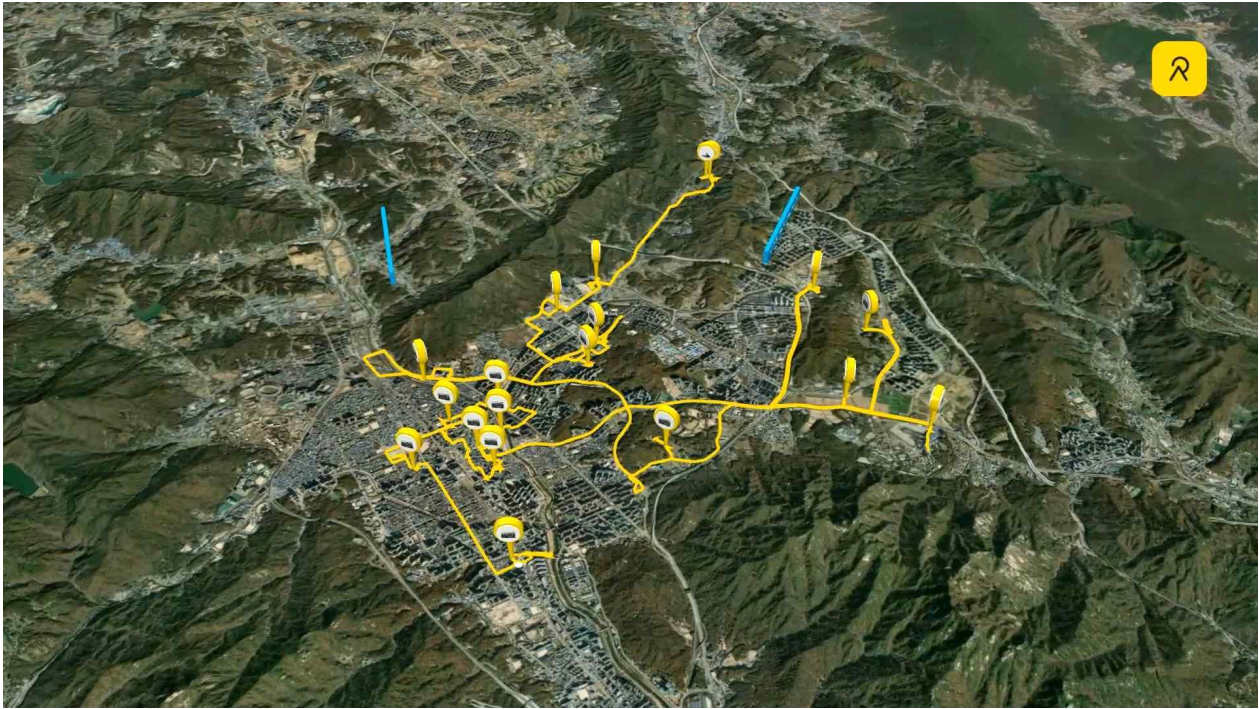


연번	구분	조성연대	명칭	비고
22	상업시설		의정부제일시장	
23	체육,문화시설		의정부종합운동장	염북동 동상 등 포함
24			의정부 컬링경기장	
25			의정부음악도서관	
26	공공시설		경기도 북부청사	
27			의정부시청사	
28	교육연구시설		의정부중앙초등학교	
29			중고 중 1곳	
30			대학교 중 1곳	
31	건축상	2005	경기북부 아동 일시보호소 및 의정부영아원	
32		2005	의정부 정보도서관 겸 의회청사	
33		2008	의정부 과학도서관	
34		2009	의정부 예술의전당	
35		2017	가능1동 주민센터	
36		2020	의정부 미술도서관	
37	기념물		월남전 참전기념비	
38			김풍익전투기념비	
39	도시재생		도시재생구역 검토	
40	신도시		신규 아파트 등 검토	

※ 표 22 후보군 목록, 조성연대는 명확한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것만 기재함

### 1.2.2. 현장조사 진행

- 일정 : 2023년 9월 8일부터 9월 9일까지
- 조사방법 : 목록화한 후보군과 현장확인을 통해 후보군에 추가가 필요한 대상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외부 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실내 조사가 가능한 곳은 실내 조사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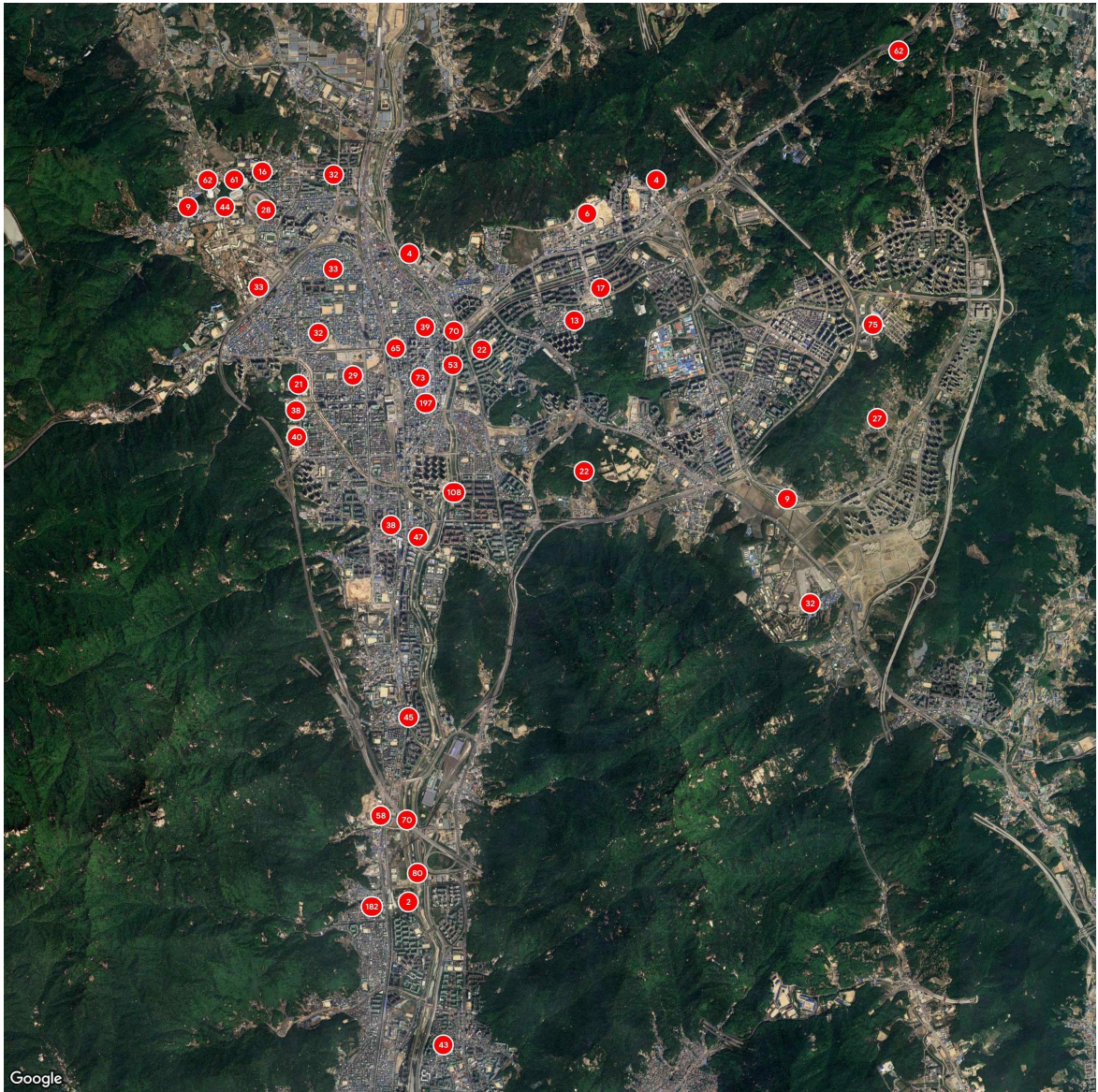


<그림> 현장조사 1일차 조사 지점과 이동 경로



<그림> 현장조사 2일차 조사 지점과 이동 경로

- 의정부시 현장조사 대상지의 사진 촬영 기록을 통해 위치 정보를 기록하여 활용



<그림> 현장조사 지점

### 1.2.3. 조사표 작성 목록 작성

- 학술대회의 의견을 들어, 의정부시의 근·현대의 시기별 역사를 확인할 수 있고, 물리적인 흔적이 남아있는 건축유산과, 향후 공공적 가치가 증대될 수 있는 현대 건축유산까지 포함하여, 최종 30여개를 선정하여 작성할 계획임

## 2. 의정부시 근·현대 건축유산의 특성

### 2.1. 도시 변천에 따른 특성

#### 2.1.1. 의정부역 동측 시가지

- 일제강점기에 부설된 경원선은 의정부시를 남북으로 지나가는 국도 제3호선과 나란히 놓여 있으며, 한국전쟁기를 거치며 미군의 주둔과 의정부역 동측과 중랑천 사이에 시가지가 형성되어, 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옴
- 의정부역 동측 시가지는 주요 큰 도로는 유지하고 있으나 시가지의 토지 구획이 바뀌고, 의정부시의 전신인 양주군 의정부읍을 관할하던 양주군청이 행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음
- 의정부역 동측 시가지는 1960년대까지 도로변을 중심으로 상업 가로가 형성되고, 의정부제일시장이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음
- 독특하게 1960년대 도시형 한옥의 주거지가 형성되었고 아직도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멸실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1954년 3월 항공사진

▲2023년 4월 항공사진

<그림>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1954년과 2023년 도시구조와 주요시설 변화 비교

### 2.1.2. 도심과 외곽 곳곳의 미군기지

- 의정부역 북서쪽으로 캠프 홀링워터, 캠프 라과디아, 캠프 레드클라우드, 북동쪽으로 캠프 에세이론, 캠프 카일, 캠프 시어즈, 동남쪽으로 캠프 스탠리, 남측으로 캠프 잭슨이 있으며, 대부분 반환되었으나,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 정도임
- 미군기지는 한국전쟁 이후 70여년간 도시가 성장하는 동안 부지 규모의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기에, 대규모 개발 부지로 인식되고 있음
-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의정부시가 기지의 모습을 남겨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2.2. 유형별 특성

### 2.2.1. 군사시설 등 한반도의 전쟁과 분단 관련 건축유산

- 의정부시에는 최근까지 미육군 제2사단 본부가 있었고,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 스탠리가 존재하며, 의정부역 주변으로도 항공전력까지 보유했던 미군기지가 존재했던 만큼, 의정부가 경기 북부의 군사적 요충지였음은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음
- 반환되는 미군기지가 대부분 개발이 되고 있으나, 아직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기지 사용 당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주변 체육시설 단지와 연계하고, 큰 면적에 다양한 용도의 시설들을 활용한다면, 전국적으로도 유례없는 미군기지의 모범 활용사례가 나타날 것임
- 이 미군기지들은,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군사기지(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산 캠프 하야리야 등)와는 달리 미군에 의해 지어져 70년 가까이 사용되며 하나의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만큼, 남아있는 미군 시설들도 의정부시의 역사가 품고 나가야 할 자원임

### 2.2.2. 공공시설

- 경기도 북부출장소가 설치된 이후, 광역도인 경기도의 주요 시설들이 의정부시에 자리하고, 새롭게 반환된 미군기지에 경기북부광역행정타운이 건설되고 있음

### 2.2.3. 역사문화자원

- 의정부역에서 동쪽으로 먼 거리에 있는 신곡동과 고산동 일대에 한국전쟁 이전에 건

립된 가옥이 일부 남아있음

- 의정부시의 동측 역시 대규모 택지개발 등이 진행되고 있어,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역사문화자원은 지역사의 가치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높음

#### 2.2.4. 문화, 체육시설

- 의정부종합운동장을 중심으로, 체육시설 콤플렉스가 구성되어 있으며, 체육시설의 특성을 반영한 시설물이 다수 남아있고 현재에도 잘 활용되고 있음
- 의정부시의 체육, 운동선수들과의 연관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실내빙상장, 컬링경기장 등도 새롭게 체육시설 단지에 특징적인 모습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

#### 2.2.5. 교육연구시설

- 의정부공립심상소학교 등 학교시설 터의 역사는 오래 되었으나, 현재 남아있는 유구 자체가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기 어려운 상황으로, 각 기관별 역사 자료 등을 수집하는 등 ‘기억’을 아카이브 하는 무형적 자원의 자산화 작업이 필요할 것임

#### 2.2.6. 건축상 수상작

- 의정부 정보도서관 겸 의회청사, 의정부 과학도서관, 의정부 예술의 전당, 가능1동 주민센터, 의정부 미술도서관 등은 한국건축문화대상, 경기도 건축문화상 등 명성 있는 상을 받은 작품으로, 향후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활용을 통해 미래가치를 높일 수 있음

### 2.3. 전반적인 특성 (종합적인 특성 또는 지역정체성과의 관련성)

#### 2.3.1. 개요

- 의정부시의 근·현대 건축유산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음. 최근의 의정부시의 특화 도서관 정책과 반환된 미군기지에 행정복합타운을 조성하는 등 콘텐츠뿐 아니라 도시 내 활용부지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음

#### 2.3.2. 1950년대~1960년대

- 1950년 6.25 전쟁과 1953년 휴전을 기점으로, 의정부역과 의정부 곳곳에 미군 주둔지가 설치되었고, 의정부역과 동측의 시가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함
- 1963년 양주군 의정부읍이 의정부시로 승격하고, 1967년 경기도청 북부출장소가 설

치되며, 의정부시는 경기도 북부권역의 중심도시로 성장함

### 2.3.3. 기반시설과 도시 구조

- 국도 제3호선, 제39호선, 제43호선,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등이 지나가고, 경원선, 교외선, 수도권전철, 의정부 경전철 등 수도권 북부의 교통 허브로 주요 기반시설들이 마련되어 있음
- 이러한 도시의 변천을 통해 형성된 근·현대 건축유산은 보존 및 활용의 정책과 더불어 의정부의 역사를 보여주고 정체성을 형성해 나갈 수 있는 주요 자원이 될 수 있을 것임
-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보존 방식을 택하여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1970년대에 형성된 중랑천, 회룡천 부근의 용치와 방어시설 등은 의정부의 군사적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평화로와 호국로의 한옥들은 전통적 방식의 한국 건축이 도시에 진화하는 형태적 변화를 보여줄 수 있는 자산이며, 철도 역사, 의정부버스터미널, 교량 등은 경기 북부 교통 허브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주요 자산이 될 것임
- 녹양동, 민락동, 송산지구, 고산지구 등 택지 지구와 새롭게 들어선 도서관, 녹양동에 형성된 스포츠 콤플렉스는 의정부시의 체육사의 살아있는 공간이며 인접한 남측의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향후 계획과 더불어 중요한 활용적 가치를 지님
- 개발과 보존, 활용의 균형을 맞추어 근·현대 건축유산도 향후 100년을 내다보는 중요한 자원이 될 것이다.

### 3. 의정부시 근·현대 건축유산의 활용 방안

#### 3.1. 시대별 핵심 유산 선정하여 보존

##### 3.1.1. 역사문화자원의 보존

- 한국전쟁 이전 조성된 주거 가옥(고산동, 신곡동)은 지역과 마을단위의 생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원으로 개발이 가속화되기 전에 주요 자원으로 보존해야 함

##### 3.1.2. 1950년대

- 1950년대는 전쟁과 전후 직후의 어려웠던 경제, 생활 상황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미군 기지로 조성된 지역을 주요 보존 대상으로 삼아야 함

##### 3.1.3. 1960년대

- 의정부역 동측, 중랑천과의 사이에 의정부역을 중심으로 퍼져나간 상업지구와 상업시설, 점포 등 해당 시기에 조성되어 당시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물리적 시설물과 흔적을 보존할 필요가 있음
- 호국로, 평화로 등 도시형 한옥이 다량으로 건립되었으나, 주거지역의 원룸 신축 등으로 멸실이 가속화되고 있어, 군락으로 관리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용해야 함

##### 3.1.4. 1970년대 이후

- 도시기반시설이 다양하게 구축되는 시기로, 교량, 문화체육시설 중 남아있는 시설들을 잘 기록하여, 도시역사 차원에서 접근하여 시민들이 지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접근
- 1970년대 초 방어목적으로 조성된 대전차장애물 등의 시설은 의정부시의 군사적 중요성을 증명해주는 대상들로,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정비와 안내판 설치 등이 필요할 것임

#### 3.2. 비지정문화유산의 문화재, 건축자산 추진

##### 3.2.1. 역사자원

- 신곡동과 고산동에 일부 남아있는 단위 한옥은 한국전쟁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향토



유산 등으로 지정하여 지속적인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추진

### 3.2.2. 근대문화유산

- 의정부주교좌성당 부속건물은 문화재로 되어 있는 석조 성당과 같은 시기에 지어졌으므로, 성당 영역 내 건축물 모두를 우수건축자산 혹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1960년대 가로변 상업시설이 다수 남아있어, 도시가 변성해 나가던 초기의 흔적을 잘 남기고 기록해서, 우수건축자산 혹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3.3. 가치 있는 건축유산의 활용

### 3.3.1. 도시 차원의 접근

- 미군기지는 하나의 영역이 구획된 작은 도시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인접지역과의 통행, 시설물 활용 등 다양한 연계 방안을 구성하여 활용하는데,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활용 계획이 원활히 진행되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될 것임
- 호국로, 평화로의 대규모 도시형 한옥 단지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일부 한옥들을 대상으로, 개보수와 유지관리를 통해 한옥을 테마로 한 특화거리 등을 조성하여 도심에서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

### 3.3.2. 문화관광과의 연계

- 건축상 수상작 등은 투어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기억속에 우수한 자원임을 인식되게 하여, 향후 가치를 더해갈 수 있는 미래유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3.4. 제반 여건의 보완 사항

### 3.4.1. 미군기지의 활용

- 반환받은 미군기지 중 의정부시가 활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중인 구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경우, 환경정화, 부지 매입 등의 이슈가 남아 있음
- 우선적으로 미군과 국방부를 통하여, 캠프 레드클라우드의 도면 자료 등을 확보해야, 향후 시설물별 가치 평가를 통해 개보수를 통한 보존과 활용이 용이해 질 수 있음

### 3.4.2. 기존 보존, 활용 관련 법령과 제도의 활용

- 국가법으로 ‘문화재보호법’,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문화재와 다양한 조사, 연구 보호 방식,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우수건축자산, 건축자산진흥구역 등록 및 지정을 통한 활용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함
- 도시,건축,문화재 등 각기 다른 부서가 관련성이 있어,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축유산의 경우 각 부서가 협의를 통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행정협업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4. 의정부시 주요 근·현대 건축유산 조사표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과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6개의 건축유산에 대한 조사표를 수록함.

※ 학술대회를 통한 의견을 들어, 최종 건축유산 목록 30여건을 확보하고 결과보고서에는 전체 조사표를 수록할 계획임.

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

나. 망월교

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KSC)지부

라. 의정부 중랑천 용치

마. 부흥국수

바. 평화로484번길 14 한옥

가. 캠프 레드클라우드(Camp Red Cloud)

위치(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녹양동		
사용승인일	1953.7.27. 공여		
건축가	미 육군 극동 공병단		
조직	설계: - 시공: -		
수상현황	-		
용도	군사시설		
대지면적	약 20만평	지상층수	층
건축면적	m <sup>2</sup>	지하층수	-
건폐율	%	구조	
연면적	m <sup>2</sup>	용적율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쟁 중 1953년에 이 캠프는 복합 육군 본부(CFA)가 1992년에 폐지 될 때까지 1군단 본부와 CFA로 의정부 북쪽에 배치되어 있었으며, 1993년에는 제2보병사단 본부가 되었음</li> <li>- 처음에 캠프 레드 클라우드(CRC)는 텐트와 퀴넷으로 이루어진 캠프였음. 수년에 걸쳐 시설 개선으로 쾌적한 여건을 갖추게 됨.</li> <li>- 약 120 채의 건물이 있는 캠프에는 수많은 퀴넷, 현대 의료 클리닉, 1980년대 병영 및 골프 코스, 제2 보병사단 박물관 (Bldg S-907), 돌 예배당 등이 있음</li> </ul> <p>※ 참고자료: D. Colt Denfeld, 『Americas Military Camps in the Republic of Korea, 1866-1996』, Pacific Bases Research, 1997.</p>		
보존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부시의 보존, 활용계획이 추진되고 있음</li> <li>- 미군이 건립한 초기 건축물과, 타 지역 미군기지에서 보기 드문 용도의 시설물들을 보존하여 활용</li> <li>- 미군 제2사단과 국방부 등과 협의하여 미군의 도면 자료 등을 확보하여 보존 개보수시 활용 필요</li> </ul>		

[건축물 사진]

<p>지도</p>	<p>위성지도</p>
<p>사진 1 미2사단 정문(출처:의정부시 사진DB)</p>	<p>사진 2 캠프 남측 게이트</p>
<p>사진 3 캠프 북측 게이트</p>	<p>사진 4 돌예배당</p>
<p>사진 5 종합운동장 언덕에서 본 캠프</p>	<p>사진 6 캠프 관통도로 개통 이후</p>

나. 망월교

위치(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467-14		
사용승인일	1971년 10월 30일 준공		
건축가	-		
조직	설계: - 시공: 시공청 의정부시, 시공자 공일토건주식회사		
수상현황	-		
용도	교량		
대지면적	㎡	지상층수	층
건축면적	㎡	지하층수	-
건폐율	%	구조	
연면적	㎡	용적율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 길이 18m, 총폭 25m, 유효폭 17m, 높이 3m, 경간수 2, 최대경간장 9</li> <li>- 상부구조 강I거더교, 하부구조 중력식, 설계하중 DB-18, 교통량 35994</li> <li>※ 참고자료: 국토교통부 2023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조사</li> <li>- 국도 제3호선에, 중랑천으로 합류하는 호원천 상부에 놓여진 교량으로, 교주(橋柱)가 남아있어, 1970년대 초반 주요 도로의 하천 교량으로 기능했던 시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 도시기반시설로서의 가치가 있음</li> </ul>		
보존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보수시 옛 교주는 존치하고, 옛 교각의 흔적을 상세 확인하여 옛 모습은 남겨두고 보강 작업 등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li> <li>- 안내판 등을 설치하여 의정부시에 남아있는 오래된 교량임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li> </ul>		

[건축물 사진]

<p>지도</p>	<p>위성지도</p>
<p>사진 1 전경 1</p>	<p>사진 2 전경 2</p>
<p>사진 3 동북측 교주</p>	<p>사진 4 동남측 교주</p>
<p>사진 5 서북측 교주</p>	<p>사진 6 교량 하부 교각</p>

다. 의정부 중랑천 용치

위치(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장암동 321-10		
사용승인일	1970년대 추정		
건축가	미상		
조직	설계: - 시공: -		
수상현황	-		
용도	대전차장애물		
대지면적	㎡	지상층수	층
건축면적	㎡	지하층수	-
건폐율	%	구조	
연면적	㎡	용적율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치(龍齒)는 적의 침입 가능성이 있는 하천이나 교통로에 설치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용의 이빨처럼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임</li> <li>- 의정부 중랑천 용치(장암대교 용치)는 중랑천 위를 지나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의정부IC 장암대교 하부에 위치하고 있음</li> <li>- 중랑천 양측은 공원화되었고,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서 일부 용치가 철거됨</li> <li>- 남북으로 흐르는 중랑천을 동서로 가로질러 약 130여m에 걸쳐 2열로 설치된 용치군으로, 서측 26개, 하천바닥 16개, 동측 23개 등 총 65개의 콘크리트 용치가 남아있음</li> </ul> <p>※ 참고자료: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도 비지정 근대문화유산: 전쟁·분단 실태조사보고서 건조물·방어시설」, 2023.2.</p>		
보존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용치는 한강 이남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대전차장애물로, 1970년대에 하천 주변으로 용치, 방어병커, 도로에 낙석 등이 대량으로 시설되었던 것으로, 의정부시가 지형적으로 중요한 하천인 중랑천을 품고 있으며, 군사적 입지가 뛰어났음을 증명해주는 시설물로 가치가 있음</li> <li>- 의정부시의 대전차장애물들을 일체 조사하여 도로, 하천 등 군사적 중요성이 강조된 위치를 확인하고, 용도가 폐기된 시설은 안내판 등을 설치하고 주변 정비를 통해, 분단 국가에 남아있는 흔적에 대한 현장교육자료로 활용</li> </ul>		



[건축물 사진]

<p>지도</p>	<p>위성지도</p>
<p>사진 1 서측방향 전경</p>	<p>사진 2 중랑천 서측편</p>
<p>사진 3 중랑천 서측편 육각뿔기둥 용치</p>	<p>사진 4 하천 원뿔기둥 용치</p>
<p>사진 5 해체된 용치의 흔적 1</p>	<p>사진 6 해체된 용치의 흔적 2</p>

라.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KSC)지부

위치(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201-4		
사용승인일	1964년 7월 30일		
건축가	-		
조직	설계: - 시공: -		
수상현황	-		
용도	근린생활시설(점포 및 사무실)		
대지면적	203.3㎡	지상층수	3층
건축면적	162.88㎡	지하층수	-
건폐율	%	구조	철근콘크리트/슬라브
연면적	488.64㎡	용적율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64년에 건립된 주한미군노동조합 지부 건물로, 미군 주둔 이후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은 미군 밀집 주둔지역에 지부를 두고 있는데. 1960년대 자체적으로 건물을 건립할 정도로 조합의 세력이 컸음을 보여줌</li> <li>- 전반적으로 단순한 박스 형태의 입면으로 구성하고 있지만 중심부를 사다리꼴로 튀어나오게 처리한 후 노동자 연대를 표방하는 부조를 새겨 건물의 중심성과 조형성을 강조하였음</li> <li>- 전쟁과 분단, 미군의 주둔, 그로 인해 파생된 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의 지부 건물로, 분단 현실에서 전쟁 이후 한국인들의 노동과 미군과의 관련성을 되짚어 볼 수 있는 건축유산임</li> </ul> <p>※ 참고자료: 경기도,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보고서, 2023.</p>		
보존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래 3층의 평지붕 건물이었으나 옥상을 증축하면서 박공지붕이 덮여있는 상태임</li> <li>- 주한미군이 평택으로 대거 이전하며, 경기북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조합의 활동이 축소되고 있으나, 1960년대 노동, 미군, 한국인들의 생활사와 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아, 해당 건물은 경기도 우수건축자산 혹은 경기도 등록문화재 등록을 검토해 볼 수 있음</li> </ul>		

[건축물 사진]

<p>지도</p>	<p>위성지도</p>
<p>사진 1 원경</p>	<p>사진 2 정면</p>
<p>사진 3 정면 상부</p>	<p>사진 4 정면 부조</p>
<p>사진 5 경사가 급한 계단</p>	<p>사진 6 전국KSC지부 사무실</p>

마. 부흥국수

위치(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1-14		
사용승인일	1962년 9월 19일		
건축가	-		
조직	설계: - 시공: -		
수상현황	-		
용도	점포		
대지면적	46.3㎡	지상층수	2층
건축면적	44.07㎡	지하층수	-
건폐율	%	구조	비한식목조 추정
연면적	88.14㎡	용적율	%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정부제일시장 남측, 의정부역 앞에서 신곡교차로로 연결되는 시민로 남측에 위치한 2층 건물로, 1층은 살림집으로 2층은 국수 제조실로 사용하였고, 특히 국수의 건조를 위해 2층의 창을 사방으로 넓게 내었음</li> <li>- 넓은 창호와 흰색 타일의 조화, 건물의 비례가 우수한 건물이며, '부흥'이라는 점포명은 해당 건축물 건립연도의 시대적 특징이 상호에 잘 드러나 있음</li> <li>- 1960년대 변성하고 있는 상업가로의 풍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li> </ul> <p>※ 참고자료: 경기도,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보고서, 2023.</p>		
보존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일 현재 국수집은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축물의 남측 대지와 건축물은 오랜기간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li> <li>- 부흥국수 건물을 보존하되 국수의 제조 시설로 다시 사용하고, 남측의 인접 대지 등을 정비하여 소규모 도심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li> </ul>		

[건축물 사진]

<p>지도</p>	<p>위성지도</p>
<p>사진 1 원경</p>	<p>사진 2 전경</p>
<p>사진 3 우측면</p>	<p>사진 4 1층 내부 벽면에 걸린 신문기사</p>
<p>사진 5 외벽 마감과 2층 창호</p>	<p>사진 6 남측 인접 미활용 대지</p>

마. 평화로484번길 14 한옥

위치(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 137-8		
사용승인일	1965년 7월 8일		
건축가	-		
조직	설계: - 시공: -		
수상현황	-		
용도	점포		
대지면적	144.5㎡	지상층수	1층
건축면적	44.4㎡	지하층수	-
건폐율	30.73%	구조	한식목조
연면적	44.4㎡	용적율	30.73%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당 건축물 일대 거주지를 ‘월남마을’이라고 하는데, 월남전에 참전했던 전역 군인들이 많이 살았다고 전함</li> <li>- ‘ㄱ’자 형태의 팔작지붕 한옥으로 카페로 리노베이션 해 사용하면서 내부가 변형되었으나, 중정을 가지고 있는 기존의 공간 구조는 유지하고 있음</li> <li>- 외부 화방벽 및 창호 등에도 변형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한옥 원래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바로 옆 한옥과 지붕을 맞대고 있음</li> </ul> <p>※ 참고자료: 경기도, 「제2차 경기도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 시행계획 수립」 연구 결과보고서, 2023.</p>		
보존 및 활용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측 한옥(평화로 484번길 12)를 비롯하여 주변에 한옥이 다수 분포하여, 도시형 한옥이 균락을 이루는 지역의 면단위 보존사업으로 지역 특화 거리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임</li> <li>- 여러 한옥 중 개보수가 필요한 일부 한옥은 경기도 소규모 한옥지원사업 등으로 개보수지원이 가능할 것임</li> <li>-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한옥을 ‘공간환경’ 유형으로 분류하고, 지역 상세 조사를 통해 건축자산 진흥구역 등을 검토할 수 있음</li> </ul>		

[건축물 사진]

<p>지도</p>	<p>위성지도</p>
<p>사진 1 전경</p>	<p>사진 2 가로변 입면</p>
<p>사진 3 정면과 좌측면</p>	<p>사진 4 서측에 연접한 한옥과의 맞댄 지붕</p>
<p>사진 5 해당 한옥 서측에 연접한 한옥</p>	<p>사진 6 해당 한옥 주변의 한옥</p>

## 「의정부 근·현대 건축 유산과 그 활용 방안」에 관하여

서종원(의정부문화원 상임연구위원)

비단 의정부시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의 정체성 확립 내지 발견을 위해서는 역사와 문화로 대변되는 인문학 분야는 물론이거니와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 내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발표문에서 주제로 삼고 있는 근·현대 건축유산은 무척 의미 있는 주제이자 대상이 아닐 수 없다. 경기도 박물관을 비롯해 일부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 주제와 관련된 연구 성과가 있긴 하나, 근·현대의 건축 유산을 총망라하여 해당 유산을 목록화하고 이를 기록하는 작업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발표문이라 생각된다. 다만 진행 중인 관련 연구와 조사가 보다 의미 있는 성과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부분에서의 고민과 보완이 절실히 보이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이다. 대상과 범위, 그리고 조사 현황 등은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의정부시의 근·현대 유산을 통해 과연 어떤 부분을 도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욱 필요한 것은 아닐까 해서 질문을 드린다. 의정부시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작업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문헌 및 다른 자료와 달리 근·현대 건축 유산을 통해 지역의 어떤 모습을 살펴보고 어떤 내용의 정체성을 밝혀낼 수 있지도 궁금한 부분이다.

2. 두 번째 질문 역시 첫 번째 질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이 작업을 통해 지역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를 진진하게 고민했으면 하는 부분이다. 조사 방법의 경우는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겠지만 금번 연구와 조사를 통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여러 측면에서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익히 잘 알려진 바대로 지역에서 진행되는 상당수의 연구 용역 내지 학술 조사가 추후 활용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의정부시의 근·현대 건축 유산과 관련된 조사·연구를 통해 발표문의 뒤에서 제시하는 ‘보존 및 활용방안’이외에 또 다른 부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와 같은 질문을 드리는 것이다.

3. 발표문에서 후보군으로 제시하는 40개 정도의 목록은 분명 의미 있는 자료이긴 하



나, 여러 분야를 안배해야 하는 관계로 여러 모로 아쉬움이 남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40개 항목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지지 않은 주거 공간에 대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역사문화자원으로 1950년대에 조성된 의정부동의 한옥문화주택이 포함되어 있긴 하나, 시대적 특징 내지 주거 건축사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건축유산이 의정부 여러 곳에 많이 남아 있기에 조사 및 연구 과정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의정부 근현대 건축 유산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개발제한구역과 전쟁이다. 그 중에서도 전쟁이 의정부시의 주거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1980년대 무렵에 지어진 상당수 주거 공간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리고 뱃벌마을의 경우는 건축유산으로 보기도 어렵고, 유사 지역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에 반드시 포함시킬 것인지도 고민을 했으면 한다.

4. 의정부시의 근·현대 건축유산을 살펴볼 때 다뤄졌으면 하는 또 다른 내용은 ‘최초’에 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는 최초의 아파트, 최초의 연립주택, 최초의 다세대주택 등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경기도의료원(의정부2동) 바로 앞에 있는 공공시설(의정부서부파출소),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생겨난 여러 형태의 클럽들(가능동 일대), 예비군 훈련장(호원동), 도봉학사(호원동), 신곡동에 있는 냉동 창고와 수리시설 역시 의정부를 대표하는 근·현대문화유산이라 생각된다. 또한 1960년대 이후에 생겨난 제조시설 및 의료시설(경기도의료원, 의정부성모병원) 등도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점은 종교시설(삼성교회, 호원교회, 고산교회 등), 학교시설(의정부공고 등)도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원도봉산에 있는 진지 내지 참호 등도 포함시켰으면 한다.



<그림> 경기도의료원 앞에 있는 공공시설-의정부서부파출소

5. 마지막으로 해당 문화유산의 정리 방식에 관한 부분이다. 해당 문화유산의 정보는 물론이거니와 설명과 보존 및 활용방안을 적고 있긴 하나, 해당 유산과 관련된 일차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표에 어떤 식으로든 표에 정리되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다. 해당 유산의 시대적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도 좋고, 신문 자료 또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지역의 정체성 확립도 그렇고, 의정부시를 대표하는 근현대 유산을 선정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명확한 기준과 목적을 재수정하여, 보다 촘촘하고 섬세한 지역의 현장조사를 토대로 근현대 건축유산을 선정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으면 한다. 아무쪼록 이번 발표가 지역 사회에 여러 모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날 지역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의정부시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 기여를 하기 바라는 바이다.

## 의정부의 조선 역사 관련 문화행사 고찰

박성진 (예문관 대표)

1. 조선시기 의정부 역사성 되돌아 보기
2. 의정부 지역과 태조, 태종의 인연
3. 의정부 조선역사 관련 문화행사화 검토
4. 조선초기 국왕들의 의정부 내왕
5. 정리하는 말

### 5. 조선시기 의정부 역사성 되돌아보기

#### 5.1. 양주의 견주(見州)

- 태조 4년(1395) 6월에는 한양부를 한성부라 개칭하고<sup>1)</sup>, 태조 5년(1396) 9월에 이르러 여러 궁전을 위시하여 종묘와 사직·관아·도성 등이 축조되어 그 공역이 완료.
- 한성이 조선왕조의 국도로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가 됨에 따라 양주지방은 대부분의 땅을 한성부에 이관하여 축소하는 동시에 그 치소 및 읍격(邑格)이 변화됨.
- 태조 3년(1394)에 도읍을 개경에서 한양부(옛양주)로 옮김에 따라 그 이듬해에 주민들을 옛 견주지역으로 이주시킨 후 양주군으로 삼음<sup>2)</sup>.
- 태조 6년(1397)에는 양주부로 승격되었다가 태조 13년(1413) 도호부를 설치하고 그 밑에 견주(見州)·사주(沙州)·풍양(豐壤) 등 3개의 현을 둬. 지금의 의정부시와 양주

1) 『태조실록』권7, 태조 4년 6월 무진조.

2) 『태조실록』권7, 태조 4년 6월 무진조. “改漢陽府 爲漢城府 移其吏民于見州 爲楊州郡”

시는 전주, 동두천시는 사주, 남양주시는 풍양에 속함.

- 세조 12년(1466) 관제 개혁 때에 다시 양주목으로 승격.
- 세종 때의 인구수를 살펴보면 양주도호부에는 1,481호(戶)에 2,726구(口)로 나타나 아주 한적한 시골이었음을 볼 수 있음. 토지로 보면 15,000결로 현재 기준으로 보면 450만평 정도임
- 연산군은 왕위에 오른 지 10년 되던 해에 도성을 중심으로 사방 100리 안을 임금의 사냥터 및 놀이터로 삼을 것을 명함<sup>3)</sup>. 1506년(중종 원년) 중종반정(中宗反正)이 일어나던 해에 양주가 복치되어 민가를 둘 수 없는 수렵 지구에서 벗어나 양주목으로 복구되었고, 이어 불곡산 남쪽 밑에 관아를 설치.

## 5.2. 녹양 지역

- 문헌에 따르면 녹양역은 호원동 다락원에 고려시대부터 존재하였으며, 적어도 조선 후기 어느 시점까지 역의 기능을 유지<sup>4)</sup>
- 의정부 지역은 조선 초기에는 녹양역<sup>5)</sup> 지역으로 비정되며 현재 그 위치를 호원동 다락원 등으로 볼 수 있으나 녹양을 넓은 의미, 즉 강무가 벌여졌던 들판, 녹양역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군마(軍馬)를 길렀던 목장의 역할까지를 고려하면 그 범위를 현재의 의정부 지역 전체로 확장해서 유추할 수 있음.

## 5.3. 시북곡면, 둔야면

- 조선 전 시기에 걸쳐 전국 군현의 방리 항목이 처음으로 확인되는 것은 영조 대인 1760년대(영조 36~45) 편찬·발간된 『여지도서』 양주 관련 기사.
- 시북곡면(柴北谷面) : 남쪽으로 처음 거리 10리, 끝 거리 30리. 호수는 417호로 남 849구, 여 1,062구
- 둔야면(菴夜面) 남쪽으로 처음 거리 15리, 끝 거리 30리. 호수는 224호로 남 458,

3) 『燕山君日記』 卷55, 燕山 10年 8月 16日 癸酉. 서쪽은 홍복산(洪福山) 혜음현(惠陰峴)으로부터 공순릉(恭順陵)에 이르기까지, 동쪽은 수락산(水落山)으로부터 녹양평(綠楊坪)에 이르기까지 모두 금표(禁標) 안에 넣고, 큰 길을 아차산(峨嵯山) 등지로 나가도록 하라. 이와 같이 하여 수목이 무성해지기를 기다리면 금수(禽獸)도 살게 되어 연병(練兵)과 사냥을 할 수 있을 터이니

4) 『高麗史』 卷82 志36 兵2 站驛9에는 다음 기록이 있다. “青郊道掌十五 青郊[開城]通波[臨津]馬山[峯城]碧池[高峯]迎曙[南京]平理[德水]椽林丹棗[積城]清波[南京]蘆原[南京]幸州驛從繩[守安]金輪[樹州]重林[仁州]綠楊[見州]”

5) 녹양역은 시북곡면(柴北谷面)에 있는데 남쪽으로 10리 떨어져 있고 관북직로(關北直路)의 두참(頭站)이며 평구도 소속으로 말[馬] 10필, 이속[吏]과 남자 종[奴]이 44명, 여자 종[婢]이 28명이다. 『輿地圖書』, 京畿道 楊州牧 驛院 附撥站.

여 748구

- 1910년 9월 「조선총독부관제(朝鮮總督府官制)」가 공포되고 지방 제도도 동시에 개편되었다. 1912년 5월 발행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에는 의정부 지역의 세부적인 행정구역 단위가 기재

시북면(柴北面) : 자일리(自逸里), 중서오리(中西梧里), 직동리(直洞里), 가좌동(加佐洞), 비우리(碑隅里), 삼귀리(三歸里), 귀낙리(龜洛里), 금곡리(金谷里), 하서오리(下西梧里), 입석리(立石里), 유현리(柳峴里), 오목리(梧木里), 민락리(民樂里), 상서오리(上西梧里), 곤제리(昆弟里), 어룡리(魚龍里), 녹양리(綠楊里), 양지리(陽地里), 궁촌리(宮村里) - 현 가능동, 녹양동, 금오동, 민락동

둔야면(菴夜面) : 조암동(鳥岩洞), 호동리(虎洞里), 어룡리(魚龍里), 목둔야리(木菴夜里), 신촌리(新村里), 누원리(樓院里), 의정부리(議政府里), 동막동(東幕洞), 탑석리(塔石里), 양현리(陽峴里), 장수원리(長水院里), 파발막리(把撥幕里), 발이술리(鉢伊述里), 추동리(楸洞里), 장자동(長者洞) - 현 장암동, 호원동, 의정부동, 신곡동과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1동.

이 외에 의정부 지역에 포함된 면은 내동면으로 고산리, 입암리, 산곡리 지역이다.

- 의정부(현) 북부 시북면 19개 리와 의정부(현) 남부인 둔야면 15개 리가 조선 전기부터 의정부 지역에 포괄되어 유지되다가 1914년에 두면이 시둔면으로 합해지고 1938년 양주면으로 바뀌었고 1963년 의정부읍으로 승격 (\*의정부둔, 의정부점, 파발막리, 의정부리, 의정부역이 동일 지역임)

#### 5.4. 의정부 지명으로 정착

- 1914년 8월 서울과 원산 간 철도인 경원선이 전면 개통되어 간선철도의 경유지 기능이 추가됨. 경원선의 개통으로 의정부역의 비중과 역할이 커짐에 따라 화물과 여객의 수송량이 급증하면서 역전 시가지가 조성되고 이후 상가, 우체국, 보통학교 등 도시적 기능을 가진 시설이 점차 집중되었고 양주군청을 비롯하여 경찰서, 법원출장소 등 행정 및 사법 관련 시설과 도시 시설이 들어서면서 의정부 지역은 양주군의 중심지로 부각
- 1922년 10월 1일 양주군청사가 주내면 유양리(維楊里)에서 시둔면으로 이전하였고, 1938년 10월 1일 시둔면이 양주면으로 개칭되었으며, 1942년 10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243호에 의거하여 양주면이 의정부읍으로 승격

## 5.5. 군사중심 도시로 정착

- 의정부 시내에는 휴전 직후부터 주한 미군의 핵심인 제2보병사단의 사령부 캠프 레드 클라우드를 비롯하여 모두 8개의 미군 기지가 자리하고 한국군 306보충대를 비롯하여 군수지원사령부 등 많은 군부대가 주둔
- 법률 제1177호(1962년 11월 21일 공포)에 근거하여 1963년 1월 1일자로 의정부읍이 시로 승격하여 양주군에서 분리, 독립. 금년 2023년은 의정부시 승격 60주년 되는 해

## 6. 의정부 지역과 태조, 태종의 인연

### 6.1. 태조-태종의 시기별 주요 사건과 그 성격

시기	태조-태종 간 관계 변화와 주요 사건
<b>갈등-대립기 (1)</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왕자의 난과 양위</li> <li>◦ 정종 즉위</li> </ul>	<p><b>1398년 (태조 7년, 정종 즉위년)</b></p> <p>이해 8월 태조가 병환 중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다. 정안군 이방원은 이숙번(李叔蕃) 등의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과 그 일파를 습격하여 살해했다. 그리고 세자 방석을 폐위하여 귀양 보내는 도중에 살해하고, 방석의 동복형 방번도 함께 죽였다. 이 사건으로 이방원이 정치적 실권을 수중에 넣고 병권 집중과 중앙집권체제 강화를 위한 제도개혁을 추진하면서 세력 기반을 강화했다. 반면 태조는 실권을 잃고 영안군 방과(芳果)가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9월 태조가 왕위를 양위하고 방과가 9월 왕위에 올랐다. (정종) 태조는 태상왕(太上王)이란 존위를 받고 물러나 경복궁에서 나와 북쪽 양정(涼亭)으로 옮겨 거처했다.</p>
<b>갈등-대립기 (2)</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 환도</li> <li>◦ 태조의 외유</li> </ul>	<p><b>1399년 (정종 1년)</b></p> <p>태조대의 한양 천도는 광범위한 동의 아래 단행된 것이 아니어서 관료층 내부에서는 물론 도성민, 특히 도성의 상인층으로부터 반발이 심하였다. 이들은 여전히 개경이 수도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한양 천도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이 제거되고, 태조가 정종에게 양위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정국의 혼란을 무마할 대책으로 개경으로 환도가 결정되었다. 1399년 2월에 제릉(齊陵) 참배로 개성을 방문했을 때 환도 의사를 내비친 후 3월 7일에 곧바로 태조와 함께 개성으로의 환도를 단행하였다. 환도에 대해서는 관료와 백성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p> <p>1394년 10월 한양 천도 후 5년 만에 개성으로 환도한 태조는 이를 매우 못마땅하게 여기고 부끄러워하기까지 했다. 개성에는 이성계를 반대하는 전통 세력들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환도 후 태조는 정종, 정안군과 함께 개성으로 와서 태상전에 머물렀으나 계속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번번이 외유를 단행했다. 태조는 개성 근교의 관음굴, 황해도 평주의 온천, 한성 흥천사 등에 여러 시종을 거느리고 가서 적게는 2~3일, 길게는 1달 동안 머물다가 왔다. 이해 12월에는 1달 동안 개성 근교의 관음굴에 가 있다 돌아왔다.</p>

시기	태조-태종 간 관계 변화와 주요 사건
<p><b>갈등-고조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차 왕자의 난</li> <li>◦ 태종 즉위</li> <li>◦ 태조 외유</li> </ul>	<p><b>1400년 (정종 2년, 태종 즉위년)</b></p> <p>이 해에 태조의 제4남 회안대군 방간(李芳幹)이 지중추부사 박포(朴苞)의 이간에 회유되어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다. 방간과 방원의 군사가 개성에서 접전하였는데 결국 방간의 군대는 패하여 방간이 유배되었으며, 박포는 처형되었다. 이 난이 평정되자 정종(定宗)은 방원을 왕세자로 삼았고, 11월 드디어 방원에게 양위(讓位)하였다. 11월 방원은 개성 수창궁에서 즉위하였다.</p> <p>제2차 왕자의 난으로 태종에게 한 번 더 크게 상심한 태조는 개성 태상전에 머물렀으나 자주 외유를 단행했다. 봄과 가을에 신덕왕후의 능이 있는 한성에 다녀왔으며, 가을에는 강원도 오대산에 행차하기도 했다. 태종은 태조의 마음을 헤아리고 회유하기 위해 개성을 떠나고 돌아올 때마다 맞이하러 나갔으며 연회를 베풀어 현수하는 등 자식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p> <p>개성에 돌아온 후 한양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신하들 사이에 논의가 계속 있었고, 태조 역시 한양 환도의 뜻을 비쳤다.</p>
<p><b>갈등-고조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조 외유와 소요산 입산</li> </ul>	<p><b>1401년 (태종 1년)</b></p> <p>이듬해 태종 1년에도 태조의 외유는 계속되었고 간혹 멀리까지 나갔다가 개성으로 돌아왔다. 3월에는 연천 보개산, 윤3월에는 한성을 다녀온 뒤 금강산으로 거동했다. 금강산에서는 바로 개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4월까지 강원도 북부의 안변부에 가서 머물렀다. 태종은 아버지 태조가 오랫동안 돌아오지 않으므로 신하 성석린을 보내 회가를 권유하기도 했다. 4월 28일 태조가 안변에서 돌아오니 태종은 개성 부근 마이천에 마중 나가 연향을 베풀었다. 태조는 여름 동안은 개성 태상전에서 지냈는데 10월 황해도 평주 온천으로 가서 요양한 뒤 11월부터 양주 소요산에 가서 아주 머물렀다. 이에 태종은 좌의정 김사형을 소요산에 보내 문안케 했다.</p>
<p><b>갈등-절정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조, 소요산-회암사-동북면-서북면 외유</li> <li>◦ 조사의의 난 진압</li> <li>◦ 태조, 개성 복귀</li> </ul>	<p><b>1402년 (태종 2년)</b></p> <p>해가 바뀌어도 태조는 개성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 소요산에 머물렀다. 4월 잠시 한성으로 행차하여 조상을 기리는 법회를 지내고 왔는데 6월에는 양주 남쪽 회암사로 이동하여 사찰을 중수하고 무학대사와 함께 지냈다. 왕자의 난을 일으킨 태종과의 거리를 두는 모양새였다. 이 기간 태종은 몇 차례 소요산과 회암사에 가서 태조를 문안하고 돌아오기도 했다.</p> <p>11월 1일 태조는 함흥이 있는 동북면으로 향한다. &lt;연려실기술&gt;에서 태조가 왕위를 물려 준 후 함흥으로 갔다고 했으나 조선왕조실록에는 4년 후다. 태조는 자신이 즉위한 이래 10여 년 동안 조상의 무덤을 한 번도 가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가 조상의 능에 참배하지 않으면 어떻게 지하의 조상을 뵈 수 있겠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의 이번 행차를 미쳤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함흥 행차의 정당성을 강조한다. 태종은 부왕이 떠난 4일 후 그 소식을 전해 받는다.</p> <p>태종은 이날 또 다른 사건의 보고를 받는다. 동북면 안변부사 조사의(趙思義, ? ~ 1402)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다. 조사의는 태조의 두 번째 부인 신덕왕후 강씨의 집안 사람이었다. 조사의가 거사를 일으킨 명분은 강씨의 원수를</p>

시기	태조-태종 간 관계 변화와 주요 사건
	<p>값는 것이었다. 태조가 동북면으로 떠난 것과 조사의가 동북면에서 거사를 일으킨 날짜가 공교롭게도 겹치나 태조와 조사의의 연결 여부는 정사의 기록으로는 알 수 없다.</p> <p>반란군의 초기 기세는 대단했다. 태종은 조영무·김영렬·신극례 등이 포함된 진압군을 파견한다. &lt;연려실기술&gt;에서 어미 말을 타고 태조를 찾아가서 설득한 박순도 진압군 장군이다. 박순은 상호군(上護軍) 직책으로 동북면의 도순문사 박만과 수령들에게 “조사의를 따르지 말라”고 설득하다가 조사의 군사들에게 피살된다. 박순은 &lt;연려실기술&gt;에서 태조의 사신에 의해서 죽지만 조사의 반란군 진압과정에서 목숨을 잃은 것이다.</p> <p>태종은 한편으로는 수시로 태조의 거처를 파악했으며 결국에는 무학대사를 보내서 태조가 서울로 돌아오도록 설득했다. 이는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역사적 사실이다. 또한 안평부원군 이서, 익륜과 설오스님을 태조의 임시처소인 행재소에 보낸다. 이 셋은 태조가 평소 믿고 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만일 이들 4명이 태조에게 살해당하고 돌아오지 못했다면 함흥차사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는 야사에만 전할 뿐 정사에는 기록되지 않았다.</p> <p>조사의의 난은 한 달 만에 스스로 무너졌다. 조정에서 4만여 명의 군사를 파견했다는 소식이 반란군 진영에 퍼져서 반란군은 스스로 흩어졌다고 기록돼 있다.</p> <p>그리고 태조는 동북면으로 향한 후 여기저기로 옮겨다니다 38일 만인 12월 8일 개성으로 돌아왔다. 그 이동 경로를 보면 태조는 동북면으로 떠나기 4일 전 임진강 나루터 징파도에서 중국 사신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다. 이때 태조를 호위한 별시위군에게 동북면으로 행차하려는 뜻을 밝혔다. 그리고 안변의 석왕사로 가서 김화현에 머물고 철령을 지나서 함주로 향했다. 함주는 함흥으로 가는 길목이다. 그런데 9일 후 원래의 목적지인 동북면이 아니라 서북면 맹주로 방향을 바꾸고 원종포에 이르렀다. 반란군이 궤멸한 장소도 서북면 안주이다. 반란군과 태조의 진행 방향이 비슷한 것이다. 여기에 태조의 핵심 경호원이자 당상관인 정용수와 신호창도 조사의의 반란군에 가담한다. 태조도 조사의가 반란을 일으킨 1년 7개월 전 안변부에 간 적이 있었다. 또한 태조는 반란군이 무너진 다음 날 서울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조사의의 반란군을 태조와 연계시킨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기록이나 증거는 없다.</p> <p>이후 태조는 평양부에 머무르다가 서울로 돌아온다. 38일간의 일정 중에서 원래 목적지로 했던 함흥으로 가서 조상의 묘를 참배했다는 기록은 없다. 조사의의 반란군으로 길이 막혀서 가지 못했는지 실제로 갔는데 기록이 없는 것인지 그 이유는 알 수 없다.</p> <p>이후에도 태조가 함흥으로 간 기록은 조선왕조실록에는 없다. 즉 태조가 정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승하하기까지 10여 년 동안 태조가 함흥에 가려고 했지만 머문 기록은 없다.</p> <p>12월 8일 태조는 평양 쪽에서 행차를 돌려 개성으로 돌아왔다. 이 소식을</p>



시기	태조-태종 간 관계 변화와 주요 사건
	<p>들은 태종은 직접 개성 서쪽 황해도 금교역으로 나가 아버지 태조를 맞이하고 헌수했다. 이후 태조는 주로 개성 태상전에 머물며 수시로 태종의 문안을 받으며 지냈다.</p> <p>태조와 태종의 금교역 만남을 기점으로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4년간에 걸친 태조와 태종의 갈등 국면이 봉합 국면으로 들어섰다. 아버지와 아들의 극적인 화해 장면은 이후 ‘함흥차사’와 ‘의정부’ 관련 야사와 설화로만 들려져 민간에서 전승되었고, 그 전승된 이야기들은 조선 중후기의 야담집과 &lt;연려실기술&gt;을 비롯한 역사서에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은 당시 실록의 내용을 모른 채 전승된 것으로 시간, 장소 면에서 역사적 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이 많다.</p>
<p><b>갈등-봉합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조 외유 중단</li> <li>◦ 한양 재천도 준비</li> </ul>	<p><b>1403년 (태종 3년) ~ 1405년 (태종 5년) 10월</b></p> <p>태조가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고 이후 2년 동안은 한양과 개성 중 도읍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조정 내부에서 그리고 태조와 태종 간의 의견 대립이 계속되었다. 조준은 중국 주나라의 양경(兩京)제를 참고해서 한양과 개성을 모두 도읍으로 두고 개성에도 따로 종묘를 세울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태조는 양경제에 반대하며 1404년 9월 1일 박석명을 태종에게 보내 말하기를 “송도는 왕씨의 구도(舊都)이니 그대로 거주할 수 없다. 지금 왕(태종)이 다시 이곳에 도읍하는 것은 시조(始祖)의 뜻에 움직여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한양 재천도의 의지를 분명하게 전했다. 이에 태종은 태조의 뜻을 받아들여 명년 겨울에 마땅히 궁실을 옮길 것이라는 교지를 내렸다. 그리고 이후 태종은 개성에서 한양을 다니며 자신이 거주할 궁실을 지을 터를 물색한 뒤 10월 6일 창덕궁을 짓도록 명을 내렸다.</p> <p>이 기간 태조는 외유를 거의 중단하고 개성의 태상전에 주로 머물렀다. 태종은 수시로 태상전에 가서 문안하고 헌수했으며 어떤 때에는 큰 연회를 베풀어 부자가 함께 주악을 즐기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시절 부자간의 갈등이 점차 봉합되어 아물어갔고 민심도 안정되었다. 이와 함께 태종은 태조의 한양 재천도 뜻을 과감히 받아들이고 재천도를 준비하는 한편 안정적으로 정국을 이끌며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했다.</p>
<p><b>화해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양 재천도 완료</li> <li>◦ 태조 승하</li> </ul>	<p><b>1405년 (태종 4년) 10월 ~ 1408년 (태종 8년) 5월</b></p> <p>1405년 10월 5일 태종은 태상왕 태조에게 문안드리고, 10월 8일 개성을 떠나 한양으로 향했다. 3일 후인 10월 11일 왕의 행차가 한양에 도착했고 태종은 10월 19일 창덕궁이 완성되자 들어가 세자와 백관의 하례를 받았다. 태종은 11월 5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출발했다. 이튿날 태종이 견주(현 의정부 지역)로 나가 태조를 맞이하고 같이 이동하여 노원역에서 유숙하고 11월 8일 부자가 함께 한양으로 들어왔다. 태조는 따로 궁실(덕수궁)을 짓고 거처했고, 태종이 수시로 문안을 드리고 헌수했다. 12월 24일은 태종이 헌수를 드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즐거운 자리를 만들었다.</p> <p>이후 1406년부터 1408년 태조가 승하하기까지 태종은 극진히 아버지 태조를 모셨다. 태종은 동문 밖 교외 지역이나 광주, 수원 등지로 나가 사냥하고 강무(講武)하기를 즐겼는데 좋은 짐승을 잡으면 이를 가져다 태조에게 바치기</p>

시기	태조-태종 간 관계 변화와 주요 사건
	<p>도 했다.</p> <p>이 시기 태조의 외유는 1406년 9월 20일 태조가 요양차 황해도 평주의 온천으로 떠난 것이 전부이다. 태조는 11월 5일 한양으로 돌아왔는데 태종은 양주(楊州) 남교(南郊)에 나가 태조를 마중하여 양주 객사에 머물며 현수하고 매우 즐겼다. 이튿날 새벽 해촌(海村, 지금의 노원구 부근)을 거쳐 한양으로 돌아왔다.</p> <p>이듬해부터 태조는 건강이 좋지 않아 멀리 나가지 않고 줄곧 한양의 태상전에 머물렀는데 1408년 연초부터 병세가 악화되므로 태종은 하루에 두 번이나 문안을 가는 등 극진히 태조를 모시다 결국 5월 24일 창덕궁 별전에서 임종을 지켜보게 된다.</p>

<표> 1398년 태조 양위 후 태조-태종 간 관계 변화 양상과 주요 사건

## 6.2. 기록에 대한 검토

- 조선왕조의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1398년부터 1408년까지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행적을 거의 빠짐없이 자세히 전하는 신뢰할 만한 기록임
- 조선왕조가 정치적 기틀을 마련해가던 시기 태조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갈등, 대립, 화해의 이야기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근거해 정확한 장소와 시간에 기반하여 충분히 재구성할 수 있음

## 6.3. 의정부 지역에 전해오는 태조 이성계 환궁 설화와 역사 기록의 비교·분석

### 6.3.1.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주요 사실 정리

#### 태상왕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갈등과 대립 (1398~1402)

- ① 1398년(태조 7년) 1차 왕자의 난 이후 태조 이성계는 권력과 왕위를 잃고 태상왕의 지위로 물러남
- ② 이어서 즉위한 정종은 도움을 개성으로 다시 옮겨 이성계는 자신이 지은 경복궁을 나와 개성 태상전에 머무는 치욕을 경험함
- ③ 불만을 품은 이성계는 1402년(태종 2년)까지 자신의 아들이자 새로운 권력자 태종 이방원과 갈등하고 대립하며 재기를 도모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줌
- ④ 이로부터 약 4년간 이어진 태상왕 이성계의 소요산, 회암사, 금강산, 함경도, 평안

도 지방으로의 외유 사실은 민간에 소문과 이야기로 퍼져 훗날 ‘함흥차사’ 설화를 만들어냄

[태상왕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의 화해와 한양 재천도] (1402~1408)

- ⑤ 1402년 12월 태상왕 이성계가 배후에서 조종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조사의(趙思義)<sup>6)</sup>의 난’이 실패하며 이성계는 다시 개성으로 돌아오고 그 태종은 부왕의 행차를 개성의 서쪽 교외 금교역에 나가서 영접
- ⑥ 태종은 금교역에서 헌수(獻壽)의 예를 행하며 다시 돌아온 아버지를 극진히 대접함으로써 부자간의 갈등은 봉합 단계에 이르고 태종은 개성에서 아버지를 수시로 문안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함
- ⑦ 이성계 역시 외유를 그만두고 왕궁 가까이서 주로 머무르는 행보를 보임
- ⑧ 이러한 1402년 이후 부자간의 화해 무드는 국가 정책에도 영향을 줘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 이성계의 오랜 지론을 받아들여 도읍을 다시 개성에서 한성부로 옮기기로 결정함
- ⑨ 1405년 10월 한양에 창덕궁이 완공되자 태종은 도읍을 다시 한성부로 옮기고, 아버지보다 먼저 한성부로 감
- ⑩ 며칠 뒤 태상왕 이성계가 개성을 떠나 전주(현 의정부 지역)를 거쳐 한성부로 향하자 태종은 그 소식을 듣고 전주로 나가 아버지를 반갑게 맞이하고 함께 이틀에 걸쳐 해촌과 노원역을 통과해 한성부에 동반 입성함
- ⑪ 1405년 겨울, 양주에서 부자가 다시 만나 양주-의정부-노원-한양으로 오는 길은 아버지와 아들이 냉엄한 권력과 새나라 조선의 진로를 두고 오랫동안 갈등하고

6) 조사의(趙思義, ?~1402)는 조선 전기 문신이다. 안변부사(安邊府使)로서 당시 태종에게 학대받은 신덕왕후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 아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여 참형되었다. 신덕왕후(神德王后:太祖의 繼妃) 강씨(康氏)의 친척으로 1393년 형조에서 의랑(議郎)을 지냈고 1397년 첨절제사(僉節制使) 등을 지냈다. 하지만 1398년 이방원의 난이 일어나면서 직위에서 쫓겨났으며 서인(庶人)으로 전락하여 전라도 수군에 배치되어 노역에 종사하였다. 이후 풀려나 1402년 안변부사(安邊府使)로 복권되었다. 그가 안변부사로 보임을 받은 것은 이성계의 영향이었다. 이성계는 조사의가 신덕왕후의 친척이라고 아꼈는데 태종 이방원은 이 점을 알고 그를 풀어주고 안변부사로 보냈던 것이다. 부임지인 안변에 당도하여 지방 호족세력들을 규합하여 반란을 도모하였고 이성계는 조사의의 지지하였다. 조사의는 당시 태종에게 학대받은 신덕왕후의 원수를 갚는다는 명분 아래 반란을 일으켰다. 조정에서는 태조 이성계를 설득하기 위해 박순(朴淳)·송류(宋瑠)를 보냈으나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태종 이방원이 이천우(李天祐)와 군사를 보내 진압하려 했지만 모두 격퇴되었고 조사의의 반란군은 병사를 평안도 덕천(德川)·안주(安州) 방면으로 이동시켰으며 군사는 1만 명으로 늘어났다. 1402년 11월 27일 청천강에서 진압군과 싸움이 벌어졌으나 조사의가 이끄는 반란군이 대패하고 말았다. 사기가 저하된 부하들이 흩어지자 안변에 돌아와 아들 조홍(趙洪)과 함께 관군에 잡혀 12월 7일 도성으로 압송되었다가 18일 참형되었다. (두산백과 두피디아 ‘조사의’ 항목)

대립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해소했던 드라마틱한 화해의 장이었다고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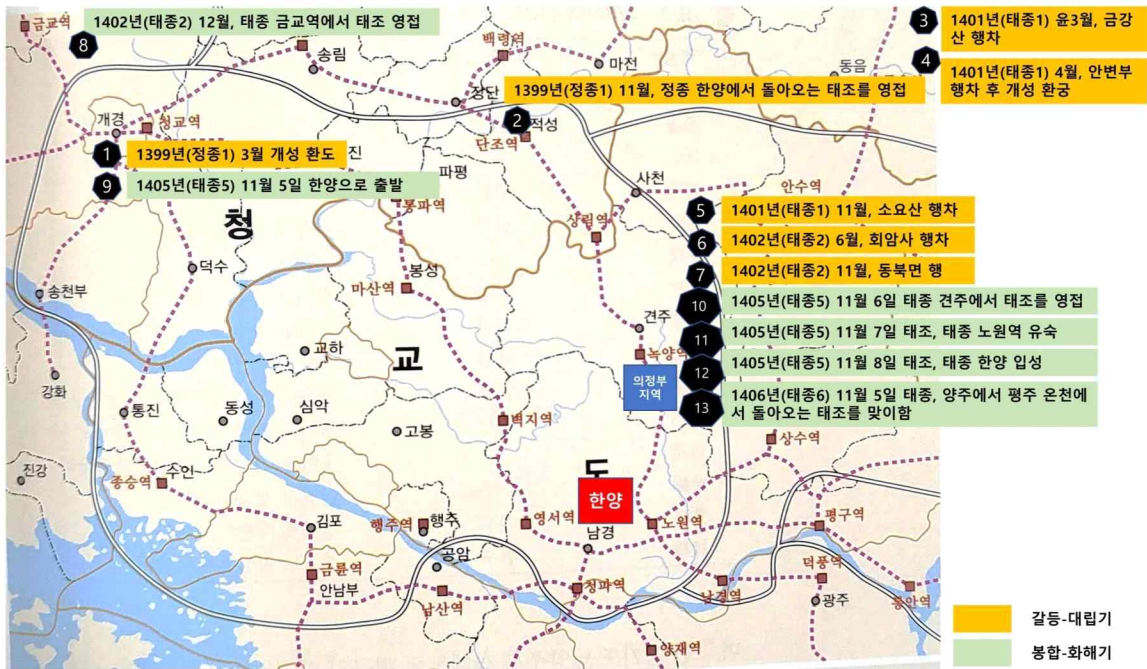
### 6.3.2. 『조선왕조실록』의 태조 양위 이후 태조-태종 상봉 관련 주요 기사

시기	실록 기사	태조의 거처	태종의 거처	의정부 지역 연관성
1398년 (태조 7년 정종 즉위년) 3월 7일	개성유후사로 환도함. 공후(公侯)는 모두 따르고 각사(各司)에서는 반씩만 따름. 태조는 회안군(懷安君) 이방간(李芳幹)과 각사의 관원 한 사람씩을 대동하여 정릉(貞陵)에 감	한성 → 정릉		태조, 한양 → 개성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추정)
1399년 (정종 1년) 3월 7일	개성유후사로 환도함. 공후(公侯)는 모두 따르고 각사(各司)에서는 반씩만 따름. 태조는 회안군(懷安君) 이방간(李芳幹)과 각사의 관원 한 사람씩을 대동하여 정릉(貞陵)에 감	한성 → 정릉		태조, 한양 → 개성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추정)
1399년 (정종 1년) 10월 19일	태조가 흥천사 사리전이 낙성됨에 신도에 거둥하여 수록재를 베풀어 선왕(先王).선비(先妣).현비(顯妃).죽은 아들과 사위.고려의 왕씨를 제사지냄.	개성 → 한성	개성	태조, 개성 → 한양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추정)
1399년 (정종 1년) 11월 17일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한경(漢京)에서 개성으로 돌아오는 태조를 장단에 가서 맞이함.	한성 → 장단	개성	태조, 한양 → 개성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확실)
1400년 (정종 2년, 태종 즉위년) 4월 18일	태조가 정릉사(貞陵社) 탑전에 서 7일 동안 불사를 베풀고, 유동(楡洞)에 불당을 지어 사리를 안치함.	한성	개성	태조, 개성 → 한양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추정)
1400년 (정종 2년, 태종 즉위년) 10월 15일	태상왕(태조)이 신도에 거둥함.	개성 → 한성	개성	태조, 개성 → 한양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추정)

시기	실록 기사	태조의 거처	태종의 거처	의정부 지역 연관성
1401년 (태종 1년) 윤3월 11일	태상왕이 신도에서 금강산으로 거동함.	개성 → 금강산	개성	태조, 한양 → 금강산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추정)
1402년 (태종 2년) 4월 28일	태상왕(태조)이 소요산으로부터 신도에 행차하여 흥천사에서 환왕(桓王)의 기신(忌辰) 법회를 베풀.	양주 소요산 → 한성	개성	태조, 소요산 → 한양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확실)
1402년 (태종 2년) 5월 1일	태상왕이 소요산으로 돌아감.	한성 → 양주 소요산	개성	태조, 한양 → 소요산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확실)
1405년 (태종 5년) 11월 6일	임금이 태상왕을 옛 견주(見州)에서 맞이함. 이튿날 노원역(蘆原驛)에서 머물.	견주(현 의정부 지역) → 노원역	한성 → 견주(현 의정부 지역) → 노원역	태조와 태종, 의정부 지역에서 만남 (확실)
1406년 (태종 6년) 9월 10일	임금이 덕수궁에 나아가 태상왕에게 강무(講武)하러 간다고 고(告)하였다.	한성(덕수궁)	한성 → 포천·철원	태종, 포천 철원에서 강무할 때 의정부 지역 통과 (확실)
1406년 (태종 6년) 9월 15일	대가(大駕)가 평강현(平康縣)에 이르렀다.	한성(덕수궁)	평강	태종, 포천과 철원에서 강무하고 돌아올 때 의정부 지역 통과 (확실)
1406년 (태종 6년) 11월 5일	임금이 양주(楊州) 남교(南郊)에 나가 머물렀으니, 태상왕(太上王)의 환가(還駕)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태상왕이 양주 객사(客舍)에 머무르니, 임금이 알현(謁見)하고 술을 올려 매우 즐거웠다. 저물어서 남교의 장전(帳殿)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에 태상왕이 출발하여 해촌(海村)의 들에 머무르니, 임금이 따라와서 술을 올리고, 냇가의 행전(行殿)으로 물러와서 머물었다.	개성 → 양주	한성 → 양주	태조-태종 양주에서 회동 후 만나 해촌 들(현 노원구 지역)로 이동시 의정부 지역 통과 확실

<표> 『조선왕조실록』의 1398년 태조 양위 이후 태조-태종 상봉 관련 주요 기사

### 6.3.3. 태조 양위 이후 태조-태종 상봉 관련 지도



<그림> 태조·태종 상봉 관련 시기와 장소

### 6.3.4. 태조-태종 상봉의 장소로서의 견주

#### (1) 조선왕조실록의 ‘견주’ 관련 기사

시기	국역문	원문	비고
태조4년 (1395년) 6월 6일	한양부(漢陽府)를 고쳐서 한성부(漢城府)라 하고 아전들과 백성들을 견주(見州)로 옮기고 양주군(楊州郡)이라 고쳤다.	改漢陽府爲漢城府， 移其吏民于見州， 改爲楊州郡。	한성부를 설치하면서 지금의 의정부, 양주 일대의 견주현을 양주군으로 고치는 행정구역 변경
태종 5년 (1405년) 11월 6일	임금이 태상왕을 옛 견주(見州)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숙소(宿所)에 나아가 헌수(獻壽)하니 태상왕이 조용히 이르기를, “양도(兩都)에 내왕(來往)하여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편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한군데〉 정(定)해 살 수 있겠는가”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하고 이내 모시고 잤다.	○上迎太上王于古見州。 上詣宿所獻壽， 太上王從容謂曰： “兩都來往， 民不安業。自今其能定居 乎？”上曰：“謹奉教。” 仍陪宿。	개성에서 한양으로 오는 태상왕의 행차를 한양에 있던 태종이 동문 밖으로 나아가 견주에서 맞이함
태종 6년 (1406년) 11월 5일	임금이 양주(楊州) 남교(南郊)에 나가 머물렀으니, 태상왕(太上王)의 환가(還駕)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태상왕이 양주 객사(客舍)에 머무르니，	上出次楊州南郊， 候太上之還也。太上次楊 州客舍，上謁見， 進酒極歡。暮，	동년 10월 황해도 평주, 개성, 제릉에 거동했다가 돌아오는 태상왕의

시기	국역문	원문	비고
	임금이 알현(謁見)하고 술을 올려 매우 즐기었다. 저물어서 남교의 장전(帳殿)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에 태상왕이 출발하여 해촌(海村)의 들에 머무르니 임금이 따라와서 술을 올리고, 냇가의 행진(行殿)으로 물러와서 머물었다.	還南郊帳殿。翼日，太上王曉發，次于海村之郊，上隨至進酒，退次于川邊行殿。	행차를 태종이 양주에서 맞이하여 함께 돌아옴

<표> 『조선왕조실록』의 견주(양주)에서 태조-태종 상봉 관련 기사

## (2) 1405년 태조와 태종의 견주 행차 경위

- ① 1405년 가을, 조선왕조의 수도 선정을 둘러싼 오랜 논쟁이 마무리되어 태종은 한성부에 창덕궁을 짓고 한성부에서 정사를 펴기로 결정함
- ② 1405년 10월 5일 태종은 태상왕 태조에게 문안드리고, 10월 8일 개성을 떠나 한양으로 향해 3일 후인 10월 11일 태종의 행차가 한성부에 도착
- ③ 태종은 10월 19일 창덕궁이 완성되자 들어가 세자와 백관의 하례를 받음
- ④ 태조는 태종보다 한 달 정도 늦은 시점인 11월 5일 개성에서 한양으로 출발함
- ⑤ 태조의 출발 소식을 들은 태종은 견주(현 의정부 지역)로 나가 태조를 맞이하고 같이 이동하여 노원역에서 유숙하고 11월 8일 부자가 함께 한성부 입성함
- ⑥ 이후 태조는 따로 궁실(덕수궁)을 짓고 거처했고, 태종이 수시로 문안을 드리고 현수함

## (3) 태조~태종 연간 견주와 양주의 영역과 주요 역참의 위치<sup>7)</sup>

- ① (고려~조선 초) 견주현의 영역 : 현재의 양주시와 의정부시 전체 및 고양시 일부(1395년 한성부가 설치되며 양주부로 흡수됨)
- ② 조선시대 양주의 영역 : 서울 광진구·중랑구·노원구·도봉구 전체, 경기 구리시·의정부시·양주시·남양주시·동두천시 전체, 경기 포천군·고양시·연천군 일부
- ③ 해촌(海村 또는 海等村)의 위치 : 현 서울 도봉구 지역
- ④ 노원역(蘆原驛)의 위치 : 고려시대 남경 소속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흥인문(동대문) 밖 4리(1.6km)의 한성부 소속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김정호의 동여도에도 정릉천 외곽, 수유현 남쪽으로 표기되어 있음. 노원역은 현재의 서울 노

7) 이기봉(2011), 「고려시대 양주의 읍치이동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권 제3호; 정요근(2014), 「도봉구 연혁 기록의 비교검토와 보정」, 『인문과학연구』 제9집.

원구 지역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정릉천과 수유동 사이에 있었음

(4) 1405년 전주와 양주에서의 태조와 태종의 상봉 관련 지도



<그림> 1405년 태조-태종 상봉 관련 지도

(5) 1405년 태조-태종 전주 상봉의 역사적 의미

- ① 태조는 태종과 만난 자리에서 개성을 더 이상 조선의 수도로 두지 말고 오직 한성부만을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국가 창업기의 혼란을 수습하는 한편 개성과 한성을 오가면서 발생하는 백성의 괴로움과 재정의 부담을 덜어야 할 것을 당부함
- ② 태종은 이러한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를 가르침으로 받들어 실행에 옮길 것을 약속함
- ③ 1405년 (음력) 11월 6일 전주(현 의정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태조와 태종의 상봉은 1398년 이후 1차 왕자의 난과 태조의 양위, 개성 환도, 2차 왕자의 난, 조사의의 난 등을 겪으며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태상왕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 부자간의 완전한 화해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국가 창업기의 오랜 정치적 갈등과 수도 선정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어 조선왕조의 안정적인 발전 토대를



만들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임

(6) 조선시대 지명유래와 태조·태종 상봉 관련 역사 기록의 의미분석

- ① 『조선왕조실록』의 태조와 태종의 역사적 행보와 『연려실기술』 속 간에 전승된 이성계, 이방원 부자의 이야기는 시기나 장소 면에서 일치되지 않은 점이 많지만 정사와 야사를 종합하여 보려는 관점이 필요하며 그 속에서 역사적 진실과 상상력을 확인하고 이를 지역의 기억 유산으로 공유해감이 바람직함
- ②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태조의 행보를 보면 태조는 분명 양주, 동두천, 의정부 일대에서 그 지역 백성들과 더불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③ 특히 이곳 백성들은 1년 남짓 사이에 여섯 차례 이상 태종 자신이나 태종이 보낸 사람들이 태조에게 다녀가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태조와 의정부시의 지명과 관련된 설화는 바로 이런 역사적 사실에서 비롯됨
- ④ ‘조사의(趙思義)의 난(亂)’과 같이 대립이 극단까지 치달았던 태조와 태종은, 어느 시점에서 화해하고 의정부 지역에서 만났으며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부터 그 사건을 목격한 백성들이 화해의 계기가 되었을 만한 사건을 꾸며 이야기를 만들었을 수 있음
- ⑤ 이런 방식으로 설화가 만들어지는 일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고 또 설화가 만들어지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기도 함
- ⑥ 의정부 지역의 태조 관련 지명 유래, 환궁 설화, 역사(정사)의 기록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루어진 기억의 축적이며 시대의 진실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거기에는 나라의 안정과 평화를 바랐던 백성들의 소망이 담겨 있음
- ⑦ 조선시대 도읍 한양과 가깝고 한양과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의정부 지역은 왕실 관련 장소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오고 이것이 지명으로 굳어져 의정부시 정체성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됨
- ⑧ 특히 1405년 11월 6일 견주(현 의정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태조와 태종의 극적인 만남은 신생국가 조선이 안정적인 발전토대를 만든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임

- ⑨ 의정부시가 만들어갈 태조·태종 관련 문화콘텐츠는 의정부와 관련된 과거의 기억과 기록을 한 데 묶어 지역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의정부의 새로운 역사 정체성을 정립해 나가야 함

## 6.4. 태조와 태종의 의정부 회동 검토

### 6.4.1. 1차 회동

- 의정부 지역에서의 역사적 만남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2번의 왕자의 난을 거치고 수도를 개성으로 옮긴 후 태조의 뜻에 따라 한양으로 재천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태조가 이를 수궁하여 한양으로 귀환하는 행사가 의정부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중요함.
- 조사의의 난(趙思義亂)<sup>8)</sup>이 평정된 지 이미 3년의 기간이 지났으나 태종을 인정치 않다가 한양 천도 후에는 이를 받아들이고 한양으로 돌아가게 되는 상징적인 회동이었던 점에 의미가 있음.
- 왕자의 난 등으로 한양을 떠난 태조를 태종이 고견주(古見州)에서 맞이함.

戊戌/上迎太上王于古見州。上詣宿所獻壽，太上王從容謂曰：“兩都來往，民不安業。自今其能定居乎？”上曰：“謹奉教。”仍陪宿。

임금이 태상왕을 옛 견주(見州: 백제 때 매성군 또는 마홀이라고 불렸던 곳. 의정부의 옛 이름임)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숙소에 나아가 현수하니, 태상왕이 조용히 이르기를, "양도에 내왕하여 백성들이 생업을 편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는 정해 살 수 있겠는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이내 모시고 잤다<sup>9)</sup>.

- 고견주 지역은 당시의 양주의 치소가 불곡산 아래로 옮겨가서 견주를 고읍내(현 양주시 고읍동)로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나 양주시와 의정부시가 분계가 명확치 않은 시점으로 만났던 장소를 특정하기는 어려움.

8) 안변 부사 조사의와 신덕왕후 강씨(태조 이성계의 계비)의 조카 강현은 그 원수를 갚는다면 태종(이방원) 때인 1402년 태상왕 태조의 위세(태조 이성계의 배후 가능성)를 등에 업고 봉기하였다. 안변을 중심으로 동북면 전 지역이 거점이며 여진족의 참여 가능성(이성계의 활동무대) 조정에서 박순(朴淳), 송류(宋瑠) 등을 파견하여 반군을 회유하였으나 도리어 죽음을 당하였다. 초기에는 반군이 우세하여 관군의 선봉 이천우(李天祐)를 격파하였으나 그 후 관군이 군을 재정비하고 재공격을 가하자 반군은 무너졌고 조사의 등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9) 『태종실록』 태종 10권, 5년(1405) 을유 / 명 영락(永樂) 3년 11월 6일(무술) 1번 째 기사

- 양주객사로 비정하는 인사도 있으나 1406년의 회동장소를 고경주라 칭하지 않고 양주객사(太上次楊州客舍)로 지칭하고 있어 이와 구분하여 보아야할 듯 함.
- 1402년(태종 2년) 안변부사 조사의 난이 정리되고 태조가 한양으로 귀환하는 시기인 관계로 아직 왕권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임을 감안하여 호위에 적합한 대규모 병력 집결과 방비가 가능한 벌판에 장전(帳殿)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음<sup>10)</sup>.

#### 6.4.2. 2차 회동

辛酉/上出次楊州南郊，候太上之還也。太上次楊州客舍，上謁見，進酒極歡。暮，還南郊帳殿。翼日，太上王曉發，次于海村之郊，上隨至進酒，退次于川邊行殿。

임금이 양주(楊州) 남교(南郊)에 나가 머물렀으니, 태상왕(太上王)의 환가(還駕)를 기다리기 위함이었다. 태상왕이 양주 객사(客舍)에 머무르니, 임금이 알현(謁見)하고 술을 올려 매우 즐거웠다. 저물어서 남교의 장전(帳殿)으로 돌아왔다. 이튿날 새벽에 태상왕이 출발하여 해촌(海村: 현 의정부 장암동 '하촌들'—소원천과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 바다처럼 넓다 해서 '해등촌'이라 불렀음.)의 들에 머무르니, 임금이 따라와서 술을 올리고, 냇가의 행전(行殿)으로 물러와서 머물렀다<sup>11)</sup>.

- 한양으로 태조가 돌아온 후 지속적으로 태종이 태종을 알현하는 일이 정례화됨으로 화해 측면에서의 회동은 아님.
- 1405년 의정부에서 현수례를 올린 후 한양으로 돌아와 덕수궁등 태조가 머무는 곳을 찾아 현수례를 올린 일이 1406년 의정부에서 알현하기 전에 21차례가 있었음.
- 평주(平州) 온정(溫井)에 다녀오는 상왕을 양주객사에서 알현하고 술을 올린 후에 양주 남교(南郊)<sup>12)</sup>의 장전(帳殿)<sup>13)</sup>에서 자고 다음날 태상왕은 해촌에서 머무는데 이 곳에서 술을 올리고 태종은 인근 냇가의 행전(行殿)<sup>14)</sup>에서 머물렀다 태상왕을 모시고 한양으로 돌아옴.

10) 『연려실기술』 권 1, 태조 조 고사본말. 태조가 함흥으로부터 돌아오니, 태종이 교외에 나가서 친히 맞이하면서 성대히 장막을 설치했다.

11) 『태종실록』 12권, 태종 6년 1406년 명 영락(永樂) 4년) 11월 5일(신유) 1번 째 기사

12) 남교는 지명으로 보기보다는 남쪽 지역을 의미하는 듯함. 1406년 양주에서 머물때도 해촌지교라고 표현하고 있다.

13) 임금이 임시로 거처하기 위해 꾸민 자리. 구름 차일(遮日)을 치고 휘장으로 사방을 둘러 막고 바닥을 높여서는 별문석(別紋席)이나 채화석(綵花席) 등을 펴.

14) 행재소(行在所)에 임시로 마련한 장전(帳殿).



<그림> 1910년대 의정부 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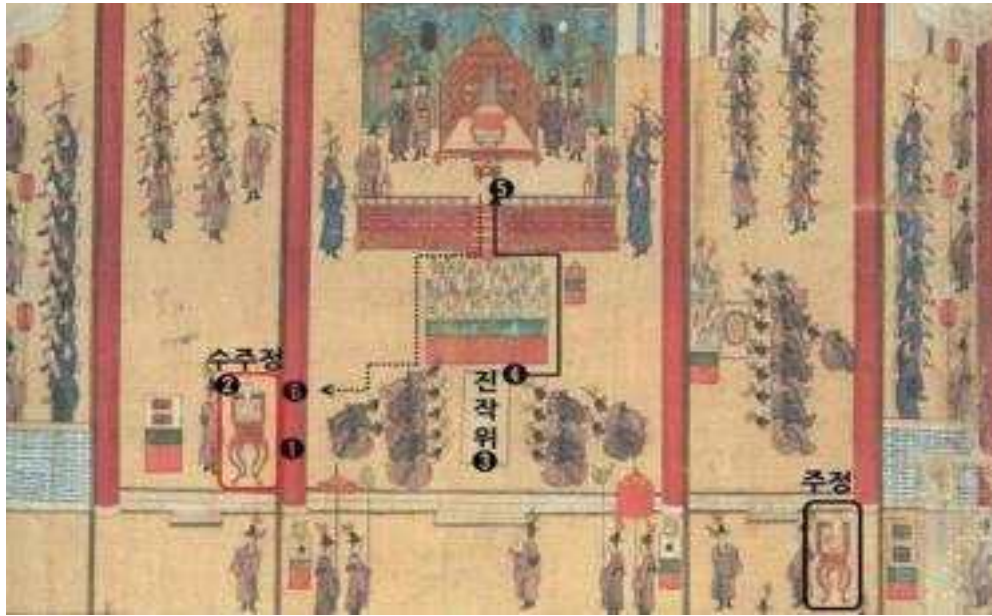
## 7. 태조 태종 관련 문화행사화 검토

### 7.1. 어가행렬(御駕行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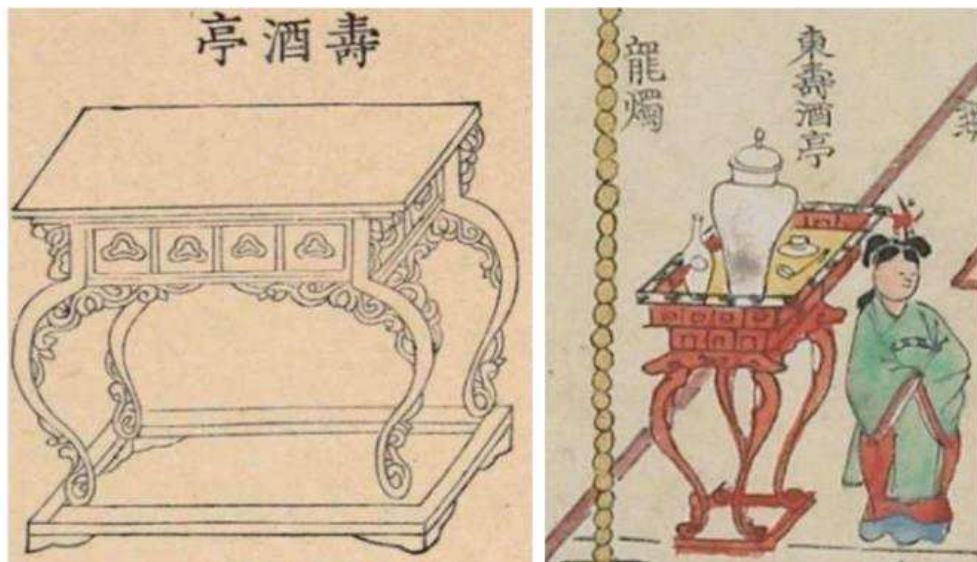
- 태상왕 이성계와 태종 이방원은 궁궐 밖으로 공식 행차시 군병과 신하를 대동한 장엄한 행렬을 선보임
- 어가행렬의 전반부는 왕의 행차를 앞에서 인도하는 선상군병(先廂軍兵)과 독(纛, 쇠꼬리로 장식한 큰 깃발), 교룡기(蛟龍旗, 상상 속의 큰 용인 교룡을 그린 깃발) 등 왕을 상징하는 의장물로 구성되어 있음
- 이어 등장하는 어가행렬은 어가 앞에서 화려하고 장엄하게 어가의 출현을 알리는 부분, 각종 기치(旗幟)와 의장물을 들고 가는 의장병, 분위기를 돋우는 내취(內吹, 악대)와 고취 악대(鼓吹樂隊)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뒤따르는 수행 행렬은 문무백관 등 호위 배종(護衛陪從)하는 신하들로 구성됨
- 어가행렬은 아직 조선시대 복제가 바뀌지 않은 시점임을 감안하여 고려말기의 복제에 기초해 충실하게 재현해야 하며 이에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정부 문화재단에서 시행한 태조 태종 퍼레이드 고증을 바탕으로 구성'

### 7.2. 헌수(獻壽)

- 태종 이방원이 태상왕 이성계를 수시로 문안하고 아버지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며 연회를 베풀고 술을 올렸던 의식 (1400년 태종 즉위 후 8년간 '헌수' 44회 기록)
- 『세종실록』에 자세한 헌수 의식의 절차가 기록돼 있으며 그림이 있는 의궤도 전해져 오고 있으므로 충실한 재현 행사 가능



<그림> 조선 왕실의 헌수 의례 설명도<sup>15)</sup>



<그림> 조선 왕실의 헌수 의례에 사용된 기물<sup>16)</sup>

15) 이아름·이은주(2017),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문화재』 제50권 4호, 68쪽.

16) 앞의 논문, 72쪽.

### 7.3. 가무(歌舞)

- 태종 이방원이 태상왕 이성계를 문안, 헌수한 뒤 잔치를 열어 아버지와 아들이 때로는 신하들이 함께 춤을 추었다는 실록의 기사가 있음
- 조선왕조실록 기사

[1402년(태종 2년) 1월 29일]

임금이 다시 태상왕에게 헌수(獻壽)하였다. 태상왕이 일어나 춤을 추니, 임금도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1405년(태종 5년) 12월 24일]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 헌수(獻壽)하였는데, 임금이 자리에서 일어나 춤을 추고 매우 즐거웠다.

[1406년(태종 6년) 6월 15일]

임금이 덕수궁(德壽宮)에 나아가 헌수(獻壽)하고, 종친(宗親)과 재상(宰相)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니, 태상왕(太上王)이 매우 기뻐하여 일어나 춤을 추다.

### 7.4. 격구(擊毬)

- 격구는 옛날 무관들과 민간에서 하던 무예의 한 가지로 말을 탄 채 손가락처럼 생긴 막대기로 공을 쳐서 상대방 문에 쳐 넣는 놀이로 태조 이성계는 격구의 명수였음
- 태종이 아버지를 문안하여 격구를 즐겼다는 기록이 실록에 두 차례 등장
- 『무예도보통지(武藝圖譜通志)』(1790년 편찬)에 격구의 자세한 방법과 장비를 설명해 줬으므로 충실한 재현 행사 가능
- 조선왕조실록 기사

[1404년(태종 4년) 10월 27일]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나아가 격구(擊毬)하고 술자리를 마련하여 극진히 즐거워하였으니, 태상왕이 부른 것이다.

[1405년(태종 5년) 4월 18일]

임금이 태상전(太上殿)에 문안하였다. 격구(擊毬)하고, 이내 헌수(獻壽)하여 극진히 즐거웠다.

## 7.5. 태조와 태종의 의정부 퍼레이드 구성의 검토

### 7.5.1. 현행 태조 태종 관련 전국 문화행사

지자체	축제명	시작 연도	행사 기간	주요 내용	전거
경기도 의정부시	회룡 문화제	1986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실 행차 재현 퍼레이드</li> <li>- 개막식</li> <li>- 회룡콘서트</li> <li>- 회룡난장</li> <li>- 전통놀이 경연대회</li> <li>- 창작인형극 '의정부와 함흥차사'</li> <li>- 전통체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조·태종 상봉 설화</li> <li>- 태조·무학 회룡사 설화</li> </ul>
경기도 양주시	양주 회암사지 왕실축제	2017년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가행렬</li> <li>- 양주목사의 환영마당</li> <li>- 창작뮤지컬</li> <li>- 무형문화재 공연 (양주농악, 양주소놀이굿)</li> <li>- 어린이 퀴즈대회 '청동금탁을 올려라'</li> <li>- 창작 가극 코믹 연극 '영웅불패'</li> <li>- 창작 뮤지컬 '하늘을 받들다'</li> <li>- 시민한복모델 선발대회</li> <li>- 힐링음악회</li> <li>- 회암사지 별빛투어 (회암사지)</li> <li>- 미디어파사드 (박물관 외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자주 찾기로 유명했던 치유(힐링)와 안식의 공간 회암사지</li> <li>-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는 회암사지에서 태조 이성계의 발자국을 따라 걸으며조선시대로 시간여행</li> </ul>
서울특별시 성동구	태조 이성계 축제	1997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성계 사냥행차 퍼레이드 재현</li> <li>- 구립 예술단체 공연</li> <li>- 뮤지컬 갈라쇼 '창업(創業)'</li> <li>- 소년 이성계 선발대회</li> <li>- 성동구민 노래자랑</li> <li>- 사냥음식 먹거리 장터 (마장동 축산물시장 연계)</li> <li>- 전통체험 및 부대행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왕실 사냥터와 목마장 기록</li> <li>- 종량천 살곳이 다리 설화</li> </ul>
강원도 횡성군	태종노구 문화제	2018년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노구할미 순례기행</li> <li>- 지역작가 창작시 발표</li> <li>- 창작공연</li> <li>- 백일장, 포럼</li> <li>- 아트뮤지엄 운영 (노구할미 스토리)</li> <li>- 유네스코ICM 전통무예시범</li> <li>- 면민안녕기원제</li> <li>- 농특산물, 토속음식 판매 부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종 이방원, 스승 원천석 방문 설화</li> </ul>



지자체	축제명	시작 연도	행사 기간	주요 내용	전거
전라북도 전주시	태조 어진 봉안 축제	1999년	10월	- 태조 어진 경기전 봉안 재현 - 히스토리텔링 국악 콘서트 ‘출광대가 들려주는 어진이야기’ - 판소리 ‘태조 이성계, 대풍가를 부르다!’ - ‘조경묘’ 개방 - 체험프로그램 ‘경기전을 지켜라’ ‘경기전에 나를 담다’	- 전주 경기전 태조 어진 봉안
	전주 문화재 야행	2016년	5월, 10월	- 경기전 준비실록 - 문화재 조선 퍼레이드 - 전라감영 크라임씬 - 문화재 이야기 술사 - 태조와 야행이를 만나다	- 경기전(태조 어진 보관) - 전주사고(조선왕조 실록 보관) - 전라감영
전라북도 남원시	황산 대첩제	1986년	8월 15일	- 황산대첩비지 현화 - 마상무예, 지상무예 - 전투 장면 재현 - 농악공연 - 기념식 - 장군 활쏘기 대회 - 투호 대회 - 대첩 식량 및 식수 나르며 이어달리기 - 연예인 초청 공연 및 주민 노래자랑	- 1380년 황산대첩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 문화제	1995년	10월	- 마이 산신제 봉행 - 궁중무용 금척무(金尺舞) - 전라좌도 풍물굿 경연대회 - 마이 백일장 대회 - 군민가요제	- 이성계 몽금척(夢金尺) 야사 - 태종2년 몽금척요 (夢金尺謠)
전라북도 순창군	순창 고추장 임금님 진상행렬	2010년	10월	- 순창 장류 축제 행사의 일환 - 장독 진상 행렬 재현	- 태조 이성계, 순창 만일사 방문 설화

<표> 전국의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관련 지역 축제 현황

## 7.6. 퍼레이드의 복식과 기물에 대한 검토

### 7.6.1. 왕조교체의 의미

- 고려 조선의 교체는 사회적 혁명이 아닌 역성혁명에 속하는 일종의 왕권 교체
- 국호는 고려를 승습(承襲)하고 의장법제 또는 전조(前朝)의 고사(故事)에 의한다”<sup>17)</sup>

- 정권교체에 즈음하여 백성들에 대한 유화책의 일환으로 고려 정권의 모든 제도를 계승한 것임
- 국왕과 세자의 장복(章服)은 명나라에서 사여(賜與)받고 나머지는 조선에서 제정하면 추인한다는 입장을 견지
- 태조 재위기간 복식제도에 대한 큰 변화는 없었음

#### 7.6.2. 조선왕조 복식의 1차 변경

- 태종 16년(1416년) 1월 13일 관복색(冠服色) 기구 신설
- 조관(朝官)의 관복을 홍무예제에 의하여 제정
- 주로 변경된 내용은 관제(冠制), 복식제(服飾制)이며 복식제는 대(帶), 패(佩), 수(綬), 홀(笏), 중단(中單), 상(裳), 폐슬(蔽膝), 말(襪), 이(履), 잠(簪)

#### 7.6.3. 사용할 복식과 기물의 특성

- 태조와 태종 시기는 아직 조선의 복제가 확정되기 전으로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고려말기의 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행렬 구성

#### 7.7. 행사화에 대한 검토의견 : 태조·태종 상봉 관련 문화콘텐츠 개발 방향

- 태조와 태종의 만남은 부자간의 두 왕의 만나는 행사로 조선시대 전체를 통틀어 가장 성대한 연회와 부대 행사가 있는 자리였음
- 기존 어가행렬에 무게를 두었던 행사 콘텐츠의 내용과 범위를 확대하여 현수, 가무, 격구 등 조선시대 왕실문화의 다채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품격 있는 행사를 충실히 고증하여 재현한다면 한층 참신한 문화콘텐츠를 만들 수 있음
- 현재 서울시와 수원시 등에서 행하는 정조대왕 행차는 수도 한양의 새로운 도시로 화성을 향해 있다면 의정부의 행렬은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 발생된 퍼레이드로 역사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퍼레이드 성격을 지님
- 의정부 단독으로 행차를 구성하는 것보다 양주시-의정부-서울시(도봉구-강북구-성북구-종로구 구간) 등의 도시가 공동으로 연대하면 지역간 협력사업이 될 뿐 아니라 초대형 거리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17) 『태조실록』, 태조원년(1392) 7월 28일조, 즉위교서.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음. 이는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와 강북의 문화를 한 눈에 보여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음.

## 8. 조선초기 국왕들과 의정부 연관성 고찰

### 8.1. 녹양의 범위

- 천보산, 도봉산, 수락산 중간의 평원지역 전체를 말함. 조선 초기에는 갑사(甲士)들의 둔토(屯土), 목장지이자 군사 훈련장으로 조선초기부터 수도 방위(京甲士)를 위해 갑사를 두었는데 갑사의 수는 처음 2,000인에서 점차 증가해갔고 양계갑사(兩界甲士;북부 국경수비)·착호갑사(捉虎甲士;호랑이수렵) 등으로 종류도 다양해져 1448년(세종 30) 이후에는 7,500인으로 늘어남. 조선말기에는 군사조직인 총위영(摠衛營)과 의정부(議政府)의 둔토(屯土)로 활용됨. 실록에서는 갑사둔(甲士屯)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군사들의 군량 뿐만이 아니라 운영비도 이곳에서 충당
- 조선 말기 현 의정부시 서부 지역은 조정기구인 의정부(議政府)의 둔토로 운영.

### 8.2. 녹양의 표현

- 녹양(綠楊) : 버드나무가 우거진 곳에 대한 지명
- 녹양원(綠楊原) : 녹양벌판
- 녹양역(綠楊驛) : 중앙정부와 지방간의 연결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치한 교통·통신조직
- 녹양원(綠楊院) : 조선시대에 출장하는 관원들을 위해 각 주요 도로와 인가가 드문 곳에 둔 국영 숙식시설. 30리 기준.
- 녹양평(綠楊坪) : 녹양뜰
- 녹양평(綠楊平) : 綠楊坪과 혼용
- 녹양목장(綠楊牧場) : 군사용 말을 키우는 목장. 태종 6년 4월 금주의 목장을 녹양의 교외(郊外)로 옮김. 금주 목장의 말들이 거주지의 농작물 훼손이 심하여 녹양으로 옮기도록 함.
- 녹양진(綠楊陣) : 군사들이 주둔하는 곳
- 녹양장(綠楊場) : 군사훈련장
- 녹양교(綠楊郊) : 녹양의 인근지역

### 8.3. 조선초기 국왕들의 녹양지역 어가행차

국왕	어가행차 횟수	어가행차 사유
태종	5회	태상왕 맞이2회(숙박), 사냥, 강무, 개경에서 환도길
세종	13회	상왕 맞이2회(숙박), 사냥, 강무 후 휴식
단종	1회	사냥
세조	9회	습진, 사냥
계	28회	

<표> 조선초기 국왕의 녹양지역 어가행차 횟수와 내용

- 태조와 태종의 의정부 지역 회동은 개성과 한양 사이에 위치하여 거리상 숙박을 해야 하는 지점이면서 대규모 병력이 야영할 수 있는 평지와 치안이 용이한 지역이었다는 점.
- 태조가 개성에 머물거나 이궁인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위치하고 있는 풍양궁(豐壤宮)<sup>18)</sup>에서 행렬이 출발 할 때 중간지점으로 의정부 지역이 선정됨.
- 태조와 태종, 세종 연간에는 선왕을 맞이하는 중간 기착지로 의정부가 선정되고 대부분의 의종부 행차는 초기 강원도지역에서 거행된 강무나 습진, 사냥(사냥도 강무의 한 형태임)을 위해 방문하여 행전(行殿), 장전(帳殿), 전좌(殿座)하였음.
- 태종조에서 세조대에 이르기까지 국왕이 친히 행령을 지어 의정부 지역을 방문한 사례가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총 28회 정도로 나타남.
- 이는 국토의 행로(行路)나 국방(國防), 한양의 배후 기지로서의 중요성을 나타낸다 할 수 있음.

18) 피방할 곳으로 남쪽에는 한강변에 있는 낙천정, 동쪽에는 풍양궁을 짓고 서쪽에는 무악에 궁을 지어 때에 따라 옮겨가면서 액운을 피하고자 함. 이후 태종은 낙천정과 풍양궁을 오가며 거처하여 국왕인 세종이 태종을 뵈러 풍양궁을 오는 일들이 있었음.

## 9. 정리하는 말

### 9.1. 태조와 태종의 만남과 화해

#### 9.1.1. 1405년 개성에서 한성으로 수도를 천도할 때 견주(見州)에서 태조와 태종의 만남이 있었던 것은 조선왕조실록에 전하는 역사적 사실임

[1405년(태종 5년) 11월 6일]

임금이 태상왕을 옛 견주(見州)에서 맞이하였다. 임금이 숙소(宿所)에 나아가 헌수(獻壽)하니, 태상왕이 조용히 이르기를, “양도(兩都)에 내왕(來往)하여 백성들이 생업(生業)을 편히 하지 못하였는데, 이제부터는 <한군데> 정(定)해 살 수 있겠는가?”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삼가 가르침을 받들겠습니다.” 하고, 이내 모시고 잤다.

“上迎太上王于古見州。上詣 宿所獻壽，太上王從容謂曰 兩都來往 民不安業，自今其能定居乎？上曰 謹奉教。仍陪宿。”

[1405년(태종 5년) 11월 8일]

임금이 태상왕을 모시고 서울로 들어왔다.

“上奉太上王入京”

#### 9.1.2. 견주(見州)는 도봉산 수락산 천보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회룡분지 지역으로 의정부와 일치함

#### 9.1.3. 태조와 태종이 견주에서 상봉 후 1박하고 노원역에서 1박한 후 한성으로 입경(入京)함

### 9.2. 회룡사에서 태조와 무학의 인연

- 회룡사 중수 기록과 관련하여 1384년(고려 우왕10년)에 무학대사가 증창한 기록이 있음. 조선건국 이전에 무학대사와 태조와의 관계는 여러자료들에 설화로 전하고 있어 돈독한 관계를 가졌던 것으로는 보이나 회룡사에서 두 사람의 만남이 나타나는 사료는 없음.
- 태조가 즉위한 1392년까지는 무학대사가 천성산 원효암(경남 양산)에서 상주한 것으로 기록에 나타남.
- 1392년 태조가 왕으로 등극하고 개성왕도에서 무학대사를 국사(國師)로 임명한 사실이 있음

- 1393년부터 1405년 입적할 때까지 회암사에 상주함
- 중창에 관여한 것은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고 회암사와 회룡사에 동일한 유형의 수조(水槽)가 발견됨으로써 두 절이 중창되는 데에 직간접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9.3. 전좌마을과 태조

- 태조와 태종이 만나서 화해한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견주(見州)로 나타나 있어 의정부에서 회동한 것은 역사적 사실임
- 실록상에 의정부 전좌마을이 명시되는 것은 중종 때임

[1536년(중종 31년) 7월 7일]

좌상 대장(左廂大將) 조윤손(曹潤孫), 우상 대장(右廂大將) 황침(黃琛), 병조 참지 조인규(趙仁奎) 등이 아뢰기를, “녹양장(綠楊場) 대열(大閱)하는 곳의 전좌(殿坐)할 자리를 간심(看審)해 보니 도봉산(道峯山) 거암(擧巖) 아래 산기슭이 동쪽으로 추동(楸洞)을 향하여 있는데 중산(中山)과는 거리가 5~6리쯤 동네 어귀가 평탄하고 광활해서 10만 병마(兵馬)라도 용납할 수 있었습니다.” 하니, 그곳에서 대열하라고 전교하였다.

“左廂大將曹潤孫、右廂大將黃琛、兵曹參知趙仁奎等啓曰：“綠楊場大閱處，看審殿坐基，道峯山 擧巖下麓，東向楸洞，中山相距五六里許，洞口平衍廣闊，雖十萬兵馬，可容矣。” 傳曰：“於此場，大閱可也。”

- 대열의를 행하기 위한 전좌장소로 현 전좌마을을 명시하고 있어 실재 전좌하기 위한 터다짐 등이 있었을 것으로 유추됨
- 태조와 태종이 만난 장소를 전좌마을로 간주하기에는 기록상의 차이가 있음. 강무 혹은 대열의와 관련된 군사훈련장인 녹양장에서의 전좌 위치로 비정됨

### 9.4. 실질적 행사화 가능 항목

#### 9.4.1. 태조와 태종의 만남을 위한 퍼레이드 구성

- (1) 개성에서 한성으로 돌아오는 태상왕 일행과 태상왕을 영접하기 위해 한성에서 이곳으로 와서 영접하는 행사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함
- (2) 퍼레이드 구성 인원은 조선 건국 초기 왕실의 안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인 관계로 수천 명에 이르는 행렬이 이루어지나 이는 행사장소와 참가 가능 인원, 소요예산 등에 의해 조정될 수 있을 것임
- (3) 고려말 조선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국조오례의』가 완성된 세종 시대 이전인 관계로 여말선초의 복식과 기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임

#### 9.4.2. 태조와 태종의 만남과 관련된 의식

- (1) 숙소에서 헌수례를 거행하였다는 역사적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음
- (2) 헌수례에 관한 의식 진행순서는 전차의 고증에서 자세하게 기술함. 야외에서 헌수례를 거행할 당시 장막(帳幕)을 치고 행사를 거행함에 따라 적정 광장에 장막을 치고 행사를 거행함이 합당함

#### 9.4.3. 녹양장과 관련된 의식

- (1) 군사훈련, 군사의례와 관련된 행사화 가능 항목은 대열의(大閱儀), 격구(擊毬), 마상무예, 24반 무예 등이 행사화될 수 있음
- (2) 대열의(大閱儀), 격구(擊毬), 마상무예, 24반 무예 등에 관한 고증과 시나리오 등은 의정부문화재단에서 필요할 경우 이를 제공할 수 있음

#### 9.4.4. 회룡사 관련

- (1) 무학대사와 태조와의 우정에 관련된 다양한 설화를 모티브로한 공연 작품
- (2) 조계종과 협력하는 무학대사 축전

### 9.5. 행사 기획 시 주안점

#### 9.5.1. 태조와 태종, 태조와 무학 관련 스토리텔링

- (1) 태조 환궁 설화, 회룡사 설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종합한 스토리텔링 작업을 통해 역사와 이야기가 바탕이 된 퍼레이드 구성
- (2) 태조, 태종, 무학 관련 이야기와 장소들과 결부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을 통해 퍼레이드의 드라마성 극대화
- (3) 의정부 시민들이 참여하여 함께 만드는 퍼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행사 기획 및 추진 단계에서 시민 참여 방안 강구하여 과거와 현재가 만나 새로운 시공간을 창조한다는 스토리텔링 시도

#### 9.5.2. 퍼레이드 기획 시 강조점 및 제안

- (1) 태상왕 이성계의 정체성과 위용, 태종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정치적 영향력 표현
- (2) 고려 말 무인 출신이자 혁명을 일으켜 조선을 세운 태상왕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복식으로서 갑옷이 강조되는 행렬

- (3) 행렬 구성에서의 조선 초기의 시대성과 변별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복식과 의물, 깃발로 가능한한 구분할 수 있도록 주요 참고자료에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음
- (4) 도판과 실물자료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적정 규모가 정해져야 하며 현존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하고, 품목 및 복식 정리 → 갑옷의 종류가 많은 『고려사』 법가위장과 대규모의 깃발 중심으로 구성된 법가노부를 합친 후, 『국조오례서례』의 의물과 같거나 유사한 품목을 선별하여 다시 정리
- (5) 이를 위해 장시간에 걸친 복식과 의물의 고증 또는 대여가 필요



## [참고문헌]

### 사료

『고려사』

『태조실록』

『태종실록』

『연산군일기』

『연려실기술』

『여지도서』

### 연구논문

이기봉, 2011, 「고려시대 양주의 읍치이동에 관한 연구」, 『문화역사지리』 제3권 제3호.

이아름·이은주, 2017, 「1829년 기축진찬의례(己丑進饌儀禮)의 진작(進爵) 기물(器物) 연구」, 『문화재』 제50권 4호.

정요근, 2014, 「도봉구 연혁 기록의 비교검토와 보정」, 『인문과학연구』 제9집.

## 「의정부 조선역사 관련 문화행사 고찰」에 관하여

윤여빈(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우선 두 가지 시사점에 관해 관심이 필요하다.

첫 번째. 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인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할하자는 행정구역 개편안의 제기이다. 현 민선8기에 들어와서 경기도를 분할하여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광역자치단체로 떨어져 나간 이후 남북 간 연결성이 떨어지게 된 경기도를 남북으로 분도하자는 제안으로 2023년 기준 현재, 자치단체 개편안 중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개편안이다. 현재 경기도 분도는 상당히 실현 가능성이 높은 행정구역 개편안이다. 경기도 북부와 남부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존재로 인한 지리적 여건,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인구 비대 등의 이유로 이미 두 권역에 필요한 행정관청이 거의 다 따로 지어져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분도된 상태나 다름없다. 따라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이 최소화되는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두 번째. 의정부 지역학의 발흥이다. 지역학은 ‘일정한 지역의 지리나 역사, 문화 따위를 종합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지방학에서 ‘지방’은 국가의 정치권력을 형성하는 중앙정부의 영역범주와 구별되는 특정한 지방행정이 영향을 미치는 지역 차원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표면의 일정 공간을 토대로 역사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루어 놓은 유무형의 자취들, 즉 문화를 종합적으로 분석, 고찰하여 지역을 보다 나은 삶의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하는 학문이며, 인간 중심의 가치들을 찾고 그를 통해 보다 나은 삶의 공간을 만들어가는 실천 학문이다.

현재 의정부평생학습원과 의정부문화원을 중심으로 의정부지역학 세미나가 개최되는 등 의정부시 승격 60주년을 맞이하여 의정부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의정부학이란 의정부시의 자연환경과 토지, 주택, 건물, 교통, 도시계획 등의 물리적 환경은 물론 인구, 정치, 행정, 산업경제, 사회복지, 문화예술, 체육관광 등 인문사회 및 의정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인물이나 삶의 질과 의식구조 등 사람의 특징을 망라한 총체적인 것이 그 연구대상이 되는 것이다. 의정부학은 의정부 지역을 대상으로, 의정부

지역에 대한 학제간 총체적 접근을 요구하고, 지역 정체성 추구를 목적으로, 의정부의 내재적 발전을 위한 실천적 학문을 지향하며, 과거를 바탕으로 현재를 조명하며 미래를 추구한다.

경기도 분도시 의정부가 경기북도의 수부도시가 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측 된다. 수부도시가 된다면 인구 400만의 새로운 중심지가 될 것이며 새로운 도시의 역사와 문화의 생성이 필요할 것이다.

‘조선시대 도읍 한양과 가깝고 한양과 북부 지방을 연결하는 교통로에 위치한 의정부 지역은 왕실 관련 장소들과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오고 이것이 지명으로 굳어져 의정부 시 정체성의 한 부분을 이루게 되었다’는 필자의 의견에 동의한다.

필자의 의견대로 1405년 11월 6일 전주(현 의정부 지역)에서 이루어진 태조와 태종의 극적인 만남은 신생국가 조선이 안정적인 발전토대를 만든 역사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으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콘텐츠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태조·태종 상봉을 통해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고 서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문화콘텐츠화 한다면 다양한 방면에서 아버지와 아들을 주제로 행사화가 가능할 것이며 의정부시가 부자유친의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아버지와 아들이 의정부에 함께 와서 부자유친 상징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의정부 부대찌개로 식사를 하는 장면을 상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올해 경기 양주시에 있는 회암사지가 문화재청이 공모한 ‘2023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 연구지원 사업’에 선정됐다. 문화재청에서 경쟁력 있는 우선 등재목록 및 신규 잠정 목록을 발굴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회암사는 태조 이성계와 펠레야 펠 수 없는 관계이다.

의정부의 어가행차는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에 발생된 퍼레이드로 의정부 역사도시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로 의정부 단독으로 행차를 구성하는 것보다 회암사지를 보유하고 있는 양주시 - 의정부 - 서울시가 공동으로 연대하면 지역간 협력사업이 될 뿐 아니라 초대형 거리축제로 만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이슈가 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경기북부와 강북의 문화를 한눈에 보여줄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필자의 의견에 적극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건의사항이 있다. 국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어가행렬시 고려시대 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조선시대 복식이 더 어울리고 고증 면에서 확실할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서 어가행차시 국왕으로부터 문무백관, 어가를 드는 병사들까지 모두 주민추첨을 통해서 행차를 구성할 것을 건의한다.

의정부시의 태조·태종 관련 문화콘텐츠 활용은 의정부의 새로운 역사 정체성을 정립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writing the content of the memo.

Memo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thin black border, occupying most of the page. It is intended for the user to write the content of their memo.